

제1교시 나무아카데미 국어영역

작년 수능 특징

- 공통과목인 문학과 독서는 전체적으로 2023시행(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보다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
- 선택과목인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의 난이도가 매우 높아졌는데, 문법이 특히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 화법과 작문 파트를 가볍게 생각한 학생들도 많이 당황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 문학 6개 작품 중 3개 작품이 EBS와 연계되었지만, EBS 연계를 인지한 학생이라 하더라도 문제를 푸는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답을 찾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 독서 지문 역시 4개 지문이 EBS와 모두 연계되었지만 문학과 마찬가지로 문제를 푸는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답을 찾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 국가에서 킬러문항을 배제하겠다고 발표한 대로 킬러문항이라고 할 만한 문항은 없었으나, 전체적인 난이도가 올라가 수험생 입장에서는 2022시행(2023학년도) 대수능이나 2023시행(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보다는 체감 난이도가 높았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 난이도가 높았던 문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문학: 27번, 31번
 - 독서: 15번, 16번
 - 연애: 35번, 37번
 - 화작: 40번, 43번, 45번

금년 6모, 9모의 특징

- 금년 6모와 9모 모두 전체적으로 2023시행(2024학년도) 수능보다는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 전체 영역에서 전체적인 출제 기조는 유지하였으나, 9모는 6모보다 쉽게 출제되었으나, 선택 과목의 난이도 상승, 킬러 문항 배제라는 틀은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 금년 6모와 9모 동일하게 ‘화법과 작문’에서 화법, 화법과 작문 통합, 작문 문항은 각각 3, 5, 3문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금년 6모와 9모에서 ‘언어와 매체’에서의 언어는 이론 지문을 포함하여 5문항, 매체는 두 개의 지문에서 6모에서는 4, 2문항, 9모에서는 3, 3문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금년 6모에서는 문학 갈래 복합이 5문항(22~26번) 출제되었으나, 9모에서는 6문항(22~27번) 출제되었습니다.
- 금년 6모와 9모 동일하게 독서 주제 통합이 12~17번에 출제되었습니다. 다른 독서 지문 또한 동일하게 독서 이론 3문항(1~3

번), 나머지 두 지문에서 4문항씩(4~7번, 8~11번) 출제되었습니다.

금년 수능 출제 예상 및 본 실전 모의고사 특징

- EBS(수능특강) 연계율이 높아지고 있기에 금년에도 EBS 수능특강에 출제된 내용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지문의 연계를 인식하는 것과 출제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이므로 독해력·사고력·문제 해결력을 높이는 학습은 항상 필요 합니다.
- 킬러문항은 출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지문의 난이도를 낮춘 대신, ‘매력적 오답’의 선택지를 늘려 변별력을 높이고자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전년도 수능 유형과 마찬가지로 독서는 4개 지문으로 구성될 것이며, 이 중 1개는 독서의 이론에 대한 지문, 1개는 주제 통합 지문이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 금년 9모의 유형을 반영하여 ‘독서-문학-독서’와 같은 교차 제시가 아닌 ‘독서-독서-문학-문학’의 구성을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 ‘화법과 작문’은 화법, 화법과 작문 통합, 작문 문항은 각각 3, 5, 3문항으로 구성될 것입니다.
- ‘언어와 매체’는 작년 수능이나 금년 6모, 9모와 같이 언어는 이론 지문을 포함하여 5문항이 출제되었으나, 매체는 기존의 두 개의 지문에서 각각 4, 2문항으로 구성되었던 것과 달리 9모에서는 3, 3문항으로 출제되었으므로 올해 수능에서는 9모의 유형에 맞춰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해당 실전 모의고사는 위 출제 예상 내용을 반영하여 문항을 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3회분 모두 4개의 독서 지문과 4개의 문학 지문으로 이뤄져 있으며 주제 통합 독서 지문과 ‘독서’에 대한 지문은 출제될 확률이 100%에 가까우므로 모든 회차에 제시하였습니다.
- 언어와 매체는 2회분은 매체의 문항 구성을 3, 3문항으로, 1회분은 4, 2문항으로 구성하는 등 여러 유형을 접할 수 있도록 출제 하였습니다.
- 문학 갈래 복합은 22번 자리에 출제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3회분 모두 22번 자리에 갈래 복합을 출제하였습니다.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를 훤히 꿰뚫어 보는 듯한 책을 만날 때가 있다. 이런 책은 다른 책보다 더 많은 유익을 준다. 이때 책의 내용은 더 이상 일반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나를 향한 아주 적절하고 특별한 조언이 된다. 저자가 나와 비슷한 성향이거나, 같은 비전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도 많은 유익을 준다. 수많은 책들 중에 유난히 많은 공감과 깨달음을 주는 책은 당신만의 특별한 책이다. 그 책을 읽고 또 읽어라. 책의 모든 내용을 이해하고 받아들여라. 책의 견해를 빌려 삶의 문제를 해결하라. 자신의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문제를 초월하여 진진하라.

변화와 영적 성숙을 위한 책 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권의 책을 완전히 소화하듯 읽는 것이다. 이것은 분석적 읽기를 통해 한 권을 완전히 독파하라는 말이다. 인격 성숙을 위한 목적이라면 절대로 빨리 읽어서는 안 된다. 책 한 장 한 장에서 말하고 있는 저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동시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읽어야 한다. 저자의 지혜를 깊이 사모하게 되면 자신의 사상으로 소화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그리고 실천적인 적용을 해야 한다.

조선 후기 대학자인 다산 정약용의 독서론도 이와 다르지 않다. “책을 읽는 데는 방법이 있다. 세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책은 구름 가듯, 물 흐르듯 읽어도 되지만 만일 백성이나 나라에 도움이 되는 책이라면 반드시 문단마다 이해하고 구절마다 탐구해 가면서 읽어야 하며 한낱의 줄음이나 쫓는 태도로 읽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인격 성숙에 도움을 주는 책들은 이처럼 완전히 독파해야 한다. 전문 지식을 쌓아 가기 위해서는 다독과 속독이 필요하고, 인격 성숙을 위해서는 정독과 재독이 필요하다. 전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다독과 속독을 할 때의 전제 조건도 정독을 통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분석하여 읽는 정독은 변화와 영적 성숙을 위한 책 읽기에서나 전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책 읽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독서법이다.

1.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독서에 대한 이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생의 조언을 얻을 수 있다.
- ② 인생을 성찰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 ③ 실천하여 적용하는 힘을 기를 수 있다.
- ④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얻을 수 있다.
- ⑤ 인격을 성숙시키고 전문 지식을 쌓을 수 있다.

2. 윗글과 <보기>에 드러난 독서 방법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책을 읽을 때는 반드시 한 가지 책을 습득하여 그 뜻을 모두 알아서 완전히 통달하고 의문이 없게 된 다음에야 다른 책을 읽을 것ियो, 많은 책을 읽어서 많이 얻기를 탐내어 부산하게 이것저것 읽지 말아야 한다.

- 이이, 「격몽요결」

- ① 비슷한 성향의 저자가 쓴 책이 좋은 책임을 주장한다.
- ② 책을 다양하게 읽어 지식을 넓히려는 태도를 중시한다.
- ③ 책에 담긴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려는 독서 태도를 강조한다.
- ④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책을 이해했을 때의 기쁨을 드러낸다.
- ⑤ 책을 읽는 목적에 따라 책 읽기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린다.

3.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정독은 가장 기본이 되는 독서법이다.
- ② 전문 지식을 쌓아 가기 위해서는 다독과 재독이 필요하다.
- ③ 유난히 많은 공감과 깨달음을 주는 책은 독자만의 특별한 책에 해당한다.
- ④ 인격 성숙을 위한 목적으로 책을 읽을 때에는 절대로 빨리 읽어서는 안 된다.
- ⑤ 변화와 영적 성숙을 위한 책 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석적 읽기를 통해 한 권을 완전히 독파하는 것이다.

[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보 비대칭은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상대방이 가지지 못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피고용인은 고용주보다 자기가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를 잘 안다. 중고차 판매상은 고객보다 자동차의 상태를 더 잘 안다. 전자의 사례는 감춰진 행동에 대한 정보와 관련된 것이고, 후자의 사례는 감춰진 속성에 대한 정보와 관련된 것이다. 이때 정보를 가지고 있는 쪽은 자신에게 유리한 거래 조건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초과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반대로 정보를 가지지 못한 쪽은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으로 인해 손해를 볼 수 있다.

도덕적 해이 현상은 피고용인이 고용주를 위해 어떤 임무를 수행할 때 발생하는 문제이다. 고용주가 피고용인의 행동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을 때 피고용인은 고용주가 원하는 수준만큼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도덕적 해이는 피고용인의 부적절한 행위에 따른 위험을 가리키는데, 고용주는 이를 피하기 위해 피고용인이 성실하게 일하도록 하는 방법을 ㉠ 찾는다. 가령, 고용주는 피고용인이 열심히 일하는지 점검하는 감독을 강화할 수도 있고, 혹은 높은 임금을 지급하여 열심히 일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할 수도 있다.

역선택 현상은 정보가 부족한 구매자가 열등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다. 역선택이 발생하는 전형적인 시장은 중고차 시장인데, 중고차를 사려는 사람은 중고차 시장에 나온 자동차의 상태가 좋더라도 그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높은 가격을 지불하려 들지 않는다. 이로 인해 상태가 좋은 차를 소유한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가격에 팔 수 없기 때문에 그 차를 중고차 시장에 내놓지 않을 것이다. 결국 중고차 시장에는 상태가 좋지 않은 차들이 나오게 되고, 구매자는 품질이 열등한 차를 살 수밖에 없게 된다.

이처럼 정보 비대칭은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데 장애가 되기 때문에 시장은 이에 대응하는 방법을 마련하는데, 그중의 한 가지가 '신호 보내기'이다. 이는 정보를 가진 쪽이 정보가 없는 쪽에 직접적으로 자신의 정보나 속성을 알려서 자신의 불이익을 해소하거나 이익을 추구하려는 행위로서, 회사에 입사하려 할 때 자격증을 제시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한편, 정보가 없는 쪽이 적절한 장치를 통해 상대방 스스로 정보를 드러내도록 유도한 후 상품을 선택하는 것을 '골라내기'라고 한다. 이는 정보가 없는 쪽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끔 작용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이나 계약 조건을 제시하여, 정보를 가지고 있는 쪽에서 그러한 장치에 자발적으로 반응하게끔 하는 것이다. 중고차를 사려는 사람이 판매자에게 차를 정비 업소에서 점검해 보자고 요구할 수 있는데, 판매자가 그 요구를 거부한다면 차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정보를 드러내는 셈이 된다.

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정보 비대칭의 개념을 밝힌 후 사례를 들고 있다.
 - ② 정보 비대칭의 유형을 둘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③ 정보 비대칭에 대한 시장의 대응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 ④ 정보 비대칭을 유사한 원리를 가진 대상에 빗대고 있다.
 - ⑤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피해를 인과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5.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역선택이 반복되면 시장에 대한 불신이 형성될 것이다.
 - ② 도덕적 해이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이다.
 - ③ 정보 비대칭은 정보의 양이 많으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 ④ 신호 보내기가 반복되면 신호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것이다.
 - ⑤ 골라내기는 상대방의 반응에 앞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6. 윗글의 내용을 고려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자동차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가 어떻게 운전하는지에 대해 가입자 본인만큼 알지 못한다. 그래서 보험료는 사고를 자주 내는 운전자로 인해 지출될 보상금을 반영한 수준으로 높아지고, 사고 가능성이 낮은 운전자는 높아진 보험료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려 들지 않는다. 결국 사고 가능성이 높은 운전자들만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보험사는 과도한 보상금 지출로 인해 파산할 수 있다. 보험사는 이를 막기 위해 운전자들이 두 종류의 보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데, 첫 번째 보험은 모든 사고에 대해 전액 보상하지만 보험료 수준이 높다. 두 번째 보험은 사고가 나면 보상액 중 일정 비율을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보험료 수준이 낮다.

- ① 보험사와 보험 가입자 간의 정보 비대칭은 보험 가입자의 감춰진 행동과 관련된 것이겠군.
- ② 보험사가 도덕적 해이에 빠지면 모든 보험 가입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보험료를 부과하겠군.
- ③ 사고 가능성이 높은 보험 가입자들로 인해 보상금 지출이 많아지면 보험사는 역선택을 한 셈이군.
- ④ 운전자가 보험사에 무사고 경력을 제시하여 보험료를 할인받는다면 일종의 신호 보내기를 한 셈이군.
- ⑤ 보험사가 운전자들에게 두 종류의 보험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것은 골라내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군.

7. 다음의 밑줄 친 말 중 ㉠의 문맥적 의미에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형사는 그 사건의 실마리를 찾으려고 노력했다.
 - ② 그녀는 삼십 분째 얼음 파는 가게를 찾고 있다.
 - ③ 주말에 산이나 바다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 ④ 그는 힘든 상대를 이기고 자신감을 찾게 되었다.
 - ⑤ 마음의 평정을 찾아야 삶의 여유를 누릴 수 있다.

[8~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00년대 초 물리학계에서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최소 전하량인 전자의 전하량 존재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 전자가 띠고 있는 전기의 양인 전자의 전하량은 기본 전하량이라고도 하는데, 이 논쟁에 참가했던 두 논객 중 로버트 밀리컨(Robert A. Millikan)은 이를 측정할 공로로 노벨상을 받았으나, 다른 한 사람 펠릭스 에렌하프트(Felix Ehrenhaft)는 전자의 전하량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학문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전자의 전하량을 측정하기 위한 시도는 밀리컨 이전에도 있었는데, 기본 전하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험 방법을 구안하는 것이 중요했다. 윌슨은 이온화된 안개상자에 생성되는 구름이 중력의 영향으로 하강하는 비율을 측정할 뒤, 이와 유사한 구름에 중력의 방향과 반대인 전기장을 가해서 구름 방울의 하강 속도 비율을 비교하는 간접적 측정으로 기본 전하량의 값을 얻었다. 그런데 윌슨이 측정한 전하량값은 편차가 상당히 심했고, 밀리컨은 이것이 X-선관에 의한 이온화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밀리컨은 X선 대신 라듐을 이온화 장치로 사용하는 등 실험 방법을 계속 개선해 나갔다.

우선 그는 실험 중 물방울이 기화하는 문제를 극복할 방법을 고민하였다. 또한 그동안의 실험 장치에서는 중력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과 전기장을 가했을 때 떨어지는 물방울의 질량이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고 있었는데,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이 점도 보완해야 할 과제였다. 그는 실험 조건을 다양화하기 위해 물 이외에 알코올을 실험에 활용하기도 했다. 물과 알코올 방울 하강 실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하강 속도, 반경, 밀도, 유체의 점성도와 관련된 스토크스 법칙*의 유효성을 얼마나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것과 공기의 점성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일이었다. 또한 전기장 내에서 단일하게 대전*된 방울들을 만들어 내는 것도 실험의 정확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였다.

결국 밀리컨은 물방울과 알코올 방울 실험을 통해 전자의 전하량값을 얻었는데, 자신이 얻은 값이 다른 사람들이 얻은 값과 오차 범위 내에서 일치하는 것에 고무되어 기본 전하량이 존재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밀리컨은 전자의 전하량의 존재를 부정한 에렌하프트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실험을 계속 개선해 나가 ㉠기름방울에 의한 실험을 고안했는데 이것은 기본 전하량을 측정하는 데 큰 전환점이 되었다. 기름은 휘발성이 낮아 기름방울이 오르내리는 것을 오랜 시간 동안 측정할 수 있었으며, 이 실험은 기름방울에 작용하는 여러 종류의 힘인 전기력, 중력, 부력, 공기의 저항력 등과의 관계로부터 값을 구하는 직접적인 측정이었다.

밀리컨은 전기장 속에 놓인 두 극판 사이에 미세한 기름방울을 뿌린 후, 그 움직임을 관찰하였다. 기름방울은 분무기를 통과하면서 단일한 전하를 띠게 되고, 수평의 두 극판이 만드는 전기장(E)에서 아래 방향으로 중력을 받고, 위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는다. 이때 극판의 전압을 조절하여 전기력이 중력과 평형을 이뤄 기름방울들이 움직임 없이 떠다니게 하였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qE=Mg$ 이다. 여기서 q가 구하고자 하는 기름방울의 전하량이고 전기장(E)의 크기와 중력 가속도(g)는 알고 있는 값이다. 따라서 밀리컨은 기름방울의 질량(M)을 구하기 위하여 전기장을 끄고 낙하하는 기름방울의 중단 속도*를 측정하여 기름방울의 반경을 구하고, 이를 이용해 질량(M)을 알 수 있으므로 q를 구할 수 있었다. 그는 공기의 점성도를 정확하게 대입하고 스토크스의 법칙을 교정하여 많은 오차 요소를 제거해 나간 끝에 마침내 기본 전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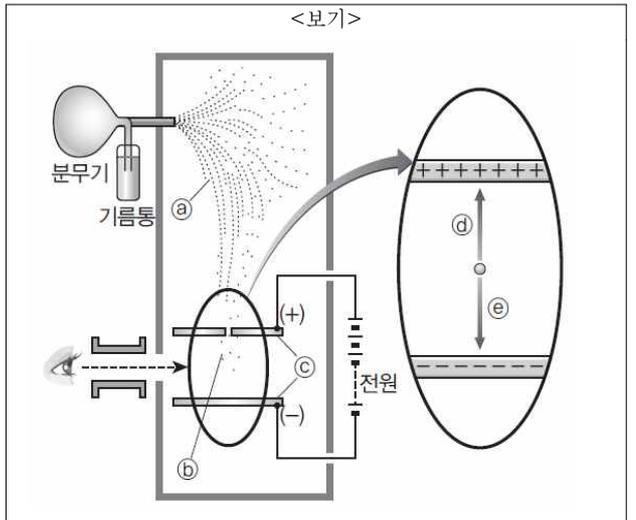
값을 발표하였고, 이에 의해 물리학의 기본이 되는 여러 기초 상수들도 새롭게 계산될 수 있었다.

- * 스토크스 법칙(Stokes' law): 구형 입자가 유체 속을 매우 천천히 움직일 때의 힘에 대해 기술한 법칙.
- * 대전: 어떤 물체가 전기를 띠. 또는 그렇게 함.
- * 중단 속도: 어떤 물체가 움직일 때 속도의 증가에 따라 저항력이 커져서 결국 일정한 속도를 가지게 되는 것.

8. 윗글을 읽는 독자의 읽기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소개된 각 실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시하고 있는 실생활에서의 사례를 확인하며 읽어야겠어.
- ② 기존 실험이 지닌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니 새로운 실험 방법에 주의하며 읽을 필요가 있겠어.
- ③ 분류의 방법으로 각 실험의 종류를 제시한 것을 보니 종류별 특징에 집중하여 세부 정보를 파악해야겠어.
- ④ 과학사에서의 논쟁이 제시된 것을 보니 주장과 반박이 진행되는 과정에 중점을 두고 읽을 필요가 있겠어.
- ⑤ 질문을 통해 쟁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논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질문의 답에 집중하면서 읽어야겠어.

9. <보기>는 ㉠을 나타낸 것이다. ㉠~㉢를 바탕으로 ㉡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기름은 휘발성이 낮기 때문에 기름방울 ㉠과 ㉡의 질량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 ② 기름방울 ㉠은 ㉡와 달리 ㉢의 영향을 받지만 ㉣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전하를 띠지 않는다.
- ③ ㉡의 전하량을 알기 위해서 ㉢를 끄고 ㉡의 중단 속도를 측정하여 ㉡의 질량을 구한다.
- ④ ㉡의 중단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공기의 점성도와 관련된 스토크스의 법칙을 교정하여 적용하였다.
- ⑤ ㉢의 전압을 조절하여 ㉣와 ㉢가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의 전하량을 측정한다.

고3

10. 윗글과 <보기 1>을 읽은 학생들이 <보기 2>와 같이 가상 토론을 벌였다.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에렌하프트는 밀리컨과 유사한 방법으로 전자의 전하량을 측정했는데, 전자의 전하량보다 더 작은 전하량을 얻었다고 발표했다. 에렌하프트는 '전자 이하의 하전 입자(subelectron)'라는 단어를 만들어 기본 전하량은 1×10^{-10} (esu) 혹은 그 이상의 수준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그는 금 입자의 전체 전하량이 5×10^{-11} 에서 1.75×10^{-10} 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 그는 이후에 전자의 절반, 50분의 1, 100분의 1, 심지어는 1000분의 1의 양까지 발견했다.

<보기 2>

사회자: 전자의 전하량의 존재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존재 여부나 측정 방법에 대한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리컨: 저는 ㉠기본 전하량이 존재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측정을 위해서 실험 방법을 개선해 나갔습니다.

에렌하프트: 당신과 유사한 방법으로 실험을 했지만 ㉢기본 전하량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값으로 되어 있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실험 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요?

밀리컨: 글썽요. 저는 ㉡물방울의 기화 문제를 개선했고, 전기장 내에서 단일하게 대전된 방울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하강 속도를 조절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름방울에 작용하는 전기력, 중력, 공기 저항력 등과의 관계를 계산하여 전자의 전하량을 직접 측정했습니다.

윌슨: 저는 기본 전하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온화된 구름 방울을 이용했는데요. ㉤전기장을 가하면 전하량에 따라 하강 속도가 달라질 것이므로 중력장에서의 하강 속도 비율과 비교하면 간접적으로 전하량을 알 수 있습니다.

에렌하프트: 그렇지만 '전자 이하의 하전 입자'가 밝혀진 이상 기본 전하량의 존재는 부정되어야 합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1. 밀리컨의 기름방울 실험에서 전기장(E)을 조절하여 기름방울이 움직임 없이 떠다니게 하는 이유로 적절한 것은?
- ① 기름방울의 질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 ② 기름방울의 운동 에너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 ③ 기름방울의 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 ④ 기름방울의 전하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 ⑤ 기름방울에 작용하는 힘의 합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

[12~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미적 모더니티란 19세기 전반에 출현한 특수한 미학적 개념으로, 부정성(negativity)을 바탕으로 탄생하였다. 미적 모더니티가 부정하는 대상은 과거 또는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계기로 서양 미술에서 현대 미술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과거 또는 전통에 대한 부정은 초월적인 미의 영원한 원천으로서의 고대와 그러한 미의 구현을 합리주의적으로 추구하는 이성 중심적 고전주의 예술론에 대한 부정으로 집약될 수 있다. 이는 현재성에 대한 감각을 강조하고 감정과 상상력을 중시하는 낭만주의가 예술의 규칙이나 도덕과의 연관성을 강조하는 고전주의에 대해 반대하며 예술의 자율성이라는 개념을 ㉡단초로 마련했기 때문에 가능한 사건이었다.

반고전주의적 예술 개념을 바탕으로 미적 모더니티는 부르주아 문명이 지배하는 사회에 대해서도 부정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이어 온 습관이나 과거의 명성에 압도되어 여전히 고전주의를 추종했던 당시 사회의 부르주아 계층에 대한 공격으로 발전하였는데, 젊은 작가들이 중심을 이루었던 19세기 전반부의 예술 운동이 그것이다. 이들은 “부르주아를 납작하게 만들자.”라는 공격적인 표어 아래 미의 무용성과 예술의 무상성을 주장했으며, 19세기 중반에는 예술에 대한 급진적인 주장으로 발전한다. 예술은 이성적 규칙은 물론 도덕적 선의 영역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부르주아적 상업주의나 공리주의를 부정해야 하며, ㉢일체의 과거와 완전히 단절된 초월적인 영역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체의 과거와 단절된 초월적인 영역이 구축된다 하더라도 그 스스로가 또 하나의 전통이 되어 갈 수 있었기 때문에 미적 모더니티는 스스로에 대해서도 부정하였다. 과거에 대한 부정과 부르주아 사회에 대한 부정의 정신을 계승하여 자율적 예술의 개념을 신봉하면서 예술의 독자적인 영역 안에서 순수성을 추구하는 것이 문화 영역의 분리로 ㉣귀결된다면 이는 결국 미적 모더니티가 부정하고자 했던 부르주아 자본주의 문명의 분업화 논리와 다르지 않다. 문화 영역의 분리는 미적 모더니티가 부정하고자 했던 부르주아 사회에 대해 대안적인 극복 방안이 되기보다, 단순하고 무력한 부정의 표명에 그치거나 본래의 정신을 잃고 ㉤고전주의를 대체하는 새로운 전통이 될 뿐이다.

이렇게 부정을 기반으로 한 미적 모더니티는 현대 미술의 출발과 전개를 구조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개념적 이해의 틀을 제공하였다. 이로부터 제도화된 예술의 틀을 넘어 반자본주의적 삶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아방가르드 예술이다.

(나)

1980년대 제니 홀저(Jenny Holzer)는 대중이 가지고 있는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를 전복하고 해체하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홀저는 공적인 공간에서 텍스트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는데, 텍스트의 사회적 함의를 이용하거나 기술적 표현 방법을 복합적으로 동원하여 독립적인 매체의 특성을 극대화하였다.

다른 예술가들이 기성품을 차용하여 작품을 만들어 내는 것과 달리 홀저는 텍스트를 직접 엮어서 의미적 전환을 일으키는 방법을 택하였는데, 텍스트의 앞뒤나 선후 관계가 순연적으로 이어져 맥락이 중첩되거나 ㉠적층되는 일반적인 언어 구조가 아닌, ㉢역설, 반어, 모순의 방법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접적으로 의미하거나 지시하는 바가 있는 하나의 단어나 문장을, 이어지는 다른 단어나 문장과 결합하여 의도하는 의미를 생성하는 특징적인 수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홀저가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 궁극적 이유는 기존의 모더니즘이 가지고 있는 예술의 일방적인 의미보다 일반 대중이 자율적으로 예술에 대해 해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 했기 때문이다. 바바라 크루거(Barbara Kruger) 역시 이미지와 텍스트를 결합하는 독특한 예술 형식을 통해 기존 예술에 대한 비판과 함께 사회 제도적 권력이나 남성 지배적 구조에 항거하였다. 크루거는 일상생활 속 광고에서 보이는 텍스트와 이미지의 결합을 파괴하고자 하였다. 크루거는 기존의 이미지에 새로운 텍스트를 결합함으로써 원본이 가지고 있는 원형성을 부정하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

크루거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념화, 시각화되고 있는 자본주의, 소비주의, 상업주의 등을 지적하고 비판하기 위해 상업적인 매체 이용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상업적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직설적이고 일방적인 의미 전달 방법을 답습하여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이는 노먼 브라이슨이 언급한 “사회적 구조 속에서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자각하는 정체성의 수립은 물리적인 수단이 아닌 시각적 자극과 정보의 주입에 의해 이루어진다.”라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으로, 크루거는 전통적으로 사회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제도적 권위에 대한 저항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려 했던 것이다.

12. 다음은 (가)와 (나)를 읽은 학생이 작성한 학습 활동지의 일부이다. ㄱ~ㄴ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습 항목	학습 내용	
	(가)	(나)
도입 문단의 내용 제시 방식 파악하기	ㄱ	ㄴ
:		
글의 내용 전개 방식 이해하기	ㄷ	ㄹ
현대 미술과 관련하여 두 글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ㅁ	

- ① ㄱ: 미적 모더니티의 개념을 통해 화제를 제시하였음.
- ② ㄴ: 화제에 대한 통념을 언급하여 문제의식을 환기하였음.
- ③ ㄷ: 미적 모더니티가 부정한 대상들을 나열하여 설명하였음.
- ④ ㄹ: 텍스트를 활용한 예술가들의 표현상 특징을 각각 제시하였음.
- ⑤ ㅁ: 전통적 미술에서 벗어나려는 현대 미술의 움직임에 이해해 보도록 하였음.

13.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아방가르드 예술은 미적 모더니티의 자기 부정 정신을 이어받았다.
- ② 다른 예술가들과 달리 제니 홀저는 텍스트를 직접 엮어서 의미적 전환을 시도하였다.
- ③ 미적 모더니티는 19세기 전반 현대 미술에 대한 부정을 바탕으로 생성된 미학적 개념이다.
- ④ 바바라 크루거는 상업적 미디어의 직설적이고 일방적인 의미 전달 방법을 그대로 차용하였다.
- ⑤ 미적 모더니티를 받아들인 젊은 작가들은 예술이 이성적 규칙이나 도덕적 선의 영역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였다.

14.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A)	(B)
제니 홀저는 부의 상징인 뉴욕의 거리 한복판에 설치된 커다란 전광판에 ‘PRIVATE’ (사적인), ‘PROPERTY’(재산), ‘CREATED’(만들었다), ‘CRIME’(범죄)라는 단어를 각각 늘어놓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보게 하였다.	바바라 크루거는 유명한 남자 배우의 얼굴이 촬영된 광고 사진에서 광고 문구만을 삭제하고 ‘FEAR and HATE’(두려움과 혐오)라는 글자를 크게 써넣어 게시하였다

- ① (A)는 공적인 공간인 거리의 전광판을 활용하여 일반 대중이 텍스트를 자율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도록 한다고 할 수 있군.
- ② (A)는 각각의 의미를 가진 개별 단어를 한 화면에 배치하여 대중이 가지고 있는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를 전복하려 한다고 할 수 있군.
- ③ (B)는 사진과 텍스트라는 시각적인 자극을 통해 원본이 가지고 있는 원형성을 그대로 인용하는 효과를 거둔다고 할 수 있군.
- ④ (A)와 (B) 모두 기성품을 차용하는 기존 예술가들과는 달리 텍스트를 활용한 예술 양식이라고 할 수 있군.
- ⑤ (A)는 부르주아 문명을 상징하는 도시를 배경으로, (B)는 남성 중심의 문화를 상징하는 남자의 이미지를 배경으로 텍스트를 결합하여 저항의 메시지를 생성한다고 할 수 있군.

15.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새로운 전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공간이다.
- ② ㉠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본주의 문명을 분업화할 수 있다.
- ③ ㉡을 수용하여 반자본주의적 삶을 추구할 수 있다.
- ④ ㉡은 부르주아 사회에 대한 대안적인 극복 방안이다.
- ⑤ ㉠에 대한 부정을 통해 ㉡의 생산을 예방할 수 있다.

16. 노먼 브라이슨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기존의 모더니즘이 가지고 있는 예술의 일방적인 의미를 부정하였다.
- ② 크루거가 직설적이고 일방적인 의미 전달 방법을 선택한 배경을 제공하였다.
- ③ 크루거의 주장을 받아들여 맥락이 중첩되거나 적층되는 의미적 전환을 일으켰다.
- ④ 문자와 이미지와의 결합에 따라 상업적인 매체 이용 방법을 적극적으로 권고하였다.
- ⑤ 전통적으로 사회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제도적 권위에 대한 저항의 메시지를 강조하였다.

고3

17. ㉠~㉣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에서, 지난 시대에 이미 이루어져 계통을 이루며 전하여 내려오는 사상·관습·행동 따위의 양식.
 - ② ㉡: 일이나 사건을 풀어 나갈 수 있는 첫머리.
 - ③ ㉢: 어떤 결말이나 결과에 이름. 또는 그 결말이나 결과.
 - ④ ㉣: 충충이 쌓임.
 - ⑤ ㉤: 자기의 뜻을 힘주어 말함. 또는 그런 말.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안방에 들어갔다 좁만에 아내가 돌아왔다. 손에 돈이 들려 있지 않다. 그러면 댘나 보다 했다. 그러나 아내의 말은 그렇지가 않았다. 아무래도 이 방을 비워 달란다는 것이다. 영감과 큰아들은 다 다미 여덟 장 방에서 자고, 큰 온돌방에는 작은아들과 부인이 각각 자고 있는데, 그리고는 좁아서 못 견디겠다는 말은 못 하겠는지, 장발한 딸들의 말이 할머니 코고는 소리에 도시 잠을 잘 수 없으니 기어코 그 방을 할머니 방으로 쓰게 내 달라더라는 것이다. 여기서 아내는 또 우리가 어떻게든 할머니 주무실 자리를 넉넉히 내어 올릴 테니 그렇게 하자고 해도, 그렇게는 못 하겠다더라는 것이다. 그리고 부인이 한다는 말이, 자기네 딸 친구가 있어 방 하나만 구해 주면 금손목시계를 프레젠티하겠다는 것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간이 서늘해움을 느꼈다. 금손목시계라니 문제가 좀 큰 것이다. 그래, 가지고 갔던 돈은 어쨌느냐니까, 좌우간 딸들 책이라도 한 권 사 보라고 놓고 오긴 했다고 한다. 이 돈만 돌아오지 않으면 하는 것이 희망이었다. 그러나 이튿날 이 돈은 도로 돌아오고 말았다.

그리고 그날 저녁이었다. 나는 학교 나가는 날은 학교로 해서, 그렇지 않은 날은 아침에 직접 남포동 부모가 계신 곳에 가 하루를 보낸다. 이곳 피란민들은 대개 담배 장사를 하느라고 애들만 남기고 모두 나간다. 부모도 그 축의 하나였다. 나는 여기서 서면*간 내 큰애들이 돌아오길 기다려 국제시장엘 들러 애들 엄마를 만나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게 한 일과였다. 그날도 그랬다.

우리가 저녁에 모여 들어가니, 방 안에 말 같은 처녀 둘이 와서 뻘치고 섰다. 이 녀 딸들이었다. 누가 형이고 동생인 것도 구별안 되는, 좌우간 큰딸은 시내 모 여학교 졸업반이라는 것이고, 작은딸은 사학년이라는 처녀들이었다. 이들이 오늘 저녁엔 이 방에 와 자야겠다는 것이다. 나는 이 두 말 같은 처녀 중의 누가 친구한테 방 하나만 구해 주면 금손목시계를 프레젠티 받을 수 있는 아가씨일까 생각해 보았다. 그러면서 나는 이 자리를 피해야 할 걸 느꼈다.

그러는데 이 말같은 두 처녀가 누구에게라 없이, 이삼 일 내로 반드시 방을 내놓으라는 말과 함께, 나에게 시선을 한 번씩 던지고 나가버렸다. 그 시선들이 멀리서 찬 눈초리였던 어쨌든 그것은 벌써 아무래도 좋았다. 그저 이들의 전범이 그 효과에 있어서 내게는 이들의 오빠 되는 청년이 내 따귀를 몇 번 갈기는 것보다 더 컸다는 것만은 자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지 않아도 아침이면 나가는 나는 이날은 어서 이곳을 나가 고만 싶었다. 이날은 학교 가는 날이기도 했다. 풍경 달린 현관문을 열고 나서니, 응접실 앞 거기 꽃이 진 동백나무 이편에 변호사 영감이 허리를 구부리고 서서 ㉠회양목*인가를 매만져 주고 있다. 첫눈에도 여간 그것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태가 아니었다. 좋은 취

미다. 인생이란 이렇듯 한 포기의 초목까지도 아끼고 사랑하면서 유유자적할 수 있는 생활을 해야 할 종류의 것인지도 모른다. 나는 무엇에 쫓기듯이 그곳을 빠져나왔다.

학교에서는 동료들에게 또 방 애길 해 보았다. 상급생에게도 점잖지 못한 소릴 해 보았다. 학교가 과한 후에는 차도 안 팔아 주는 다방에 앉아, 아는 친구를 붙들고 구차한 이야길 또 했다.

그리고는 남포동에 와서 장사 간 애들을 기다렸다. 어둑어둑해 서야 애들은 왔다. 시장의 애 엄마는 우리를 기다리다 못해 먼저 들어갔을 것 같다. 곧장 가기로 했다. 남포동서 경남중학 뒤까지 오는 동안 아주 짊짊하게 어두웠다.

철판으로 된 대문을 밀어 보니 안으로 잠겼다.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대문에서 마주 보이는 우리 방이 새까맣다. 아마 애들 엄마는 아직 시장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애들 이 [A]모가 일찌감치 어린것들을 재우느라고 불을 끄고 있는 것이리라. 아내를 기다렸다 같이 들어가기로 하고 나는 애들을 데리고 애 엄마가 돌아오려면 으레 그곳을 거쳐야 하는 개천가로 나와 쭉그리고 앉았다.

들쭉놈이 곁에 와 붙어 앉는다. 큰놈도 와 앉는다. 좀처럼 아내가 돌아오지 않는다. 들쭉놈 남아가 앉은 채 꼬박꼬박 준다. 이렇게 초저녁인데 꼬박꼬박 준다. 열두 살짜리 어린 육체로써 자기 하는 일이 고된가 보다. 나는 그만 검은 하수구 개천으로 고개를 돌리고 만다. 담배를 꺼내 문다. 성냥이 일어서지 않는다. 공중에서 검은 빗방울이 듣기 시작한다.

큰놈 동아가 혼자 일어나 집 쪽으로 간다. 좁만에 뛰어오면서, 어머니도 돌아오고 대문도 열었다고 한다. 큰놈이 문 앞에 가봤더니, 방 안에서 어머니 말소리가 들려 불렀다는 것이다.

방에 들어가 알아보니, 전등은 고장인지 고의인지 저녁부터 [B]안 들어온다는 것이다. 이 택 전등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들어오는 특수선으로, 물론 지금도 다른 방엔 모두 환하게 들어와 있었다. 잠시 우리들은 어둠 속에서 말이 없었다.

애들 이모가 혼잣말처럼 내일은 어느 다리 밑으로라도 나가고 말아야겠다고 한다. 이모의 말이, 여지껏도 그래 왔지만 오늘은 이 집에서 더 어린것들을 못살게 굴더라는 것이다. 이모네 일곱 살짜리 큰놈과 우리의 여섯 살짜리 끝놈이 여짜도 노래를 부른단다가, 변소애라도 가려 복도로 나가면 시끄럽다고 썩 소리를 지르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자기네 일곱 살짜리가 여봐란 듯이 보무당당히 복도를 행진하며,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를 할 때, 이쪽 애들이 따라만 해도 다시 고향소리가 연발되더라는 것이다 그보다도 더 보기에 안된 것은 우리 선아가 역시 계집애는 달라, 동생 애들이 주인한테 꾸지람 듣는 게 보기에 안된 듯, 조금만 애들이 소리를 내도 안타까와하는 모양이 차마 옆에서 볼 수 없더라는 것이다.

애들 이모가 어둠 속에서 소리를 죽여 가며 운다. 내 가슴속도 화끈 불이 붙는 걸 느낀다. 그건 대구서 선아의 고무신 한 짝을 잃었을 때에 느꼈던 분노와는 또 달랐다. 그러나 그들이 여하한 전술을 바꿔가지고 나오더라도 우리가 여기 있는 동안은 참는 수밖에 없다. 그저 그 전술을 최대한 피할 도리를 강구하면서.

- 「곡예사」

- * 서면: 부산에 위치한 지역 이름.
- * 회양목: 회양목과의 상록 활엽 관목. 높이는 7미터 정도이며, 잎은 마주나고 타원형인데 두껍다.

18.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인물들의 다양한 체험을 삽화 형식으로 나열하고 있다.
- ② 사건에 대한 객관적 묘사를 통해 독자의 판단을 유도하고 있다.
- ③ 회상을 통해 과거의 사건과 관련시켜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공간적 배경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상황을 입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간접 화법을 사용하여 인물들의 말과 작중 상황이 서술자의 목소리를 통해 전달되고 있다.

19.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사건 전개에 복선이 된다.
- ② 상황이 변화될 것임을 암시한다.
- ③ 변호사 영감의 비인간적 면모를 강조한다.
- ④ 주인공이 부정하는 삶의 모습을 상징한다.
- ⑤ 상황에 대한 주인공의 인식이 바뀌는 계기가 된다.

20. [A]와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집 밖의 공간을 배회하는 '나'의 무기력함의 원인이 무엇인지 [B]에서 밝혀지고 있다.
- ② [A]에서 사태를 피상적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해결이 더욱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 [B]에서 드러나고 있다.
- ③ [A]에서 불이 꺼진 이유에 대한 '나'의 예상이 틀렸음이 [B]에서 확인됨으로써 비극성이 심화되고 있다.
- ④ [A]의 잠긴 대문과 [B]의 불이 들어오지 않는 전등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⑤ [A]에서 기다렸던 '아내'가 이미 집 안에 있었다는 것을 [B]에서 알려 줌으로써 가난 때문에 가족애의 균열이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2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황순원의 '곡예사'는 전쟁 중에 겪은 작가 자신의 실제 체험을 바탕으로 당시의 비참했던 피란민들의 생활상을 그린 작품이다. '곡예사'는 위태로움을 업으로 삼는 존재인데, 작품 속의 화자는 자신을 포함한 가족 전체를 '곡예사'에 비유하여 절망적인 삶을 표현하고 있다. 특히 거처할 방을 확보해야 하는 '나'의 가족의 모습과 그 방을 비워 달라고 공세를 퍼는 집주인의 모습이 대비됨으로써 피란민의 고통이 절실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이 작품은 전쟁 중 실생활의 일면을 진솔하게 그려냄으로써 전쟁이 물고 온 불행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증언하고 있다.

- ① 1인칭 주인공 시점을 통해 자신이 겪은 일을 직접 서술함으로써 증언의 신뢰감을 높이고 있다.
- ② 시간이 지나면서 집을 비워 달라는 집주인의 공세가 점점 심해지고 그에 따라 '나'의 내적 갈등도 심화되는군.
- ③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라는 노래를 부르며 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전쟁 중임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다.
- ④ 주인집 딸들이 방을 점거하고 방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장면을 제시하여 '나'의 가족의 위태로운 삶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열두 살짜리 어린아이들마저 장사에 나서는 모습을 통해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는 인간의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

[22~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A] 한 줄의 시는커녕
단 한 권의 소설도 읽은 바 없이
그는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며
많은 돈을 벌었고
높은 자리에 올라
이처럼 훌륭한 비석을 남겼다

그리고 어느 유명한 문인이
그를 기리는 묘비명을 여기에 썼다
비록 이 세상이 잿더미가 된다 해도
불의 뜨거움 **뿔뿔이** 건디며
이 묘비는 살아남아
귀중한 사료(史料)가 될 것이니

역사는 **도대체** 무엇을 기록하며
시인은 어디에 무덤을 남길 것이나

- 「묘비명(墓碑銘)」

(나)

상학: 그러니 말이야, 아버지 환갑에 손님을 좀 초대하고도 싶지만 한 달 후엔 내 결혼식이 있으니 같은 손님들을 두 번 청할 수도 없고.....

상범: 그야 그렇지.....

상학: 그러니 암만해도 이번 아버지 환갑은 네가 좀 주동이 돼서 도와 주었으면 좋겠어.

상범: 그렇기도 하군요. 사장님한테 직접 사정 말씀드릴까.....?

상학: 잘 알아서 해 주렴.

상범: 근데 아주머니 될 사람은 어떤 여자예요?

상학: 너도 잘 아는 여자지.

상범: 저도요?

상학: 요 위층에 있는 미스 박 말이야. 가정 주부로서는 그만이기에.....

상범: 아니, 박용자 씨 말입니까?

상학: 그래, 아마 너도 반대는 안 할 게다.

상범: 저요? 아니요..... 아니요.

상학: (팔목시계를 보더니) 이런, 시간에 늦겠다. 그럼 내 2, 3 일 내에 또 연락할게.

상범: 박용자 씨하고는 얘기가 다 됐어요?

상학: 그럼, 인천에도 몇 번 놀러 왔었구. 약혼식은 생략하기로 했어. 결혼식도 간단히 하기로 하구. 그때 같이 영화 구경 간 것이 인연이 돼서..... 그럼, 몸조심해.

(상학이 걸어나간다. 상범은 움직이지를 못한다. 잠시 그대로 서 있다.)

상범: (체념하기에는 너무나 억울하다는 태도로) 이거 결혼 상대자를 빼앗긴 태다가 아버지 환갑 잔치 비용도 내가 주선해야만 하는 팔자입니다. 이젠 할 말이 없습니다. 저의 나이는 서른 한 살입니다. 앞으로 살아 봤자 20년..... 나머지 20년마저 밤낮 손해만 보는 세월일 것이라고 생각하니 앞이 캄캄해집니다. 저는 여태까지의 모든 생활을 제가 아는 상식의 테두리 안에서 해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배우고 믿어 왔던 상식적인 생활은 저에게 손해만 끼쳐 왔습니다. 저는 결국 **상식적인 생활 태도란 늘 손해만 갖고 온다는 새 상식**을 얻었습니다.

[B] 인천에서 근무할 때의 일입니다. 여름에 하도 무더기에 해수욕장에 나갔습니다. 벌거벗은 여자들의 알몸을 밀짚모자 밑으로 감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쪽 바위 밑에 옷을 입은 채 기어들어 가는 젊은 여자를 보았습니다. 물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뜰머리가 자살입니다. 밀짚모자를 내던지고 달려가 그 여자를 끌어냈습니다. 얼굴도 예쁜데 왜 자살을 하려고 했는지, 모래 위에 끌어내서 살렸더니 그 여자는 고맙다는 말 대신에 저의 뺨을 갈겼습니다. — 그러니까 경찰은 저를 파출소로 연행하더군요.

이 사회에선 저의 상식이 통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새 상식을 배우렵니다.** 물에 빠진 놈에겐 돌을 안겨 줘야 되겠습니까. 자리를 양보하느니 발로 걷어차 길을 터야겠습니까. 즉 기존 상식을 거부하는 겁니다. 우선 새 상식을 회사에서 한 번 실험해 보았습니다.

<중략>

사장: 배 과장이 쓰는 돈을 잘 알아두도록 해.

상범: 네, 계산을 해 놓겠습니다.

사장: 그 다방에 있는 여자가 술집 여자인가?

상범: 모르겠습니다. 하기가야.....

사장: 하기가야.....?

상범: 배 과장님이 약주를 참 좋아하십니다. 점심때도 가끔 한 잔씩 하시긴 합니다.

사장: 회사의 돈을 맡고 있는 사람이.....!

상범: 사장님, 저..... 제가 이런 말씀을 올렸다고..... 저는 사장님을 존경하고..... 회사의 발전을 무엇보다도 기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교회에서 사장님의 지도를 받고.....

사장: 알았어. 자네의 심정은 이해할 수 있네. 잘 해 보도록 해.

(사장이 엽총을 들고 들어간다. 잠시 후 배영민이 들어온다.)

영민: 무슨 일 없었나?

상범: 아뇨.

(영민이 자기 주머니에 담배를 찾고 있음을 본 상범이 재빨리 테이블에 있는 담배를 집어 영민에게 주고 라이터를 켜 불을 붙여 준다.)

영민: 사장님은?

상범: 계시는 모양입니다.

영민: 아, 이거 여편네 성화에 못살겠군! 여편네 친구가 갑자기 맹장염에 걸려 입원했는데 오천 원을 좀 빌려 달라는 거야.

상범: 그럼..... 아까 다방에서 전화하신 분이..... 사모님이신가요?

영민: 그래. 여편네들이 자꾸 남편의 직장까지 찾아오면 곤란해. 재수가 없어, 재수가!

[C] 상범: (관객에게) 네, 재수가 없죠. 재수가 없습니다. 그 후 한 달 있다가 경리 과장은 강원도 지사로 발령을 받아 진출했고, 저는 경리 과장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저의 출세가 이렇게 빠른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아는 상식을 버리고 새 상식에 의해 행동한 첫 효과였습니다. 제가 할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사장의 며느리요, 과부요, 또한 비서인 성아미와 박 전무의 관계를 적당히 이용하는 겁니다. 이리하여 모든 가능한 출세의 문을 내 손으로, 내 이 두 발로 짓히고 차서 활짝 여는 겁니다.

- 「국물 있습니다」

22. <보기>에 주목하여 (가)의 시어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수식어는 보통 문장 안에서 생각해도 의미 이해에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는다. 그럼에도 압축적 표현을 주로 사용하는 시에서 수식어를 사용하는 데에는 시적 상황이나 화자의 태도와 관련하여 그럴만한 시인의 의도가 투영되어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시를 감상할 때 작품 속에 나타난 수식어의 쓰임에 관심을 기울이면 좀 더 심화된 감상을 할 수 있다.

- ① ‘한 줄의’와 ‘단 한 권의’는 ‘그’가 시나 소설을 전혀 접하려 하지 않은 인물임을 강조하여 드러내 준다.
- ② ‘많은’과 ‘높은’은 앞부분에서 지적인 ‘그’의 삶의 실상과 대비되면서 ‘그’의 출세가 순리적이지 않음을 예들려 말해 준다.
- ③ ‘훌륭한’은 풍자의 의도가 담긴 반어적 표현으로 ‘비석’이 그다지 지켜세를 만한 것이 못됨을 말해 준다.
- ④ ‘꽃꽂이’는 자신이 처한 시련의 상황과 당당하게 맞서려는 화자의 의지가 강렬함을 드러내 준다.
- ⑤ ‘도대체’는 제 구실을 하지 못하는 ‘역사’에 대한 화자의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강조하여 드러내 준다.

23.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는 대상이 과거에 걸어진 삶을 압축하여 간략하게 표현하였다.
- ② [B]에서는 한 사람의 삶의 태도를 일반화하여 보편적인 것으로 제시하였다.
- ③ [A]의 화자는 대상을 예찬하고 있고, [B]의 화자는 대상을 비판하고 있다.
- ④ [A]에서는 화자가 생각한 가상의 상황, [B]에서는 화자가 겪은 실제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 ⑤ [A]와 [B]의 화자는 모두 비유를 통해 감정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24.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작가는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의 부정적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마련이어서, 작품을 통해 양심의 소리를 좇아가며 부정적인 것에 저항하고자 한다. 「묘비명」과 「국물 있습니다」 역시 작품이 쓰인 당대의 시대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두 작품이 쓰인 6.70년대는 산업사회의 대두와 더불어 배금주의 풍조가 고조되기 시작한 시대였다. 그래서 두 작품은 정신적 가치가 홀대를 받고 물질적 가치가 존중받는 현실과, 그러한 현실을 살아가는 부정적 인물을 형상화한다. 고귀하게 살아가려 하는 사람들은 살기가 어려운 반면, 오직 돈만을 좇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행복한 비정상적인 현실을 비판적으로 조망하고 있는 것이다.

- ① (가)에서 ‘그를 기리는 묘비명’을 쓴 ‘유명한 문인’은 물질적 가치에 굴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군.
- ② (가)의 ‘귀중한 사료’는 실제로 귀중한 것이 아니라 부정적 인물의 삶을 미화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군.
- ③ (가)의 ‘그’는 정신적 가치를 홀대하고 배금주의에 편승한 세속적 존재라고 볼 수 있군.
- ④ (나)에서 ‘사장’이 ‘배 과장’을 지방으로 진출시킨 것은 양심의 소리를 행동으로 실천한 결과라고 할 수 있군.
- ⑤ (나)에서 ‘상범’이 배웠다는 ‘새 상식’은 그에게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가치관을 심어 주었으니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군.

25. (나)에 나타난 ‘상범’의 말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상범’은 의도적으로 말끝을 흐려 ‘사장’의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다.
- ② ‘상범’은 ‘사장’이 못마땅하게 여길 ‘영민’의 단점을 은근히 부각시키고 있다.
- ③ ‘상범’은 ‘상학’의 결혼 상대자가 ‘박용자’임을 알고는 즉각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박용자’ 씨하고는 얘기가 다 됐어요?’라는 ‘상범’의 말에는 일말의 미련이 배어 있다.
- ⑤ ‘상범’은 ‘사장’에게 말할 때 자신의 발언에서 진심이 느껴지도록 최대한 느린 호흡으로 말하고 있다.

26. <보기 1>을 참조할 때, (나)의 제목 ‘국물 있습니다’에 대하여 설명한 <보기 2>의 ㄱ~ㄷ 중 적절한 것을 모두 골라 묶은 것은? [3점]

<보기 1>

‘국물 있습니다’는 ‘돌아오는 뭍이나 이득이 아무 것도 없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관용구 ‘국물도 없다’에 착안하여 붙인 제목이다. 이때 ‘국물’은 ‘죽어라 하고 일해 봤자 국물도 없다.’에서처럼 ‘어떤 일의 대가로 다소나마 생기는 이득이나 부수입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보기 2>

- ㄱ. 속어의 의미를 교묘하게 결합시킨 제목을 통해 작가의 풍자적 의도를 넉넉히 함축하고 있다.
- ㄴ. 타인에 대하여 무관심할 뿐 아니라 인간관계가 단절된 현대 사회의 비정함을 빗대어 표현하였다.
- ㄷ. 선량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오히려 박탈감만 안겨 주는 사회 풍조에 대한 비판적 의도를 반어적으로 표현하였다.
- ㄹ. 어느 순간 출세의 방법에 눈을 떠 비열한 언행을 통해 남을 희생시켜 가며 자신의 이익을 좇는 주인공의 삶에 대한 냉소를 담고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ㄱ, ㄴ, ㄷ
- ⑤ ㄱ, ㄷ, ㄹ

27. [C] 부분의 역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거의 일을 회상하여 관객의 공감을 유발한다.
- ② 등장인물들 간의 갈등이 해소될 기미를 보여 준다.
- ③ 사건의 객관적 묘사로 관객의 상황 판단을 돕는다.
- ④ 이후 전개될 사건 전개의 양상을 짐작하게 해 준다.
- ⑤ 무대 밖의 사건을 전달하여 극의 흐름을 바꾸어 준다.

[28~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남원에 사는 노총각 양생은 어느 날 만복사의 불당에서 아름다운 배필을 중매해 달라는 내기를 걸고 부처님께 저포 놀이를 청해 이긴다. 양생이 불좌 밑에 숨어서 배필이 될 여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릴 때 문득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나 부처님 앞에서 자신의 외로운 신세를 하소연하면서 좋은 배필을 점지해 달라고 기원하였다. 이를 본 양생이 그 여인 앞으로 뛰어나가 회포를 말하고 두 사람은 서로 정을 느껴 하루를 같이 보내게 되었다.

둘이 읍고 한바탕 웃은 다음에 함께 개령동(開寧洞)으로 갔다. 한 곳에 이르자 다복쑥이 들을 덮고 가시나무가 하늘로 치솟은 가운데 집 한 채가 있었는데, 작으면서도 아주 아름다웠다.

그는 여인이 이끄는 대로 따라 들어갔다. 방 안에는 이부자리와 휘장이 잘 정돈되어 있었다. 밥상을 올리는 것도 어젯밤 만복사에 차려 온 것과 같았다. 양생은 그곳에서 사흘을 머물렀는데, 즐거움이 평상시와 같았다.

시녀는 아름다우면서도 교활하지 않았고, 그릇은 깨끗하면서도 무늬가 없었다. 인간세계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여인의 은근한 정에 마음이 끌려, 다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 (중략)

술이 다하여 헤어지게 되자, 여인이 ㉠은그릇 하나를 내어 양생에게 주면서 말하였다.

“내일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위하여 보련사에서 음식을 베풀 것입니다. 당신이 저를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보련사로 가는 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저와 함께 절로 가서 부모님을 뵙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양생이 대답하였다. “그러겠소.”

이튿날 양생은 여인의 말대로 은그릇 하나를 들고 보련사로 가는 길가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말 어떤 귀족 집안에서 딸자식의 대상(大祥)*을 치르려고 수레와 말을 길에 늘어세우고서 보련사로 올라가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길가에 은그릇을 들고 서 있는 양생을 보고는 하인이 주인에게 말하였다.

“아가씨 장례 때 무덤 속에 묻은 그릇을 어떤 사람이 훔쳐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이 말하였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인이 말하였다. “저 서생이 가지고 있는 은그릇을 보고 드린 말씀입니다.”

주인이 마침내 말을 멈추고 양생에게 은그릇을 얻게 된 사연을 물었다. 양생이 전날 여인과 약속한 그대로 대답하였더니, 여인의 부모가 놀라며 의아스럽게 여기다가 한참 뒤에 말하였다.

“내 슬하에 오직 딸자식 하나가 있었는데 왜구의 난리를 만나 싸움판에서 죽었다네. 미처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개령사 곁에 임시로 묻어 두고는 이래저래 미루어 오다가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네. 오늘이 벌써 대상 날이라, 재나 올려 명복을 빌어 줄까 한다네. 자네가 정말 그 약속대로 하려거든, 내 딸자식을 기다리고 있다가 같이 오게나. 놀라지는 말게나.”

귀족은 말을 마치고 먼저 떠났다. 양생은 우두커니 서서 여인이 오기를 기다렸다. 약속하였던 시간이 되자 과연 한 여인이 계집종을 데리고 허리를 간들거리며 오는데, 바로 그 여인이었다. 그들은

서로 기뻐하면서 손을 잡고 절로 향하였다.

여인은 절 문에 들어서자 먼저 부처에게 예를 드리고 곧 흰 휘장 안으로 들어갔다. 여인의 친척과 절의 스님들은 모두 양생이 전하는 말을 믿지 못했고, 여인은 오직 양생에게만 보였다. 그 여인이 양생에게 말하였다.

“함께 저녁이나 드시지요.”

양생이 여인의 부모에게 그 말을 알리자, 여인의 부모가 시험해 보려고 같이 밥을 먹게 하였다. 그랬더니 여인의 얼굴은 보이지 않으면서 수저 놀리는 소리만 들렸는데, 인간이 식사하는 것과 한 가지였다. 그제야 여인의 부모가 놀라 탄식하면서, 양생에게 권하여 휘장 옆에서 같이 잠자게 하였다. 한밤중에 말소리가 낭랑하게 들려서 사람들이 가만히 엿들으려 하자 갑자기 말소리가 끊어졌다.

여인이 양생에게 말하였다.

“이제는 당신께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제 행동이 법도에 벗어난다는 것을 저 스스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시서(詩書)를 읽었으므로 예의에 대해서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시경’에서 말한 건상*과 상서* 두 장의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오랫동안 들뜬 다복쑥 속에 묻혀서 버림 받은 몸이 되고 보니 한번 일어난 정회를 건잡지 못하여 박명

[A] 을 탄식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뜻밖에도 삼세의 인연을 만나게 되었으므로 백 년의 높은 절개를 바쳐 술을 빚고 옷을 기워 평생 지어미의 길을 닦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애달프게도 숙명적인 이별을 어길 수가 없사옵기에 한시 바빠 저승길을 떠나야 합니다. 운우는 양대*에서 개고 오작은 은하에 흩어지매 이제 하직하면 훗날을 기약할 수 없사오니, 헤어짐에 임하여 아득한 정회를 무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여인의 영혼을 전송하자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혼이 문밖을 나가자 소리만 은은하게 들려왔다.

[B] 저승길이 바쁜 고로 괴로운 이별하건마는 바라건대 임이시여 저버리진 마음소서. 애달파라 어머니여! 슬프도다 아버지여! 고운 입 여의는 내 신세를 어이할꼬. 아득한 저승에서 원한만이 맺히리다.

남은 소리가 차츰 가늘어지더니 목메어 우는 소리와 분별할 수 없게 되었다. 여인의 부모는 그제야 그동안 있었던 일이 사실인 것을 알고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양생 또한 여인이 귀신인 것을 알고는 더욱 슬피, 여인의 부모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울었다.

여인의 부모가 양생에게 말하였다.

“㉡은그릇은 자네가 쓰고 싶은 대로 맡기겠네. 또 내 딸자식 몫으로 밭 몇 마지기과 노비 몇 사람이 있으니, 자네는 이것을 신표로 하여 내 딸자식을 잊지 말게나.”

이튿날 양생이 고기와 술을 마련하여 개령동 옛 자취를 찾아갔더니, 과연 시체를 임시로 묻어 둔 곳이 있었다. 양생이 제물을 차려 놓고 슬피 울며 그 앞에서 지전을 불사르고 정식으로 장례를 치러 준 뒤에 제문을 지어 위로하였다.

- 김시습, 「만복사저포기」

* 대상: 사람이 죽은 지 두 돌 만에 지내는 제사.
* 건상: 『시경』 정풍(鄭風)의 시편. 음탕한 여인이 남자를 유혹하는 내용임.

* 상서: 『시경』 용풍(邕風)의 시편. 무례한 사람을 풍자하는 내용임.
 * 양대: 중국 사천성 무산현 동쪽에 있는 양대산을 말한다. 옛이야기에 무산의 선녀가 초나라 양왕을 모신 뒤에 떠나며 “아침에는 구름이 되었다가 저녁에는 비가 되어 아침저녁으로 양대 아래 있습니다.”라고 했다고 함.

2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역순행적 구성을 통해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② 인물의 말과 행동을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③ 서술자는 등장인물의 시선을 통해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④ 등장인물들의 갈등과 대립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⑤ 인물들의 대화를 통해 과거의 사건이 압축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29.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전기 소설(傳奇小說)은 현실적 세계와 초월적 세계가 서로 맞물려 일어나는 사건을 주로 다루는 소설이다. 전기 소설은 현실과 비현실을 넘나들기 때문에 사건 전개에 있어 변화의 폭이 넓으며, 남녀 간의 애정, 사회적 상황, 인간의 본질적 욕망 등 인생에 관한 다양한 문제를 드러낸다. 이러한 전기 소설은 비현실적이지만 이를 통해 작가는 자신만의 개성과 의식을 작품 속에 투영하는 것이다.

- ① 윗글은 현실적 세계의 ‘양생’과 초월적 세계의 ‘여인’의 만남을 다루고 있어.
 ② 윗글의 주요 사건은 ‘보련사’라는 초월적 세계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어.
 ③ ‘개령동’은 현실과 비현실을 넘나드는 공간으로 사건 전개의 변화 폭을 넓혀 주고 있어.
 ④ ‘왜구’들에 의해 여인이 희생되었다는 것을 통해 당대 사회의 현실을 짐작할 수 있어.
 ⑤ 여인이 갖는 ‘사랑’의 욕구를 통해 인간이 지닌 본질적 욕망의 문제를 보여 주고 있어.

30. ㉠과 ㉡의 서사적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 |
|-------------|-----------|
| ㉠ | ㉡ |
| ① 여인의 분신 | 제회를 위한 신표 |
| ② 만남의 매개물 | 신의의 증표 |
| ③ 수고의 대가 | 애정의 증표 |
| ④ 여인의 선물 | 이별의 매개물 |
| ⑤ 신분 상승의 도구 | 부모의 선물 |

31. [A]와 [B]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A]와 [B]에 모두 이별에 대한 운명적인 수용이 나타나 있다.
 ② [A]에는 [B]와 달리 과거에 대한 회고가 나타나 있다.
 ③ [A]에는 [B]와 달리 여인의 이루지 못한 소망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④ [B]에는 [A]와 달리 남은 이에 대한 당부가 나타나 있다.
 ⑤ [B]에는 [A]와 달리 훗날의 만남에 대한 기약이 나타나 있다.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내 님을 그리워하여 우니다니
 산(山) 접동새 난 이숫하요이다
 아니시며 거즈르신달* 아으
 잔월효성(殘月曉星)이 알으시리이다
 님이라도 님은 한테 너져라 아으
 버기더시니 님러시니잇가
 과(過)도 허물도 천만(千萬) 업소이다
 말히 마린신저*
 살웃븐저* 아으
 님이 나를 하마 잊으시니잇가
 아소 님하, 도람 들으샤 괴오소서

- 정서, 「정과정」

- * 아니시며 거즈르신달: 사실이 아니며 거짓인 줄.
 * 말히 마린신저: 못사람들의 참소하는 말입니다.
 * 살웃븐저: 슬프구나.

(나)

늘그막에 산수 구경 늦은 줄 알건마는
 평생 품은 뜻 이루고야 말라 여겨
 병자년 봄에 춘복을 새로 입고
 죽장 망헤로 노계 깊은 골에 행여 마침 찾아오니
 제일 강산이 임자 없이 버려 있네.
 예로부터 은사(隱士), 처사(處士) 많지도 있건마는
 천지가 감춤했다가 나를 주려 남겼도다.
 오래도록 주저하다 석양이 거윈 적에
 저 높은 언덕 올라 사방을 돌아보니
 현무 주작과 좌우 용호도 그린 듯이 갖췄구나.
 산줄기 끝난 곳 바람 가린 남향에
 푸른 덩굴 헤치고 몇 칸의 작은 집을
 배산임수(背山臨水)하여 오류변에 지어 두고,
 가던 용이 머무는 듯 천길 절벽이
 강두에 들렀거늘 초가집 한 두 칸을
 구름 낀 긴 숲 아래 바위 위에 지어내니
 천태만상(千態萬象)이 아마도 기이하다.
 봉우리는 수려하여 부춘산(富春山)이 되었고
 물은 굽이 흘러 칠리탄(七里灘)이 되었거든
 십리의 모래밭은 삼월의 눈이 되었도다.
 이 호산 형승은 견줄 데 전혀 없네.
 소부 허유도 아니어서 어찌 절의(節義) 알까마는
 다행히도 우연히 이 명승지 임자 되어
 청산유수와 명월청풍도 말없이 절로절로,

어지러운 갈매기와 수많은 사슴도 값없이 절로절로,
저익* 갈던 묵은 밭과 엄자룻*의 조대도 값없이 절로절로
산중 온갖 것들 다 절로 내 것 되니
자룻이 돌이요, 저익이 셋이로다.
어즈버, 이 몸이 아마도 괴이하다.
입산 당년에 은군자 되었는가.

<중략>

술동이의 맑은 술을 술잔에 가득 부어
한잔, 또 한잔 취토록 먹은 후에,
도화는 붉은 비 되어 취한 낮에 뿌리는데
남시터 넓은 돌을 높이 베고 누우니
무희씨 때 사람인가. 갈천씨 때 백성인가.
태평성대를 다시 보다가 생각노라.
이 힘이 뉘 힘인가. 성은(聖恩)이 아니신가.
강호에 물러난들 임금 걱정이야 어느 때에 잊을까.
때때로 머리 들어 북극성을 바라보고
남모르는 눈물을 하늘 끝에서 흘리도다.
일생에 품은 뜻을 비읍니다. 하느님이여.
마르고 닳도록 우리 임금 만세를 누리소서.
태평한 세상에 삼대일월(三代日月) 비추소서.
영원무궁토록 전란을 없애소서.
밭 갈고 썸 파서 격양가를 부르께 하소서.
이 몸은 이 강산풍월(江山風月)에 늙을 줄을 모르도다.
- 박인로, 「노계가」

33.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설의적인 표현을 통해 안타까움을 강조하고 있다.
 - ② 색채어를 활용하여 배경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 ③ 특정한 대상을 호명하며 원하는 바를 호소하고 있다.
 - ④ 자문자답의 방식으로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 ⑤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시상의 전환을 이루고 있다.

33.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노계 깊은 골'은 화자가 '평생 품은 뜻'을 이루고자 하는 공간 이군.
 - ② '봄'과 '삼월'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통해 '호산 형승'의 아름다움을 부각하는군.
 - ③ '맑은 술'과 '도화'라는 소재를 활용하여 '태평성대'를 살아가는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는군.
 - ④ '북극성'을 보고 흘리는 '남모르는 눈물'을 통해 '임금 걱정'의 심정을 표상하는군.
 - ⑤ '자룻이 돌', '저익이 셋'이라는 표현에 '은군자'가 되지 못한 아쉬움이 묻어나는군.

34. (가)와 <보기>의 [A]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고려사』 「약지」권 71에는 (가)의 배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정과정’을 지은 정서는 외척(外戚)과 혼인을 맺어 고려 인종의 총애를 받았다. 인종이 죽고 의종이 즉위하면서 정서를 동래로 귀양 보냈는데, 의종은 “오늘 가게 된 것은 조정의 의논에 밀려서이다. 머지않아 소환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지만 결국 소환하지 않았다. 그래서 거문고를 잡고 이 노래를 불렀는데, 가사가 극히 구슬프다. 고려의 문신 이제현이 한시의 형식으로 시를 지어 이 노래의 뜻을 풀이하었다.

[A]	매일같이 님 생각에 옷깃이 젖어	憶君無日不霑衣
	흙사 봄산에 자규새 갈네	政似春山蜀子規
	옳고 그릇됨을 문지를 마오	爲是爲非人莫問
	응당 새벽달과 별만은 알리라	只應殘月曉星知

- ① (가)의 ‘접동새’와 [A]의 ‘자규새’는 화자의 처지와 동일시 되는 자연물이다.
- ② (가)에서는 억울한 심정을 직설적으로, [A]에서는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③ (가)에서는 ‘님’에 대한 애정을 직접적으로, [A]에서는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④ (가)의 화자는 ‘잔월효성에’, [A]의 화자는 ‘새벽달과 별’에 기대어 결백함을 주장하고 있다.
- ⑤ (가)와 [A] 모두에서 화자는 상대방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화법과 작문

[35~37] 다음은 학생들이 실시한 토론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지금부터 '고등학생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해야 하는가'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찬성 측 토론회자부터 발언해 주십시오.

찬성 1: 현재 투표권을 갖는 연령은 만 19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은 민주주의의 주권자로서의 자격을 얻지 못했습니다.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인 국민 주권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고등학생들도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 공동체의 주요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의사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고등학생들은 투표권을 행사할 만큼 민주주의와 선거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등학생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지식 및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선거권 부여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 것은 그동안 소외되어 온 청소년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 의식을 기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 1: 찬성 측 주장 잘 들었습니다. 국민 주권의 원리를 충분히 구현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보장하자는 찬성 측 주장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보장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보통선거 제도는 일정한 연령에 이르지 못한 국민에 대하여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일정한 연령에서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이 국민 주권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문제는 연령 제한의 기준입니다. 기준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것은 너무 과도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선거권 부여 연령을 현행대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찬성 2: 우리도 갓난아기까지 투표권을 보장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 주권의 원리를 충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우리는 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정치 제도와 민주주의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을 갖춘 고등학생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반대 2: 국정 참여 수단으로서의 투표권 행사는 일정한 수준의 정치적인 판단 능력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고등학생들은 아직 미성숙하고 부모나 보호자에게 정치적인 판단을 의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판단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미성숙하고 무책임한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학교 현장을 정치적인 논쟁으로 혼란에 빠뜨리게 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찬성 측과 반대 측의 발언을 모두 잘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두 가지의 쟁점이 도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입니다. 앞으로는 이 쟁점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5. [A]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 ① 논제와 관련된 기본적 정보를 설명하고 있다.
 - ② 논제와 관련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 ③ 논제와 관련된 통념을 반박하여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다.
 - ④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이론과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 ⑤ 찬성 측의 주장이 실현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언급하고 있다.

36. <보기>는 위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이다. 이를 토론에 활용할 수 있는 입장과 방안을 짚은 것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나이, 즉 군대에 갈 수 있는 나이는 만 18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입장	활용 방안
①	찬성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행하는 나이와 권리를 행하는 나이가 형평에 맞지 않다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겠군.
②	찬성	투표권을 행할 수 있는 나이뿐 아니라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도 만 16세로 낮추자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겠군.
③	찬성	국민 주권의 원리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지 못하므로 모든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겠군.
④	반대	고등학생들이 정치적인 결정을 할 정도로 독자적인 판단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겠군.
⑤	반대	고등학생들은 국민으로서 의무를 제대로 행하고 권리를 누릴 만큼 성숙했다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겠군.

37. ㉠에 들어갈 내용을 <보기>에서 찾아 바르게 묶은 것은?

<보기>

- a. 고등학생들은 독자적으로 정치적인 판단과 선택을 할 정도로 성숙한가?
- b. 고등학생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 c. 많은 사람들에게 선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 d. 일정한 연령에서 선거권을 제한해도 되는가?

- ① a, b ② a, c ③ b, c ④ b, d ⑤ c, d

[38~42] (가)는 학교의 '점심 방송'이고, (나)는 이를 바탕으로 학생회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며, (다)는 학생회 학생들이 작성한 건의문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환경 보전반 학생이 사연을 보내 주셨어요. (목소리를 높이며) 우리 학교 학생들 모두가 고민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아서 읽어 드릴게요.

저는 매일 등교하자마자 쓰레기 처리장에서 각 학급에서 배출한 쓰레기를 분리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학교 앞에 음료수를 파는 가게가 생긴 후부터 분리배출되지 않은 일회용 컵이 너무 많아 분리수거 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환경 보전반 **애들이랑** 얘기해 봤는데, **대부분 그만두고 싶대요**. 무슨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나)
학생 1: 오늘 점심 방송 사연 들었어?
학생 2: 아, 환경 보전반 애가 보낸 사연?

학생 3: 나도 듣고 점심시간에 우리 반 **애들이랑** 얘기해 봤는데, 다들 미안해하더라.

[A] 학생 1: 우리가 학생회니까 쓰레기 분리배출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학생 3: 작년에는 캠페인을 했었는데 별 효과가 없었잖아.

학생 1: 캠페인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을 생각해 봐야지.

학생 2: 학생회 차원에서 건의문을 써서 게시하는 건 어때?

학생 3: 어디에?

학생 2: 학교 홈페이지에 해야지.

학생 3: 홈페이지 접속하지 않는 애들이 많잖아. 건의문을 직접

[B]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때?

학생 2: 그래, 그러자.

학생 1: 분리배출되지 않은 일회용 컵이 가득한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교실에 붙여 놓는 건 어때?

학생 3: (고개를 끄덕이며)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 주기 좋겠네.

학생 1: 건의문에는 어떤 내용을 써야 할까?

학생 2: 일단 환경 보전반 학생들을 인터뷰하여 문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보고 그 내용에 대해 쓰자.

학생 1: 그래. 환경 보전반 학생들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도 알게 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도 있어.

학생 3: 환경 보전반 학생들은 쓰레기를 분리하는 활동을 하면서 봉사시간을 부여받잖아. 그 얘기는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

학생 2: 나는 생각이 달라. 작년에 환경 보전반 활동을 했었는데, 냄새도 나고 힘든 일이라 봉사 정신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

학생 1: 맞아. 우리가 환경 보전반 학생들에게 빛을 지고 있지.

학생 3: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그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자.

학생 1: 건의문에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필요도 있어. 일회용 컵을 분리배출해야 하는지 아닌지를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많거든.

학생 2: 응. 그리고 쓰레기 분리배출이 우리들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말하자. 쓰레기 분리배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한 자료도 찾아 제시하고.

학생 1: 그래. 추가로 제안할 거 있지?

학생 3: 일회용 컵을 쓰지 말고 텀블러를 쓰자고 제안해 보자.

학생 1: 그래, 환경을 위해서는 텀블러를 쓰는 게 더 좋을 수 있겠네.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해 **건의문을 써 보자**.

(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4대 학생회입니다.

저희 학생회에서 각 교실에 부착해 놓은 사진을 보셨나요? ㉠일회용 음료 컵이 분리배출되지 않고 쓰레기 봉지에 가득한 사진이 충격적이지요?

여러분께서도 최근 우리 학교의 점심 방송에서 환경 보전반 학생의 하소연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환경 보전반 **학생들과** 이야기해 보니, 매일 등교 후 30분 이상의 시간을 들여 쓰레기를 분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환경 보전반 학생들이 일주일에 2시간 이상 우리 학교 학생들을 위해 봉사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버리는 컵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친구들을 떠올리며 쓰레기 분리배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쓰레기 분리배출은 우리들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환경부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평생 동안 배출하는 쓰레기의 양은 55톤에 달하고, 우리나라에서 배출하는 쓰레기의 1%를 분리하여 재활용하면 약 700억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지구 환경을 위해서도, 국가 경제를 위해서도 쓰레기 분리배출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 잘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 이번 주 금요일에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을 정리한 표를 쓰레기통 옆 벽면에 부착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환경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는 것이니, 텀블러 사용을 습관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환경 보전반 학생들도 행복해질 수 있고 우리 지구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스스로 환경을 위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환경도 보존하고 환경을 위하는 우리의 따뜻한 마음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며, 쓰레기 분리배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월 △일
○○고등학교 학생회

38. (가)~(다)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다)와 달리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의사소통으로, 사적 성격보다 공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군.
 - ② (가)의 ‘대부분 그만두고 싶대요.’, (나)의 ‘어디에?’를 통해 구어적 상황에서 비문법적인 표현을 사용하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군.
 - ③ (나)의 ‘건의문을 써 보자.’와 (다)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를 비교해 보면 구어적 상황에서 조사의 생략이 더 자유롭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가)는 준언어적 표현을 통해, (나)는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언어적 표현을 보완하고 있지만, (다)는 언어적 표현만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가)와 (나)의 ‘애들이랑’, (다)의 ‘학생들과’를 비교해 보면, 구어적 상황과 문어적 상황에서 같은 대상을 서로 다른 말로 지칭할 수 있음을 알 수 있군.

39.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학생 1’은 ‘학생 3’이 자신의 발화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 ② [A]에서 ‘학생 3’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 1’이 제시한 방안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③ [B]에서 ‘학생 2’는 질문의 방식을 통해 ‘학생 3’이 제안한 내용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얻고자 하고 있다.
 - ④ [B]에서 ‘학생 3’은 ‘학생 2’가 제안한 내용이 부적절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⑤ [A], [B]에서 ‘학생 3’은 다수의 반응을 언급하며 ‘학생 1’의 의견에 대해 추가로 생각할 점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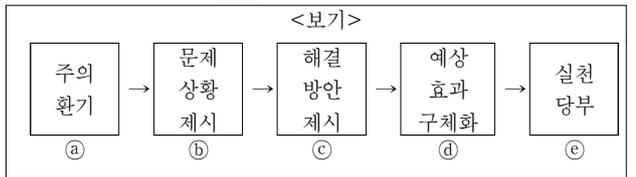
40. <보기>를 참고할 때, ㉠~㉣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개인이나 기관에 문제 상황과 관련된 요구나 제안을 밝히는 글을 건의문이라고 한다. 건의문은 독자를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 상황의 심각성을 알려 독자의 공감을 유도하고 건의 사항의 수용이 문제 해결에 꼭 필요한 일임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신뢰성을 갖춘 설문 조사 자료, 인터뷰 자료, 통계 자료 등을 활용하면 독자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유도하는데 효과적이다. 또한 건의가 받아들여졌을 때의 긍정적 상황에 대해 밝히고 다양한 표현 방식을 통해 인상적으로 글을 마무리하면 주제 전달 효과를 높일 수 있다.

- ① ㉠에서 문제 상황에 대해 예상 독자가 보일 반응에 대해 언급한 것은 필자가 경험하고 있는 실질적인 어려움에 독자가 공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 ② ㉡에서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직접적으로 제시한 것은 문제의 원인에 대해 분석한 구체적 내용을 통해 예상 독자의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 ③ ㉢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사용하여 건의가 받아들여졌을 때 독자가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해 언급한 것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독자가 지닌 통념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 ④ ㉣에서 예상 독자가 수용해야 할 건의 사항의 구체적 사례를 나열한 것은 문제가 되는 현재의 상황과 관련한 예상 독자의 관심과 요구를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 ⑤ ㉤에서 건의 사항이 수용된 이후의 긍정적 상황을 대거적인 표현으로 제시한 것은 표현 방식을 활용하여 설득적 효과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41. <보기>는 (나)를 반영하여 (다)를 쓸 때 적용한 내용 전개 과정이다. <보기>의 ㉠~㉣에 따라 (나)와 (다)를 관련지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 (나)에서 쓰레기 분리배출과 관련된 문제를 화제로 삼았던 것을 반영하여, (다)에서는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에 대해 언급하여 화제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 ② ㉡: (나)에서 환경 보전반 학생들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 것을 반영하여, (다)에서는 환경 보전반 학생들이 실제로 봉사하고 있는 시간이 상당하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 ③ ㉢: (나)에서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학생들이 많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다)에서는 쓰레기 배출 방법에 대한 교육 시간 확보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 ④ ㉣: (나)에서 쓰레기 분리배출이 우리들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한 것을 반영하여, (다)에서는 쓰레기 분리배출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서술하고 있다.
- ⑤ ㉤: (나)에서 쓰레기 분리배출과 관련된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반영하여, (다)에서는 독자가 쓰레기 분리배출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42. (다)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구체적인 수치를 활용하여 자료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 ②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다.
 - ③ 작성자와 독자의 공통적인 경험을 제시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 ④ 시각 매체를 확인한 독자들이 느꼈을 심정을 예상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⑤ 쓰레기 분리배출을 하지 않음으로써 환경 보전반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이 제시되어 있다.

고3

[43~45] (가)는 학생의 메모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쓴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초고 작성을 위한 메모

- 작문 상황: 스터디카페형 독서실의 신설을 학생회가 학교 측에 건의하려고 함.
- 글의 목적: 예상 독자인 학교 관계자들을 설득하는 글
- 주제: 빈 교실을 기존의 독서실이 아닌 스터디카페형 독서실로 만드는 것이 좋다.
- 자료: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나) 글의 초고

우리 학교에서는 올해 1학년의 학급 감축으로 인해 생긴 빈 교실 두 개를 기존 독서실과 똑같이 책상마다 칸막이가 있는 독서실로 만든다고 한다. 그러나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독서실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어 학생회에서는 스터디카페형 독서실의 신설을 학교 당국에 건의한다.

학생회에서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해 본 결과 기존과 같은 독서실을 추가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다. 그 이유는 현재도 독서실을 이용하는 학생이 많지 않아 기존의 독서실만으로도 공간이 충분하다는 것이었다. 이로 볼 때 새로 만들어질 독서실의 활용도가 크게 떨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기존과 똑같은 독서실을 신설하는 것은 학교 시설을 낭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많은 학생들은 빈 교실을 기존과 같은 독서실이 아닌 스터디카페형 독서실로 만들어 주기를 바라고 있다. 학생들은 스터디카페형 독서실의 장점으로 카페 같은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토론도 하고 음료도 마시며 공부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런 특징은 공부에 대한 욕구도 더 자극해 주기 때문에 새로운 공간에 대한 이용 또한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시끄러워 공부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일부 학생들의 우려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스터디카페형 독서실이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고등학교 3년간은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공부에 매진해야 할 중요한 시기이다. 스터디카페형 독서실은 새로운 학습 분위기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43. (가)의 사항이 (나)에 반영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글의 주제를 강화하기 위해 스터디카페가 보급된 대학가의 현황을 조사한 과정과 결과를 제시하였다.
 - ② 글의 목적을 강조하기 위해 기존 독서실의 환경과 운영상의 장단점을 병렬적으로 열거하여 제시하였다.
 - ③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인터뷰를 실시한 기간과 참여 대상의 선정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 ④ 학생회 건의의 필요성을 드러내기 위해 학교 당국이 마련한 빈 교실 이용 방안의 비효율성을 제시하였다.
 - ⑤ 예상 독자를 설득하기 위해 스터디카페형 독서실을 운영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의 보완 방안을 제시하였다.

44. 다음은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자료>

㉠ 2017학년도 1학기 월별 독서실 자율학습 이용 실태

	3월	4월	5월	6월	7월
일일 평균 이용 학생 수(명)	186	162	138	122	108
평균 공석률(%)	7	19	31	39	46

※ 공석률: 전체 독서실 좌석 중 비어 있는 좌석의 비율.

㉡ 독서실 이용 시 불편 사항에 대한 설문 조사

㉢ ○○대 문헌정보학과 교수의 인터뷰

스터디카페형 독서실은 만남과 대화의 대표적인 공간인 카페의 성격과 독서실의 성격을 혼합한 새로운 개념의 독서실입니다. 폐쇄적인 느낌의 독서실은 기피하고 개방적인 독서실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때에 안정맞춤인 열린 공간이라 할 수 있죠. 특히 조별 과제나 토론, 토의 학습이 많은 요즘의 수업 환경에서는 친구들과 함께 대화하며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스터디카페형 독서실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공간에 대한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학생들 스스로가 정숙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① ㉠을 활용해, 기존 독서실만으로도 공간이 충분하므로 기존 형태의 독서실을 추가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해야겠어.
- ② ㉡를 활용해, 기존 형태의 독서실 신설을 반대하는 이유로 기존의 독서실 분위기가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점도 추가해야겠어.
- ③ ㉡를 활용해, 스터디카페형 독서실이 요즘 학생들이 선호하는 열린 공간의 특성이라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더욱 부각시켜야겠어.
- ④ ㉡와 ㉢를 활용해, 스터디카페형 독서실을 만드는 것이 기존 독서실을 이용하는 학생 수를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추가해야겠어.
- ⑤ ㉡와 ㉢를 활용해, 스터디카페형 독서실 신설이 친구들과 공동으로 학습할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공부에 대한 의욕을 높여 준다는 주장을 뒷받침해야겠어.

45. <보기>는 선배의 조언을 듣고 (나)의 마지막 문단을 수정한 내용이다. 선배가 조언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스터디카페형 독서실은 새로운 학습 분위기를 통해 학생들에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학교에 스터디카페형 독서실이 신설된다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공동 학습이나 토의·토론이 활발해질 뿐만 아니라 학생 개인의 학습 욕구 또한 자극하여 학교의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① 고등학교 시기의 중요성은 삭제하고, 스터디카페형 독서실 신설에 대한 학생들의 열망을 추가하는 것이 좋겠어.
- ② 고등학교 시기의 중요성은 삭제하고, 스터디카페형 독서실의 신설이 가져올 기대 효과를 추가하는 것이 좋겠어.
- ③ 고등학교 시기의 중요성은 삭제하고, 스터디카페형 독서실의 신설을 위한 학생들의 노력을 추가하는 것이 좋겠어.
- ④ 스터디카페형 독서실의 의의는 삭제하고, 스터디카페형 독서실의 신설이 가져올 기대 효과를 추가하는 것이 좋겠어.
- ⑤ 스터디카페형 독서실의 의의는 삭제하고, 스터디카페형 독서실의 신설을 위한 학생들의 노력을 추가하는 것이 좋겠어.

언어와 매체

[35~36] <대화1>과 <대화2>는 주격 조사의 활용에 관한 학생의 탐구 활동이고 <자료>는 학생들이 수집한 학술 자료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대화1>

학생 1: '철수가 웃는다', '꽃이 피었다'에서 알 수 있듯이 현대 국어에서는 주격 조사로 '가'와 '이'를 사용하고 있잖아. 하지만 중세 국어에서는 '가'가 쓰이지 않았더라.

학생 2: 맞아. 중세 국어에는 주격 조사 '가'가 쓰이지 않았지. 대신 주격 조사 '이'가 환경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실현되었다고 해.

학생 1: 그래? 어떤 형태로 실현되었는지 좀 자세히 찾아볼까?

<자료>

중세 국어 주격 조사에는 세 가지 이형태가 있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나라 ㉠말쓰미 中屠國語에 달아..... 이런 전츠로 어린 ㉡百百姓 션이 니르고져 홀 ㉢배 이셔도..... ㉣내 이룰 爲嬴하야 어엿비 너겨.....

<훈민정음 언해본>

[현대어 풀이]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내가 이것을 가 없게 생각하여.....

여기에서 ㉠은 '말씀+이'를 이어 적기 한 것으로 주격 조사로 모음 '이'가 쓰였다는 것을 보여 준다. ㉡ 역시 '백성+이'의 형태로 모음 '이'가 주격 조사로 쓰인 경우이다. 이처럼 자음의 뒤에는 주격 조사로 모음 '이'가 쓰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돌[石]처럼 'ㅎ' 발음을 가지고 있어 주격 조사 '이'와 결합할 때 '돌히'라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처럼 'ㅎ' 발음을 가진 체언으로는 '하늘', '내[川]' 등이 있다.

㉢은 '바+이'의 형태로, '이'를 제외한 단모음이나 반모음 'ㅣ'로 끝나지 않는 이중 모음 뒤에는 반모음 'ㅣ'의 형태인 주격 조사가 따라 온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도 '나+ㅣ'의 형태로 마찬가지로의 경우이다. 이런 형태의 조사가 고유어 뒤에 쓰일 경우에는 '배'나 '내'처럼 쓰고 그대로 발음하였으며 한자 뒤에 쓰일 경우에는 '始祖(시조)+ㅣ'로 쓰고 [시죄](시조가)라고 발음하곤 했다.

중세 국어의 주격 조사로는 이 외에도 한 가지 형태가 더 있다. 그것은 주격 조사가 생략되는 형태로, '이'나 반모음 'ㅣ'로 끝난 이중 모음 뒤에 사용된다. 예를 들면 '불휘 기픈 남근(뿌리가 깊은 나무는)'에서 '불휘(뿌리가)'는 '불휘+∅(주격 조사의 생략)'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대화2>

학생 1: 자료를 보니 중세 국어의 주격 조사는 세 가지 형태로 정리할 수 있겠구나.

학생 2: 맞아. 주격 조사를 붙일 때에는 앞말이 자음으로 끝났는지 모음으로 끝났는지, 모음으로 끝났다면 반모음 'ㅣ'로 끝나는 이중 모음이나 단모음 '이'로 끝났는지를 살펴봐야 해.

학생 1: 그렇지. 그런데 이중 모음으로 끝난 경우에는 반모음

'ㅣ'로 시작하는 이중 모음이 아니라 반모음 'ㅣ'로 끝나는 이중 모음이라는 것에 주의해야겠네.

35. 위 탐구 활동과 자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의 주격 조사 '가'가 올 자리에 'ㅣ' 형태의 주격 조사가 쓰이거나 주격 조사를 생략했겐.
- ② 현대 국어의 '소[牛]가'는 '소'의 중세 국어 '쇼' 뒤에 반모음 'ㅣ' 형태인 주격 조사가 붙은 '쇠'의 형태로 쓰였겐.
- ③ 중세 국어 '내 이룰 爲嬴하야'의 '내'와 현대 국어 '이것은 내 책이다.'의 '내'에서는 동일한 형태의 주격 조사를 사용하고 있겐.
- ④ 중세 국어에서 주격 조사를 생략하고 할 때 앞말의 환경에 어울리는 것을 선택하려면 앞말의 끝이 자음인지 모음인지만 따져서는 안 되겐.
- ⑤ 중세 국어에서 '불휘+∅'의 형태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현대 국어에서는 '기'가 단모음인데 중세 국어에서는 '기'를 단모음으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겐.

36. 위 탐구 활동의 자료를 참고할 때, <보기>의 ㉠~㉣에 들어갈 형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 중세 국어 자료
- 용을 지스니 [㉠] 열히러니
(용을 지으니 머리가 열이러니)
- [㉡] 석 돌룰 니어시니
(봉화(烽火)가 석 달을 이어지니)
- 일본 어르물 [㉢] 구티시니
(넓은 어름을 하늘이 굽히시니)

	㉠	㉡	㉢
①	머리	烽火ㅣ	하늘히
②	머리	烽火ㅣ	하늘이
③	머리	烽火이	하늘히
④	머리ㅣ	烽火이	하늘
⑤	머리ㅣ	烽火ㅣ	하늘이

37. <보기>를 통해 '부사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ㄱ. 봄바람이 몹시 훈훈하다.
- ㄴ. 길에서 참 귀여운 아이를 보았다.
- ㄷ. 제발 시험에 합격했으면 좋겠다.
- ㄹ. 승례문을 지을 소나무가 전국에서 모인다.
- ㅁ. 산 오징어가 상자에 실린 채/채로 경매된다.

- ① ㄱ을 보니 부사어는 용언을 수식하는군.
- ② ㄴ을 보니 부사어가 관형어처럼 명사를 수식할 수도 있겠군.
- ③ ㄷ을 보니 부사어는 하나의 성분이 아니라 문장 전체를 수식하기도 하는군.
- ④ ㄹ을 보니 체언에 부사격 조사가 결합하여 부사어가 되기도 하는군.
- ⑤ ㅁ을 보니 의존 명사에 조사가 결합하여 부사어가 되는 경우에는 조사가 생략될 수도 있겠군.

38.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의 밑줄 친 용언의 활용 양상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1>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이나 어미의 형태가 바뀌는 것을 불규칙 활용이라고 한다. 불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은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어간의 형태만 바뀌는 경우>
 낫다(기본형): 나아[← 낫-(어간)+ -아(어미)]

<어미의 형태만 바뀌는 경우>
 하다(기본형): 하여[← 하-(어간)+ -어(어미)]

<어간과 어미의 형태 모두 바뀌는 경우>
 빨갳다(기본형): 빨개[← 빨강-(어간)+-아(어미)]

<보기 2>

ㄱ. 영수가 집합 장소를 물어 대답해 줬다.
 ㄴ. 꿈에 그리던 새 집을 지어 무척 좋았다.
 ㄷ. 어머니, 우진이가 스스로 밥을 푼 갓입니다.
 ㄹ. 비 온 뒤라서 앞산이 한결 더 푸르러 보인다.
 ㅁ. 내 남동생은 얼굴이 까매 무척 건강해 보인다.

- ① ㄱ의 '물어'는 기본형이 '묻다'이므로 어간의 형태만 바뀐 경우이다.
- ② ㄴ의 '지어'는 기본형이 '짓다'이므로 어간의 형태만 바뀐 경우이다.
- ③ ㄷ의 '푼'는 기본형이 '푸다'이므로 어미의 형태만 바뀐 경우이다.
- ④ ㄹ의 '푸르러'는 기본형이 '푸르다'이므로 어미의 형태만 바뀐 경우이다.
- ⑤ ㅁ의 '까매'는 기본형이 '까맣다'이므로 어간과 어미의 형태 모두 바뀐 경우이다.

39. <보기 1>에는 모두 'ㄴ'첨가가 일어나는 단어들 이 제시되어 있다. <보기 2>를 참고하여 <보기 1>의 단어들에서 나타나는 음운 변동을 언급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직행열차[지캐널차], 홀이불[혼니불], 내복약[내:봉낙], 콩엿[콩년], 색연필[생년필]

<보기 2>

○ 음절의 끝소리 규칙: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이외의 자음이 음절 끝에 오면 이 일곱 자음 중의 하나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 비음화: 비음이 아닌 자음이 비음의 영향을 받아 비음 'ㄴ, ㅁ, ㅇ'으로 바뀌는 현상

○ 유음화: 'ㄴ'이 앞이나 뒤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으로 'ㄹ'로 바뀌는 현상

○ 거센소리되기: 'ㄱ, ㄷ, ㅂ, ㅈ'이 'ㅎ'과 만나 거센소리인 'ㅋ, ㅌ, ㅊ, ㅌ'이 되는 현상

○ 'ㄴ'첨가: 선행 요소가 자음으로 끝나고 후행 요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ㅛ'로 시작할 때 'ㄴ'이 새로 생기는 현상

- ① '직행열차 → [지캐널차]'의 변동 과정은 거센소리되기과 'ㄴ'첨가를 포함한다.
- ② '홀이불 → [혼니불]'의 변동 과정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와 'ㄴ'첨가를 포함한다.
- ③ '내복약 → [내:봉낙]'의 변동 과정은 유음화와 'ㄴ'첨가를 포함한다.
- ④ '콩엿 → [콩년]'의 변동 과정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ㄴ'첨가를 포함한다.
- ⑤ '색연필 → [생년필]'의 변동 과정은 비음화와 'ㄴ'첨가를 포함한다.

[40~43] 다음은 학생이 과제 수행을 위해 인터넷에서 열람한 지역 신문의 웹 페이지 화면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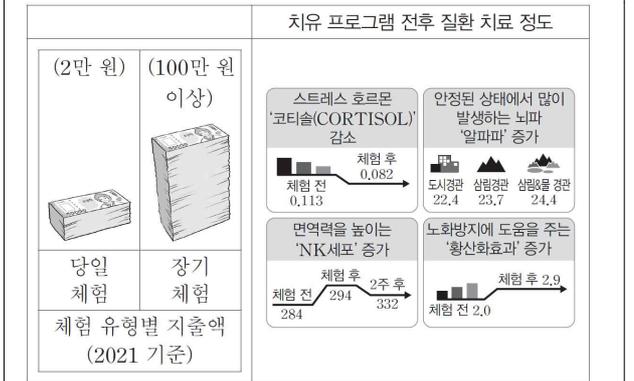
○○군민일보

지친 현대인의 '녹색 처방전' 치유농업!

①농촌에서 몸과 마음의 건강 되찾아요.

②현대 사회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하여 점점 삭막해지는 사회적 현실에서 ③농업·농촌을 수단으로 한 치유농업이 최근 각광받고 있다. 치유농업은 농촌의 자원을 이용해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해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농촌의 경제적 부가 가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5일 ○○군에서는 국회에서 치유농업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것을 계기로 치유농업을 본격적으로 사업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군의 여러 농장과 연계해 작물을 돌보고, 건강식도 만들며, 들레길도 걷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도시인들을 유치해 건강에 도움을 주면서 농가에도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군은 그동안 일일 체험 유치에 집중해 왔으나 일회성 프로그램이 지역 경제에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장기 치유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②이런 사업을 둘러싸고 우려되는 바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 지역 주민들은 이를 반기는 분위기다. 지역 경제 전문가 이○○ 박사는 일회적인 농촌 체험보다는 도시인들이 농촌에 체류하면서 건강도 돌보는 한편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것이라며 ③"지역 특산물 홍보나 지역의 명승지 관광, 지역 축제와 연계하면 시너지 효과로 인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 10. 02. 07:53:01 최초 작성

교3

2021. 10. 03. 09:21:10 수정

○○군민일보 김◇◇ 기자

♣좋아요(213) ♣싫어요(3) SNS에 공유 📄스크랩

관련 기사(아래를 눌러 바로 가기)

- 귀농인의 득템 ‘치유농업’...살림도 늘리고 힐링도 귀촌, 귀농의 이유에 치유가 많은 이유를 차지하기도
- ◇◇시, 건강 향상 돕는 치유농업 체계적 육성 치유농장 2025년까지 5곳으로 늘리고 시민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강화

[댓글]

- ↳ 민들레: 할아버지가 △△마을에 다녀오셨는데요. 너무 좋으시네요.
- ↳ 푸른 솔: △△마을에서는 과일 따기, 전통주 빚기도 한대요.
- ↳ 민들레: 맞습니다. △△마을 홈페이지에 프로그램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40. 위 화면을 통해 매체의 특성을 이해한 학생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기사를 누리 소통망에 공유하여 정보의 신뢰도를 검증할 수 있겠군.
- ② 정보의 생산자나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들의 선호도를 확인할 수 있겠군.
- ③ 문자, 사진 등 복합 양식으로 구성되어 수용자의 정보 선택이 자유롭겠군.
- ④ 기사와 연관된 다른 기사를 열람할 수 있으니 정보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겠군.
- ⑤ 기사의 최초 작성 시간과 수정 시간이 다르니, 수용자의 기사 열람 시간도 확인할 수 있겠군.

41. <보기>를 참고할 때, 기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기사는 기사를 작성할 때 기사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한다. 따라서 독자는 내용을 배치하는 방식에 주목하거나 이미지나 기호 등 시각 자료가 가지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기사를 읽어야 한다.

- ① 치유농업에 대해 생소할 수 있으니 기사 앞부분에 개념을 제시해 독자들이 기사를 이해하는 데 용이하도록 했군.
- ② 치유농업이 각광을 받고 있는 사회적 배경을 기사 맨 앞에 밝혀서 기사 내용에 대한 독자들의 흥미를 돋우도록 했군.
- ③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다른 군에서 치유농업이 성공했던 사례만을 선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군.
- ④ 치유농업의 경제적 효과를 위해 ○○군이 일일 체험 유치보다는 장기 치유 체험 프로그램을 계획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미지로 강조하고 있군.
- ⑤ 치유 프로그램이 건강상의 도움과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치유 프로그램 전후를 비교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화살표 모양의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군.

42. 다음은 학생이 과제 수행을 위해 작성한 메모이다. 메모를 반영한 영상 제작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수행 과제: ○○군 소식을 영상으로 제작하기
- 바탕 자료: 지친 현대인의 ‘녹색 처방전’ 치유농업! 인터넷 기사와 댓글
- 영상 내용: ○○군에서 시행할 치유농업 프로그램 소개
 - 첫째 장면(#1): 기사와 제목을 활용한 영상 제목으로 시작
 - 둘째 장면(#2): 치유농업에 참여하기 전후의 상황을 시·청각적으로 대비시켜 표현
 - 셋째 장면(#3): ○○군의 지역 관광지나 축제, 지역 특산물을 통한 기대 효과를 한 화면에 제시
 - 넷째 장면(#4): ○○군의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장 대표들의 대책 회의 모습을 자막과 함께 그림으로 그려 제시
 - 다섯째 장면(#5): 기사와 댓글을 참고해서 치유농업 프로그램 활동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 연속적으로 제시

영상 제작 계획	
장면 스케치	장면 구성
① 지친 현대인의 '녹색 처방전' 치유농업! 	#1 농작물을 기르는 사람들의 모습 위에 제목이 나타나도록 도입 장면을 구성
② 어두운 음악 → 경쾌하고 밝은 음악 	#2 어둡고 침울한 분위기의 음악으로 도시를 나타냈다가, 밝고 경쾌한 음악으로 바뀌면서 활력 있는 농촌 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전환
③  ○○호수 2km ○○호수 축제 10월 10일 ~10월 15일 - 지역 경제의 활성화 -	#3 관광지와 지역 축제, 지역 특산물과의 연계로 기대되는 효과를 자막으로 구성
④  - 치유농업 대책 회의 -	#4 치유농업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군내의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띤 토론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도록 함.
⑤  눈발 물 주기 → 산길 산책하기 → 과일 따기	#5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의 사례를 제시하는데, 앞의 그림이 사라지면서 뒤의 그림이 등장하도록 함.

4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친근한 비격식체를 활용하여 글의 화제가 드러나는 부제를 제시하고 있다.
 - ② ㉡: 부사격 조사와 연결 어미 등을 사용하여 현실이 삭막해지는 이유로 치열한 경쟁을 제시하고 있다.
 - ③ ㉢: 보조 용언을 사용하여 치유농업에 관한 관심과 호응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임을 나타내고 있다.
 - ④ ㉣: 피동 표현을 활용하여 치유농업에 대해 걱정하는 시각이 사회 도처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 ⑤ ㉣: 인용 표현을 활용하여 치유농업 사업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44~45] (가)는 인터넷 뉴스이고, (나)는 텔레비전 방송 대담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자원 절약·환경 보호, 식품 ‘소비기한제’ 도입

지난달 23일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어 식품 유통기한 제도가 내년 말까지만 시행되고 ㉡20XX년 1월부터 ‘소비기한제’로 대체되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시된다.

현재의 유통기한은 기업이 소비자에게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을 표시한 날짜로, 식품의 품질 변화 시점을 기준으로 60~70% 앞선 시점으로 설정된다. 반면에 소비기한은 식품에 표시된 보관 조건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소비자가 식품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고 보는 최종 날짜로, 품질 변화 시점의 80~90% 앞선 시점으로 설정된다.

소비기한제는 식품의 제조 및 냉장 보관 등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유통기한이 경과하여도 섭취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현실을 반영한 정책으로, 식품 폐기물을 줄여 경제적, 환경적으로 많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실제로 외국에서도 많은 나라가 소비기한제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별 소비기한 및 유통기한 시행 현황>

국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중국	EU
소비기한	○	○	○	○	○	○	○
유통기한	○	×	×	×	×	×	×

관련 기관에 의하면 냉장 보관을 잘할 경우 계란은 유통기한 경과 후 25일, 식빵은 20일까지 섭취할 수 있는데 관련 기업과 정부 부처에서는 소비기한제 도입에 따른 세부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식품별 유통기한과 추정 소비기한>

식품	우유	치즈	두부	식용유	고추장	통조림
유통기한	14일	6개월	14일	2년	18개월	5년
추정 소비기한 (유통기한 경과 후)	+45일	+70일	+90일	+5년	+2년	+10년

이○○ 기자

[관련 뉴스]

▷ 식품 소비기한제 “낭비 줄여” vs “안전 우려”
▷ 2023년 소비기한제 도입 - 혼란 우려

[댓글 23개]

**** 2021. 10. 12. 22:37

10년 된 통조림을 먹으라구요. 소비기한제 반대합니다.

[답글 4] 좋아요 21 싫어요 3

(나)

진행자: 식품 소비기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어 내후년부터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시됩니다. 오늘은 이 제도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 또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식품 정책을 연구하고 계신 송○○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송 박사: 네 안녕하세요.

진행자: 박사님, 유통기한제 대신 소비기한제가 도입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송 박사: 가정에서 유통기한이 지나면 대개 식품을 폐기하지 않습니다.

진행자: 네 맞아요. 저도 그러거든요.

송 박사: 마찬가지로 기업에서도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매장에서 반품을 통해 폐기하고 있습니다. 폐기된 식품은 그대로 음식물 쓰레기가 되는데 그로 인한 자원의 낭비와 환경 오염이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비기한제가 도입되면 보관기간이 늘어나게 되어 폐기되는 식품이 줄게 되므로 ㉣이런 문제가 적지 않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네(고개를 끄덕이며) 긍정적인 효과가 매우 크군요. 하지만 소비기한제 도입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는 시청자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송 박사: 네 맞습니다.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걱정들이 많으시겠죠. 시청자분들의 그런 걱정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무래도 식품의 보관 기간이 길어지면 신선도가 떨어지거나 변질 가능성이 있어 먹거리 안전을 위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냉장식품 등과 같이 변질 우려가 큰 식품에 대해서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병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4.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보의 생산과 수용	(가)는 정보의 수용자가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①
정보의 성격	(가)는 소비기한제 도입과 추정 소비기한이라는 사실 위주의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② (나)는 소비기한제 도입의 효과와 문제점을 의견 위주로 구성하여 전달하고 있다. ③ (나)는 시청자의 기대나 요구를 반영한 내용으로 정보 수용자를 고려하고 있다. ④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의 특성	(나)는 정보 수용자들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⑤

45. <보기>를 바탕으로 ㉠ ~ ㉤에 대하여 수용자가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매체 자료를 수용할 때는 제시된 정보의 목적이나 의도가 무엇인지, 정보의 출처나 생산자를 고려하여 신뢰할 만한 내용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누락된 정보가 없는지, 정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합리적이고 타당한지도 살펴야 한다. 아울러 정보에 나타난 관점이나 입장이 공정한지도 살펴는 등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 ① ㉠: 소비기한제의 장점만을 내세우고 있어. 문제점도 같이 지적했다더라면 더 공정하지 않을까.
- ② ㉡: 소비기한 표시가 유예되는 품목도 있다는데 그런 정보도 안내해 주었다더라면 좋았을 텐데.
- ③ ㉢: 예상보다 상품의 소비기한이 기네. 과연 믿을 만한 내용인지 정보의 출처를 알아보아야겠어.
- ④ ㉣: 문제가 해소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 대신 왜 해소되는지 그 근거를 밝혀야 하지 않을까.
- ⑤ ㉤: 소비기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알아본다는 대답의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의견이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정답 및 해설

1	③	2	③	3	②	4	④	5	①
6	②	7	①	8	②	9	②	10	③
11	⑤	12	②	13	③	14	③	15	⑤
16	②	17	⑤	18	⑤	19	③	20	③
21	⑤	22	④	23	①	24	④	25	③
26	⑤	27	④	28	⑤	29	②	30	②
31	⑤	32	③	33	⑤	34	⑤	수고하셨습니다.	

[1~3] 독서-독서
[지문 분석]

나를 흔히 꿰뚫어 보는 듯한 책을 만날 때가 있다. **이런 책(나를 흔히 꿰뚫어 보는 듯한 책)**은 다른 책보다 더 많은 유익을 준다. 이때 책의 내용은 더 이상 일반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나를 향한 아주 적절하고 특별한 조언(나를 흔히 꿰뚫어 보는 듯한 책의 내용)**이 된다. 저자가 나와 비슷한 성향이거나, 같은 비전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도 많은 유익을 준다. 수많은 책들 중에 **유난히 많은 공감과 깨달음을 주는 책(해당 독자만의 특별한 책)**은 당신만의 특별한 책이다. 그 책을 읽고 또 읽어라. 책의 모든 내용을 이해하고 받아들여라. 책의 견해를 빌려 삶의 문제를 해결하라. 자신의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문제를 초월하여 전진하라.

▶1문단: '나를 흔히 꿰뚫어 보는 듯한 책'을 읽는 방법
변화와 영적 성숙을 위한 책 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권의 책을 완전히 소화하듯 읽는 것(변화와 영적 성숙을 위한 책 읽기의 방법)**이다. 이것은 **분석적 읽기(=한 권의 책을 완전히 소화하듯 읽는 것)**를 통해 한 권을 완전히 독파하라는 말이다. 인격 성숙을 위한 목적이라면 **절대로 빨리 읽어서는 안 된다.(변화와 영적 성숙을 위한 책 읽기의 유의점)** 책 한 장 한 장에서 말하고 있는 저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동시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읽어야 한다. 저자의 지혜를 깊이 사모하게 되면 자신의 사상으로 소화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그리고 실천적인 적용을 해야 한다.

▶2문단: 변화와 영적 성숙을 위한 책 읽기의 방법
조선 후기 대학자인 다산 정약용의 독서론도 이와 다르지 않다. "책을 읽는 데는 방법이 있다. 세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책은 구름 가듯, 물 흐르듯 읽어도 되지만 만일 백성이나 나라에 도움이 되는 책이라면 **반드시 문단마다 이해하고 구절마다 탐구해 가면서 읽어야 하며 한낱의 줄음이나 쫓는 태도로 읽어서는 안 된다.(백성이나 나라에 도움이 되는 책을 읽을 때의 방법)**"

▶3문단: 다산 정약용의 독서론
자신의 인격 성숙에 도움을 주는 책들은 이처럼 완전히 독파해야 한다. 전문 지식을 쌓아 가기 위해서는 **다독과 속독(전문 지식을 쌓아 가기 위한 책을 읽는 방법)**이 필요하고, 인격 성숙을 위해서는 **정독과 재독(인격 성숙을 위한 책을 읽는 방법)**이 필요하다. 전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다독과 속독을 할 때의 전체 조건도 **정독(가장 기본이 되는 독서법)**을 통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분석하여 읽는 정독은 변화와 성숙을 위한 책 읽기에서나 전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책 읽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독서법이다.

▶4문단: 모든 책 읽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독서 방법인 정독

[지문 정리]

- 주제: 변화와 영적 성숙을 위한 책 읽기의 방법
- 해제: 이 글은 책 읽기를 통한 변화와 성숙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담고 있다. 특히, 분석적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독서를 단순한 정보 습득이 아닌 자기 성찰과 변화를 위한 도구로 제시하고 있다. 동시에 독자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다산 정약용의 독서론을 인용하여 좋은 책은 반드시 정독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1. <답> ③

<정답 풀이>

이 글에서 '저자의 지혜를 깊이 사모하게 되면 자신의 사상으로 소화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그리고 실천적인 적용을 해야 한다.'라고 언급한 부분은 독서를 통해 얻은 지혜를 실천하는 것에 초점을 둔 것이다. 독서를 통해 실천하여 적용하는 힘을 기를 수 있다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

<오답 풀이>

- ① '이때 책의 내용은 더 이상 일반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나를 향한 아주 적절하고 특별한 조언이 된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② '자신의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문제를 초월하여 전진 하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④ '전문 지식을 쌓아 가기 위해서는 다독과 속독이 필요하고, 인격 성숙을 위해서는 정독과 재독이 필요하다. 전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다독과 속독을 할 때의 전체 조건도 정독을 통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⑤ '책의 견해를 빌려 삶의 문제를 해결하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답> ③

<정답 풀이>

이 글의 필자는 '책 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권의 책을 완전히 소화하듯 읽는 것이다. 이것은 분석적 읽기를 통해 한 권을 완전히 독파하라는 말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보기>의 필자는 '책을 읽을 때는 반드시 한 가지 책을 습득하여 그 뜻을 모두 알아서 완전히 통달하고 의문이 없게 된 다음에야 다른 책을 읽을 것이요.'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두 필자는 공통적으로 책에 담긴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려는 독서 방법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이 글에서는 '저자가 나와 비슷한 성향이거나, 같은 비전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도 많은 유익을 준다.'는 부분을 통해 비슷한 성향의 저자가 쓴 책이 좋은 책이라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으나, <보기>에는 그러한 언급이 없다.
- ② 이 글에는 책을 다양하게 읽어야 한다는 내용은 드러나지 않으며, <보기>에서는 '많은 책을 읽어서 많이 얻기를 탐내어 부산하게 이것저것 읽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오히려 다양한 책읽기를 부정적으로 본다고 볼 수 있다.
- ④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책을 이해했을 때의 기쁨에 대한 내용은 이 글과 <보기>에 드러나지 않는다.
- ⑤ 이 글에서는 '전문 지식을 쌓아 가기 위해서는 다독과 속독이 필요하고, 인격 성숙을 위해서는 정독과 재독이 필요하다.'는 부분

을 통해 책을 읽는 목적에 따라 책 읽기가 달라질 수 있음을 밝히고 있지만, <보기>에는 그러한 언급이 없다.

3. <답> ②
<정답 풀이>

책을 읽을 때, 전문 지식을 쌓아 가기 위해서는 다독과 속독이 필요하고, 인격 성숙을 위해서는 정독과 재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 ① 분석하여 읽는 정독은 변화와 성숙을 위한 책 읽기에서나 전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책 읽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독서법이라는 말을 마지막에 하고 있다.
- ③ 1문단에서 '수많은 책들 중에 유난히 많은 공감과 깨달음을 주는 책은 당신만의 특별한 책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
- ④ 2문단에서 '인격 성숙을 위한 목적이라면 절대로 빨리 읽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
- ⑤ 2문단에 제시된 '변화와 영적 성숙을 위한 책 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권의 책을 완전히 소화하듯 읽는 것이다. 이것은 분석적 읽기를 통해 한 권을 완전히 독파하라는 말이다.'라는 부분에서 알 수 있다.

[4~7] 독서-사회
[지문 분석]

정보 비대칭은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상대방이 가지지 못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정보 비대칭의 개념)**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예시의 방법 사용), 피고용인은 고용주보다 자기가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를 잘 안다. 중고차 판매상은 고객보다 자동차의 상태를 더 잘 안다. **전자(피고용인)**의 사례는 감춰진 행동에 대한 정보와 관련된 것이고, **후자(중고차 판매상)**의 사례는 감춰진 속성에 대한 정보와 관련된 것이다. 이때 정보를 가지고 있는 쪽은 자신에게 유리한 거래 조건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초과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반대로 정보를 가지지 못한 쪽은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정보를 가지지 못한 쪽에게 손해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인해 손해를 볼 수 있다.

▶ 1문단: 정보 비대칭의 개념과 사례

도덕적 해이 현상은 **피고용인이 고용주를 위해 어떤 임무를 수행할 때(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하는 상황)** 발생하는 문제이다. 고용주가 피고용인의 행동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을 때 피고용인은 고용주가 원하는 수준만큼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도덕적 해이는 **피고용인의 부적절한 행위에 따른 위험(도덕적 해이의 개념)**을 가리키는데, 고용주는 **이(도덕적 해이)**를 피하기 위해 피고용인이 성실하게 일하도록 하는 방법을 찾는다. 가령, 고용주는 피고용인이 열심히 일하는지 **점검하는 감독을 강화(도덕적 해이를 피하기 위한 사례 ①)**할 수도 있고, 혹은 **높은 임금을 지급(도덕적 해이를 피하기 위한 사례 ②)**하여 열심히 일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할 수도 있다.

▶ 2문단: 도덕적 해이의 개념과 이를 피하기 위한 방법

역선택 현상은 **정보가 부족한 구매자가 열등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역선택의 개념)**이다. 역선택이 발생하는 전형적인 시장은 **중고차 시장(역선택이 발생하는 시장의 사례)**인데, 중고차를 사려는 사람은 중고차 시장에 나온 자동차의 상태가 좋더라도 **그것(중고차의 상태가 좋은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높은 가격을 지불하려 들지 않는다. 이로 인해 상태가 좋은 차를 소유한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가격에 팔 수 없기 때문에(상태가 좋은 차가 중고차 시장에 잘 나오지 않는 이유) 그 차를 중고차 시장에 내놓지 않을 것이다. 결국 중고차 시장에는 상태가 좋지 않은 차들이 나오게 되고, 구매자는 품질이 열등한 차를 살 수밖에 없게 된다.

▶ 3문단: 역선택의 개념과 사례

이처럼 정보 비대칭은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데 장애가 되기 때문에 시장은 이에 대응하는 방법을 마련하는데, 그중의 한 가지가 **'신호 보내기'(정보 비대칭에 대응하는 방법)**이다. 이는 **정보를 가진 쪽이 정보가 없는 쪽에 직접적으로 자신의 정보나 속성을 알려서 자신의 불이익을 해소하거나 이익을 추구하려는 행위(신호 보내기의 개념)**로서, **회사에 입사하려 할 때 자격증을 제시하는 것(신호 보내기의 사례)**을 예로 들 수 있다. 한편, **정보가 없는 쪽이 적절한 장치를 통해 상대방 스스로 정보를 드러내도록 유도한 후 상품을 선택하는 것(골라내기의 개념)**을 '골라내기'라고 한다. 이는 정보가 없는 쪽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끔 작용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이나 계약 조건을 제시하여, 정보를 가지고 있는 쪽에서 그러한 장치에 자발적으로 반응하게끔 하는 것이다. **중고차를 사려는 사람이 판매자에게 차를 정비 업소에서 점검해 보자고 요구(골라내기의 사례)**할 수 있는데, 판매자가 그 요구를 거부한다면 차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정보를 드러내는 셈이 된다.

▶ 4문단: 정보 비대칭에 대응하는 방법

[지문 정리]

- 주제: 정보 비대칭의 개념과 그에 따른 폐해 및 시장의 대응 방법
- 해제: 이 글은 정보 비대칭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 설명하고, 그에 따른 폐해 및 시장의 대응 방법에 대해 소개한 글이다. 정보 비대칭은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이 가지지 못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정보를 가지고 있는 쪽은 자신에게 유리한 거래 조건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초과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정보를 가지지 못한 쪽은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으로 인해 손해를 볼 수 있다. 정보 비대칭은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데 장애가 되기 때문에 시장은 '신호 보내기'나 '골라내기'와 같은 방법으로 대응한다.

4. <답> ④
<정답 풀이>

지문에서 정보 비대칭과 관련하여 유사한 원리를 가진 대상에 빗대어 설명하는 방식(유추)은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④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1문단에서 정보 비대칭의 개념을 제시한 후 피고용인과 중고차 판매상 등의 사례를 들고 있다.
- ② 정보 비대칭의 유형을, 감춰진 행동에 대한 정보와 관련된 것과, 감춰진 속성에 대한 정보와 관련된 것의 둘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③ 정보 비대칭에 대응하는 방법인 '신호 보내기'와 '골라내기'를 소개하고 있다.
- ⑤ 셋째 문단에서,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해인 역선택 현상을 인과적으로(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5. <답> ①

<정답 풀이>

셋째 문단에서 언급했듯이, 역선택 현상은 정보가 부족한 구매자가 열등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역선택이 반복되면 그 시장에 대한 불신이 형성될 것이다.

<오답 풀이>

② 둘째 문단에서, 고용주는 피고용인이 도덕적 해이에 빠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피고용인이 성실하게 일하도록 하는 방법(감독 강화나 높은 임금 지급 등)을 찾았다고 했다. 따라서 도덕적 해이는 시간이 흐르면 자연적으로 해소된다고 보기 어렵다.

③ 정보 비대칭은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상대방이 가지지 못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므로, 정보의 양과는 별 관련이 없다.

④ 넷째 문단에서, 정보를 가진 쪽이 정보가 없는 쪽에 신호 보내기를 통해 불이익을 해소하거나 이익을 추구한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신호 보내기가 반복된다고 하여 신호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⑤ 넷째 문단에서, 골라내기는 정보가 없는 쪽에서 어떤 행동이나 계약 조건을 제시하여, 정보를 가지고 있는 쪽에서 그러한 장치에 자발적으로 반응하게끔 하는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상대방의 반응에 앞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없다.

6. <답> ②

<정답 풀이>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들의 사고 가능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고 가능성이 높은 가입자로 인해 지출될 보상을 반영한 수준으로 보험료가 높아진다. 그러면 사고 가능성과 무관하게 모든 보험 가입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이는 도덕적 해이 현상과 관련이 없으므로 ②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보험 가입자는 보험사보다 자기가 운전을 어떻게 하는지를 잘 안다. 따라서 <보기>의 정보 비대칭은 보험 가입자의 감춰진 행동과 관련된 것이다.

③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보험 가입자가 어떻게 운전하는지에 대해 가입자 본인만큼 알지 못하는데, 이에 대응하는 방법이 없어 사고 가능성이 높은 운전자들만 보험에 가입하여 보상금 지출이 많아졌다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일종의 역선택을 한 셈이 된다.

④ 자신의 운전 습관에 대한 정보를 가진 운전자가 자신의 운전 습관에 대한 정보가 없는 보험사에 무사고 경력을 제시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운전자 자신의 정보나 속성을 알려서 이익을 추구하려는 행위로, 신호 보내기에 해당한다.

⑤ 운전자가 첫 번째 보험(모든 사고에 대해 전액 보상)을 선택하면 스스로 사고 가능성이 높은 운전자임을 드러내는 셈이고, 두 번째 보험(보험료 수준이 낮음)을 선택하면 스스로 사고 가능성이 낮은 운전자임을 드러내는 셈이다. 따라서 보험사가 운전자들에게 두 종류의 보험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것은 골라내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7. <답> ①

<정답 풀이>

㉠의 ‘찾다’는 ‘모르는 것을 알아내고 밝혀내려고 애쓰다, 또는 그

것을 알아내고 밝혀내다’라는 의미로 쓰인 말이다. 이러한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①의 ‘사건의 실마리를 찾으려고’에 쓰인 ‘찾다’이다.

<오답 풀이>

② ‘현재 주변에 없는 것을 얻거나 사람을 만나려고 여기저기를 뒤지거나 살피다. 또는 그것을 얻거나 그 사람을 만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③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곳을 보러 그와 관련된 장소로 옮겨 가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④ ‘자신감, 명예, 긍지 따위를 회복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⑤ ‘월상태를 회복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8~11] 독서-과학

[지문 분석]

1900년대 초 물리학계에서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최소 전하량인 전자의 전하량 존재(1900년대 초 물리학계에서의 논쟁의 주제)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 전자가 띠고 있는 전기의 양(전자의 전하량의 개념)인 전자의 전하량은 기본 전하량이라고도 하는데, 이 논쟁에 참가했던 두 논객 중 로버트 밀리컨(Robert A. Millikan)은 이를 측정한 공로로 노벨상을 받았으나, 다른 한 사람 펠릭스 에렌하프트(Felix Ehrenhaft)는 전자의 전하량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학문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 1문단: 전자의 전하량을 둘러싼 논쟁

전자의 전하량을 측정하기 위한 시도는 밀리컨 이전에도 있었는데, 기본 전하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험 방법을 구안하는 것(기본 전하량을 확인하기 위한 조건)이 중요하다. 윌슨은 I 이온화된 안개상자에 생성되는 구름이 중력의 영향으로 하강하는 비율을 측정한 뒤, 이와 유사한 구름에 중력의 방향과 반대인 전기장을 가해서 구름 방울의 하강 속도 비율을 비교하는 간접적 측정(윌슨 실험의 특징) I(I]: 기본 전하량을 확인하기 위한 윌슨의 실험)으로 기본 전하량의 값을 얻었다. 그런데 윌슨이 측정한 전하량값은 편차가 상당히 심했고, 밀리컨은 이것(윌슨이 측정한 전하량값이 편차가 심한 것)이 X-선관에 의한 이온화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밀리컨은 X선 대신 라듐을 이온화 장치로 사용(윌슨의 실험을 개선해 나간 밀리컨)하는 등 실험 방법을 계속 개선해 나갔다.

▶ 2문단: 기본 전하량을 측정하기 위한 윌슨의 실험

우선 그(밀리컨)는 실험 중 물방울이 기화하는 문제(기본 전하량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보완해야 할 과제 ①)를 극복할 방법을 고민하였다. 또한 그동안의 실험 장치에서는 중력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과 전기장을 가했을 때 떨어지는 물방울의 질량이 동일한 것으로 가정(기본 전하량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보완해야 할 과제 ②)하고 있었는데,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이 점도 보완해야 할 과제였다. 그는 실험 조건을 다양화하기 위해 물 이외에 알코올을 실험에 활용하기도 했다. 물과 알코올 방울 하강 실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하강 속도, 반경, 밀도, 유체의 점성도와 관련된 스토크스 법칙*의 유효성을 얼마나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것(물과 알코올 방울 하강 실험에서 문제가 되는 것 ①)과 공기의 점성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일(물과 알코올 방울 하강 실험에서 문제가 되는 것 ②)이었다. 또한 전기장 내에서 단일하게 대전*된 방울들을 만들어 내는 것(기본 전하량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보완해야 할 과제 ③)도 실험의 정확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

였다.

▶ 3문단: 기본 전하량을 정확히 측정하려던 밀리컨
 결국 밀리컨은 물방울과 알코올 방울 실험을 통해 전자의 전하량값을 얻었는데, **자신이 얻은 값이 다른 사람들이 얻은 값과 오차 범위 내에서 일치하는 것(밀리컨이 기본 전하량이 존재한다는 확신을 가진 이유)**에 고무되어 기본 전하량이 존재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밀리컨은 전자의 전하량의 존재를 부정한 에렌하프트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실험을 계속 개선해 나가 기름방울에 의한 실험을 고안했는데 이것은 기본 전하량을 측정하는 데 큰 전환점이 되었다. 기름은 휘발성이 낮아 기름방울이 오르내리는 것을 오랜 시간 동안 측정할 수 있었으며, 이 실험은 기름방울에 작용하는 여러 종류의 힘인 전기력, 중력, 부력, 공기의 저항력 등과의 관계로부터 값을 구하는 **직접적인 측정(밀리컨 실험의 특징)**이었다.

▶ 4문단: 기본 전하량의 존재를 확신한 밀리컨
 밀리컨은 전기장 속에 놓인 두 극판 사이에 미세한 기름방울을 뿌린 후, 그 움직임을 관찰하였다. 기름방울은 분무기를 통과하면서 단일한 전하를 띠게 되고, 수평의 두 극판이 만드는 전기장(E)에서 아래 방향으로 **중력(기름방울에 아래 방향으로 가해지는 힘)**을 받고, 위 방향으로 **전기력(기름방울에 위 방향으로 가해지는 힘)**을 받는다. 이때 극판의 전압을 조절하여 전기력이 중력과 평형을 이뤄 기름방울들이 움직임 없이 떠다니게 하였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qE=Mg'이다. 여기서 q가 **구하고자 하는 기름방울의 전하량(q의 의미)**이고 **전기장(E)의 크기와 중력 가속도(g)(실험 전에 이미 알고 있는 값)**는 알고 있는 값이다. 따라서 밀리컨은 기름방울의 질량(M)을 구하기 위하여 **전기장을 끄고 낙하하는 기름방울의 중단 속도*를 측정하여 기름방울의 반경을 구하고(기름방울의 질량(M)을 알아낸 방법)**, 이를 이용해 질량(M)을 알 수 있으므로 q를 구할 수 있었다. 그는 공기의 점성도를 정확하게 대입하고 스토크스의 법칙을 교정하여 많은 오차 요소를 제거해 나간 끝에 마침내 기본 전하량값을 발표하였고, 이에 의해 **물리학의 기본이 되는 여러 기초 상수들도 새롭게 계산될 수 있었다.(밀리컨이 발표한 기본 전하량값의 의의)**

- ▶ 5문단: 기본 전하량값을 발표한 밀리컨과 그 의의
- * 스토크스 법칙(Stokes' law): 구형 입자가 유체 속을 매우 천천히 움직일 때의 힘에 대해 기술한 법칙.
 - * 대전: 어떤 물체가 전기를 띠. 또는 그렇게 함.
 - * 중단 속도: 어떤 물체가 움직일 때 속도의 증가에 따라 저항력이 커져서 결국 일정한 속도를 가지게 되는 것.

[지문 정리]

- 주제: 전자의 전하량 측정을 위한 기름방울 실험 및 그 의의
- 해제: 이 글은 전자의 전하량의 존재를 둘러싼 논쟁에서 전하량을 측정하기 위한 실험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밀리컨이 고안해 낸 기름방울 실험을 설명하고 그 의의를 밝히고 있다. 전자의 전하량을 측정하기 위한 시도는 밀리컨 이전에도 있었지만 보완하거나 극복해야 할 점들이 많았고 밀리컨은 이를 개선한 기름방울 실험을 통해 기본 전하량을 직접 측정하였다. 이 공로로 밀리컨은 노벨상을 수상하였고 물리학의 기본이 되는 여러 기초 상수들도 새롭게 계산될 수 있었다.

8. <답> ②

<정답 풀이>

2문단을 보면, 밀리컨 이전에 있었던 전자의 전하량 측정실험인 윌슨의 실험이 전하량값의 편차가 심한 문제가 있어 라듐을 이온화 장치로 사용하는 등 실험 방법을 개선해 나갔음을 알 수 있다. 또 3문단에서도 기존 실험에서 물방울이 기화하는 문제, 물방울의 질량 문제, 스토크스 법칙의 유효성 문제, 공기의 점성도 측정 문제 등을 지적하고, 4문단에서 결국 기름방울에 의한 실험을 고안하게 되었다고 했고, 5문단에서 그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독자가 글을 읽으면서 사용할 전략으로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전자의 전하량을 측정하기 위한 실험이 소개되고 있지만 실생활에서의 사례를 통해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③ 전자의 전하량을 측정하기 위한 실험이 소개되고 있지만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각 실험의 종류를 나누어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전자의 전하량의 존재를 둘러싼 논쟁이 제시되고 있지만 존재한다는 주장과 그렇지 않다는 반박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⑤ 질문의 방법을 사용하여 논지를 전개하고 있는 부분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9. <답> ②

<정답 풀이>

5문단에서 기름방울은 분무기를 통과하면서 전하를 띠게 되고 수평의 두 극판이 만드는 전기장에서 위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는다 고 하였다. 그렇다면 ㉠과 ㉡는 모두 전하를 띠며 ㉡는 전기력을 받는다. 따라서 ㉠이 전하를 띠지 않는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3문단을 보면, 밀리컨은 물방울이 기화하는 문제를 극복할 방법을 고민하였는데 기존의 실험 장치에서 중력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과 전기장을 가했을 때 떨어지는 물방울의 질량이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지만 이를 보완할 과제로 보았다. 그래서 밀리컨은 4문단에서 휘발성이 낮은 기름방울에 의한 실험을 고안하였다. 따라서 중력장에서 떨어지는 기름방울 ㉠과 전기장을 가했을 때 떨어지는 기름방울 ㉡의 질량을 동일한 것으로 가정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③ 5문단의 'qE=Mg'를 보면, 전기장(E)의 크기와 중력 가속도(g)는 알고 있는 값이고, 구하고자 하는 기름방울의 전하량(q)은 기름방울의 질량(M)을 알면 가능하다. 밀리컨은 전기장을 끄고 낙하하는 기름방울의 중단 속도를 측정하여 기름방울의 반경을 구하고, 이를 이용해 질량(M)을 알 수 있으므로 q를 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의 전하량을 알기 위해서 전극판(㉢)을 끄고 ㉡의 중단 속도를 측정하여 ㉡의 질량을 구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 ④ 3문단에서 밀리컨은 하강 실험과 관련하여 하강 속도, 반경, 밀도, 유체의 점성도와 관련된 스토크스 법칙의 유효성 문제를 고민하였고, 5문단에서 기름방울 실험 시, 공기의 점성도를 정확하게 대입하고 스토크스의 법칙을 교정하여 많은 오차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기본 전하량을 구했다. 따라서 밀리컨이 기름방울 실험에서 ㉡의 중단 속도를 구하기 위해 공기의 점성도와 관련된 스토크스의 법칙을 교정하여 적용하였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 ⑤ 5문단을 보면, 기름방울(㉡)은 수평의 두 극판(㉢)이 만드는

전기장에서 아래 방향으로 중력(ⓐ)을 받고, 위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는다. 이때 극판의 전압을 조절하여 전기력이 중력과 평형을 이뤄 기름방울들이 움직임 없이 떠다니게 하여 'qE=Mg' 상태가 되면 ㉑의 전하량(q)을 측정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10. <답> ③

<정답 풀이>

3문단에서 전기장 내에 단일하게 대전된 방울을 만들어 내는 것이 실험의 정확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는데, 5문단의 기름방울이 분무기를 통과하면서 단일한 전하를 띠게 했다는 언급은 이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단일하게 대전된 방울을 만드는 것은 하강 속도를 조절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2문단에서 밀리컨은 윌슨의 전하량 측정 실험의 문제를 생각하고 실험 방법을 계속 개선해 나갔으며, 3문단에서 기본 전하량을 측정하기 위한 기존 실험의 문제와 보완해야 할 점을 고민하였으며, 4문단에서 기본 전하량의 존재에 확신을 갖고 실험 방법을 계속 개선해 나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본 전하량의 존재를 확신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실험 방법을 개선해 나갔다는 밀리컨의 말은 적절하다.

② 1문단에서 에렌하프트는 전자의 전하량의 존재를 부정하였으며, <보기 1>에서 그는 밀리컨과 유사한 방법으로 전자의 전하량을 측정한 결과 전자의 전하량보다 더 작은 전하량이 있으며 전하량은 연속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㉑는 에렌하프트의 말로 적절하다.

④ 4문단을 보면, 기름방울 실험을 고안한 밀리컨은 기름방울에 작용하는 여러 종류의 힘인 전기력, 중력, 부력, 공기의 저항력 등과의 관계로부터 전자의 전하량을 구하는 직접적인 측정을 하였다. 따라서 ㉑는 밀리컨의 말로 적절하다.

⑤ 2문단을 보면, 윌슨은 이온화된 안개상자에 생성되는 구름이 중력의 영향으로 하강하는 비율을 측정 한 뒤, 이와 유사한 구름에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전기장을 가해서 구름 방울이 하강하는 속도 비율과 비교하여 기본 전하량을 간접적으로 측정하였다. 그렇다면 윌슨은 전자의 전하량 때문에 전기장을 가하면 구름 방울의 하강 속도가 달라질 것이라 보고 중력에서의 하강 속도 비율과 비교하여 간접적으로 전하량을 구한 것이므로 ㉑는 적절한 발언이다.

11. <답> ⑤

<정답 풀이>

밀리컨의 기름방울 실험에서 전기장을 조절하는 가장 큰 목적은 기름방울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을 0으로 만드는 것이다. 즉, 위쪽으로 작용하는 전기력과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중력이 서로 평형을 이루도록 하여 기름방울이 정지 상태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간단한 식을 통해 전하량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오답 풀이>

- ① 질량은 전기장의 세기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질량은 기름방울의 부피와 밀도를 통해 계산된다.
- ② 기름방울이 정지해 있으므로 운동 에너지는 0이다.
- ③ 전기장을 조절하여 기름방울의 반경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는

없다. 반경은 기름방울의 생성 과정에서 결정된다.
 ④ 전하량은 기름방울이 생성될 때 결정되는 것이며, 전기장을 조절하여 인위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다.

[12~17] 독서-주제통합

[지문 분석]

(가)

미적 모더니티란 19세기 전반에 출현한 특수한 미학적 개념으로, 부정성(negativity)(미적 모더니티가 탄생한 바탕)을 바탕으로 탄생하였다. 미적 모더니티가 부정하는 대상은 과거 또는 전통(미적 모더니티가 부정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계기로 서양 미술에서 현대 미술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과거 또는 전통에 대한 부정은 초월적인 미의 영원한 원천으로서의 고대와 그러한 미의 구현을 합리주의적으로 추구하는 이성 중심적 고전주의의 예술론에 대한 부정(미적 모더니티의 '부정성'의 의미)으로 집약될 수 있다. 이는 현재성에 대한 감각을 강조하고 감정과 상상력을 중시(낭만주의의 성격)하는 낭만주의가 예술의 규칙이나 도덕과의 연관성을 강조(고전주의의 성격)하는 고전주의에 대해 반대하며 예술의 자율성이라는 개념을 단초로 마련했기 때문에 가능한 사건이었다.

▶ 1문단: 미적 모더니티의 출현과 과거에 대한 부정

반고전주의적 예술 개념을 바탕으로 미적 모더니티는 부르주아 문명이 지배하는 사회(미적 모더니티가 부정한 대상)에 대해서도 부정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이어 온 습관이나 과거의 명성에 압도되어 여전히 고전주의를 추종(당시 부르주아 계층의 가치관)했던 당시 사회의 부르주아 계층에 대한 공격으로 발전하였는데, 젊은 작가들이 중심을 이루었던 19세기 전반부의 예술 운동(미적 모더니티의 예)이 그것이다. 이들은 “부르주아를 납작하게 만들자.”라는 공격적인 표어 아래 미의 무용성과 예술의 무상성(미적 모더니티의 주장)을 주장했으며, 19세기 중반에는 예술에 대한 급진적인 주장으로 발전한다. 예술은 이성적 규칙은 물론 도덕적 선의 영역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부르주아적 상업주의나 공리주의를 부정해야 하며, 일체의 과거와 완전히 단절될 초월적인 영역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2문단: 부르주아 문명이 지배하는 사회에 대한 부정

그러나 일체의 과거와 단절된 초월적인 영역이 구축된다 하더라도 그 스스로가 또 하나의 전통이 되어 갈 수 있었기 때문(미적 모더니티가 스스로를 부정한 이유)에 미적 모더니티는 스스로에 대해서도 부정하였다. 과거에 대한 부정과 부르주아 사회에 대한 부정의 정신을 계승하여 자율적 예술의 개념을 신봉하면서 예술의 독자적인 영역 안에서 순수성을 추구하는 것이 문화 영역의 분리로 귀결(미적 모더니티가 스스로를 부정하지 않았을 때 야기하게 되는 결과)된다면 이는 결국 미적 모더니티가 부정하고자 했던 부르주아 자본주의 문명의 분업화 논리와 다르지 않다. 문화 영역의 분리는 미적 모더니티가 부정하고자 했던 부르주아 사회에 대해 대안적인 극복 방안이 되기보다, 단순하고 무력한 부정의 표명에 그치거나 본래의 정신을 잃고 고전주의를 대체하는 새로운 전통이 될 뿐이다.

▶ 3문단: 또 하나의 전통이 되어 가는 스스로에 대한 부정

이렇게 부정을 기반으로 한 미적 모더니티는 현대 미술의 출발과 전개를 구조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개념적 이해의 틀을 제공(미적 모더니티의 예술사적 의의)하였다. 이로부터 제도화된 예술

의 틀을 넘어 반자본주의적 삶을 모색하는 움직임(아방가르드 예술)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아방가르드 예술이다.

▶ 4문단: 미적 모더니티의 의의와 아방가르드 예술의 탄생

(나)

1980년대 제니 홀저(Jenny Holzer)는 대중이 가지고 있는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를 전복하고 해체하는 작업(제니 홀저의 시도)을 시도하였다. 홀저는 공적인 공간에서 텍스트(제니 홀저가 적극적으로 이용한 대상)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는데, 텍스트의 사회적 함의를 이용하거나 기술적 표현 방법을 복합적으로 동원하여 독립적인 매체의 특성을 극대화하였다.

▶ 1문단: 제니 홀저의 예술 작품 개념

다른 예술가들이 기성품을 차용하여 작품을 만들어 내는 것(다른 예술가들의 작품 창작 방법)과 달리 홀저는 텍스트를 직접 엮어서 의미적 전환을 일으키는 방법(제니 홀저의 작품 창작 방법)을 택하였는데, 텍스트의 앞뒤나 선후 관계가 순연적으로 이어져 맥락이 중첩되거나 적층되는 일반적인 언어 구조가 아닌, 역설, 반어, 모순의 방법(제니 홀저가 텍스트를 엮은 방법)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접적으로 의미하거나 지시하는 바가 있는 하나의 단어나 문장을, 이어지는 다른 단어나 문장과 결합하여 의도하는 의미를 생성하는 특징적인 수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 2문단: 제니 홀저의 표현 방식

홀저가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 궁극적 이유는 기존의 모더니즘이 가지고 있는 예술의 일방적인 의미보다 일반 대중이 자율적으로 예술에 대해 해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 했기 때문(제니 홀저의 의도)이다. 바바라 크루거(Barbara Kruger) 역시(제니 홀저와 공통점이 있음을 알 수 있음.) 이미지와 텍스트를 결합하는 독특한 예술 형식(바바라 크루거의 작품 창작 방식)을 통해 기존 예술에 대한 비판과 함께 사회 제도적 권력이나 남성 지배적 구조에 항거(바바라 크루거가 작품을 통해 나타나고자 한 요소)하였다. 크루거는 일상생활 속 광고에서 보이는 텍스트와 이미지의 결합을 파괴하고자 하였다. 크루거는 기존의 이미지에 새로운 텍스트를 결합함으로써 원본이 가지고 있는 원형성을 부정하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

▶ 3문단: 바바라 크루거의 예술

크루거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념화, 시각화되고 있는 자본주의, 소비주의, 상업주의 등을 지적하고 비판하기 위해(바바라 크루거가 상업적인 매체 이용 방법을 활용한 이유) 상업적인 매체 이용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상업적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직설적이고 일방적인 의미 전달 방법을 답습하여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이는 노먼 브라이슨이 언급한 “사회적 구조 속에서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생각하는 정체성의 수립은 물리적인 수단이 아닌 시각적 자극과 정보의 주입에 의해 이루어진다.”라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으로, 크루거는 전통적으로 사회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제도적 권위에 대한 저항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려 했던 것(바바라 크루거의 의도)이다.

▶ 4문단: 바바라 크루거의 의도

■해제: 미적 모더니티란 19세기에 출현한 미학적 개념이다. 미적 모더니티는 이성 중심적인 고전주의 예술에 대한 부정, 부르주아 문명이 지배하는 사회에 대한 부정, 자기 스스로에 대한 부정을 바탕으로 하는데, 이를 미적 모더니티의 부정성이라고 한다. 미적 모더니티의 부정성은 고전주의 예술에서 현대 예술로 이행되는 배경이 되었다.

(나) 제니 홀저와 바바라 크루거의 예술

■주제: 텍스트를 중심으로 하는 제니 홀저와 바바라 크루거의 예술

■해제: 제니 홀저는 공적인 공간에 의도적으로 텍스트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한다. 대중은 제시된 텍스트를 자율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여 스스로 의미를 찾는다. 한편 바바라 크루거는 일상생활 속의 광고 이미지에 새로운 텍스트와 이미지를 결합한다. 이는 광고 이미지에 담긴 기존의 사회 제도적 권력, 남성 중심의 지배 구조에 항거하는 것이다. 한편 노먼 브라이슨은 사회적 구조 속에서 개인의 의식은 시각적 자극과 정보의 주입으로 이루어진다고 지적하였는데, 크루거는 이 점을 받아들여 자신의 메시지도 직설적이고 일방적인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12. <답> ②

<정답 풀이>

(나)의 도입 문단은 제니 홀저의 예술 활동을 소개하고 있지, 통념을 언급하여 문제의식을 환기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의 1문단에서는 ‘미적 모더니티란 19세기 전반에 출현한 특수한 미학적 개념’이라고 설명하며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③ (가)에서는 미적 모더니티의 과거에 대한 부정, 부르주아 문명 사회에 대한 부정, 스스로에 대한 부정을 차례로 나열하여 설명하고 있다.

④ (나)에서는 공적인 공간에서 텍스트를 활용하는 제니 홀저의 예술과, 일상 속 광고 속에 새로운 텍스트를 결합하는 바바라 크루거의 예술을 제시하고 있다.

⑤ (가)에서는 미적 모더니티가 추구한 부정성을 설명하면서 이것이 현대 미술의 출발과 전개를 포괄하는 개념적 이해의 틀을 제공하였다고 하였다. (나)에서는 제니 홀저의 공적인 공간에서의 텍스트 활용과 바바라 크루거의 이미지와 텍스트의 결합을 설명하고 있다. 이 둘은 모두 현대 미술의 움직임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따라서 (가)와 (나) 모두 전통적 미술에서 벗어나려는 현대 미술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

13. <답> ③

<정답 풀이>

(가)의 1문단에서 미적 모더니티는 19세기 전반에 출현한 미학적 개념으로 고전주의 예술론에 대한 부정으로 집약될 수 있으며 이를 계기로 현대 미술이 시작되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미적 모더니티가 현대 미술에 대한 부정을 바탕으로 생성된 미학적 개념이라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의 4문단에서 미적 모더니티가 현대 미술이 출발할 수 있는 개념적 틀을 제공하자 이로부터 대두된 것이 아방가르드 예술

[지문 정리]

(가) 미적 모더니티

■주제: 미적 모더니티의 부정성

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아방가르드 예술은 미적 모더니티의 자기 부정 정신을 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다.

② (나)의 2문단에서 다른 예술가들이 기성품을 차용하여 작품을 만들어 내는 것과 달리 홀저는 텍스트를 직접 엮어서 의미적 전환을 일으키는 방법을 택하였다고 하였다.

④ (나)의 4문단에서 크루거는 상업적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직설적이고 일방적인 의미 전달 방법을 답습하여 그대로 사용하였다고 하였다.

⑤ (가)의 2문단에서 미적 모더니티의 부르주아 문명사회 부정은 19세기 중반에 예술이 이성적 규칙은 물론 도덕적 선의 영역과 무관하다는 급진적인 주장으로 발전하였다고 하였다.

14. <답> ③

<정답 풀이>

(B)에 제시된 바바라 크루거의 사례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달될 수 있는 시각적인 자극이라 할 수 있으며 원본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나)의 3문단에서 크루거는 기존의 이미지에 새로운 텍스트를 결합함으로써 원본이 가지고 있는 원형성을 부정하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① 뉴욕의 거리 한복판은 공적인 공간으로, 일반 대중 누구나 쉽게 텍스트를 읽고 자율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

② 'PRIVATE', 'PROPERTY', 'CREATED', 'CRIME'라는 단어를 각각 늘어놓아 특정한 의미를 생산하고 있어 대중이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를 전복하려 한다고 할 수 있다.

④ (A)와 (B) 모두 기성품을 차용하는 기존 예술가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텍스트를 활용하고 있다.

⑤ (A)에서 배경이 되고 있는 뉴욕의 거리는 부의 상징이며, (B)에서 배경이 되고 있는 유명 남자 배우는 남성 중심 문화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텍스트를 결합하여 저항의 메시지를 생성한다고 할 수 있다.

15. <답> ⑤

<정답 풀이>

일체의 과거와 완전히 단절된 초월적인 영역이 또 하나의 전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적 모더니티는 자기 부정을 통해 고전주의를 대체하는 새로운 전통이 되지 않으려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① 일체의 과거와 완전히 단절된 초월적인 영역은 전통 자체를 부정하려는 것이므로 새로운 전통을 창출해 내는 공간이 아니다.

② 일체의 과거와 완전히 단절된 초월적인 영역에 대한 이해는 자본주의 문명의 분업화와 관련이 없다.

③ 고전주의를 대체하는 새로운 전통을 수용하면 결국 거부하려고 했던 이전의 삶과 같아져 반자본주의적 삶을 추구한다고 할 수 없다.

④ 고전주의를 대체하는 새로운 전통은 또 하나의 전통이 될 뿐이지 부르주아 사회에 대한 극복 방안이 될 수 없다.

16. <답> ②

<정답 풀이>

노먼 브라이슨은 사회적 구조 속에서 개인의 정체성은 시각적 자극과 정보의 주입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지적하였다. 크루거는 이

점을 받아들여 상업적 미디어의 직설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으로 제도적 권위에 저항하려는 자신의 메시지를 주입하려고 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노먼 브라이슨은 사회적 구조 속에서 개인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방법을 지적한 것이지 모더니즘이 가지고 있는 예술의 일방적인 의미를 부정한 것이 아니다.

③ 노먼 브라이슨이 지적한 것은 맥락이 중첩되거나 적층되는 의미적 전환과 관련이 없다.

④ 노먼 브라이슨은 사회적 구조 속에서 개인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방법을 지적한 것이지 상업적인 매체 이용 방법을 권고한 것이 아니다.

⑤ 노먼 브라이슨은 사회적 구조 속에서 개인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방법을 지적한 것이다. 전통적 사회의 제도적 권위에 대한 저항의 메시지를 강조한 것은 크루거이다.

17. <답> ⑤

<정답 풀이>

㉞는 '일반적으로는 모순을 야기하지 아니하나 특정한 경우에 논리적 모순을 일으키는 논증.'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18~21] 문학-현대소설

[지문 분석]

안방에 들어갔다. 잠만아 아내가 돌아왔다. 손에 돈이 들려 있지 않다. 그러면 댕나 보다 했다.('나는 한 달 방세를 가지고 주인덕과 타협한 것이 받아들여졌다고 생각함.) 그러나 아내의 말은 그렇지 않았다. 아무래도 이 방을 비워 달라는 것이다.('나의 가족은 결국 방을 비워 줘야 되는 처지에 놓임.) 영감과 큰아들은 다다미 여덟 장 방에서 자고, 큰 온돌방에는 작은아들과 부인이 각각 자고 있는데, 그러고는 좁아서 못 견디겠다('나가 생각하는, 주인이 방을 비워 달라 하는 실제 이유)는 말은 못 하겠는지, 잘 밝한 딸들의 말이 할머니 코고는 소리에 도시 잠을 잘 수 없으니 기어코 그 방을 할머니 방으로 쓰게 내 달라더라는 것('나의 가족에게 방을 비워 달라는 이유)이다. 여기서 아내는 또 우리가 어떻게든 할머니 주무실 자리를 넉넉히 내어 올릴 테니 그렇게 하자고 해도, 그렇게는 못 하겠다더라는 것이다. 그리고 부인이 한다는 말이, 자기네 딸 친구가 있어 방 하나만 구해 주면 금손목시계를 프레젠티하겠다는 것도 못 하고 있단다는 것이다.('나의 가족의 곤란한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물질적인 욕망을 드러내는 부인. '금손목시계'는 전쟁으로 피폐해진 인간의 탐욕을 드러내는 소재) 나는 간이 서늘해움을 느꼈다. 금손목시계라니 문제가 좀 큰 것이다. 그래, 가지고 갔던 돈은 어쨌느냐니까, 좌우간 딸들 책이라도 한 권 사 보라고 놓고 오긴 했다고 한다. 이 돈만 돌아오지 않으면 하는 것이 희망이었다. 그러나 이튿날 이 돈은 도로 돌아오고 말았다.

그리고 그날 저녁이었다. 나는 학교 나가는 날은 학교로 해서, 그렇지 않은 날은 아침에 직접 남포동 부모가 계신 곳에 가 하루를 보낸다.('나의 하루 일과) 이곳 피란민들은 대개 담배 장사를 하느라고 애들만 남기고 모두 나간다. 부모도 그 축의 하나였다. 나는 여기서 서면* 간 내 큰애들이 돌아오길 기다려 국제시장엘 들려 애들 엄마를 만나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게 한 일과였다. 그날도 그랬다.

우리가 저녁에 모여 들어가니, 방 안에 딸 같은 처녀 둘이 와서

뻘치고 섰다. 이 덕 딸들인 것이다. 누가 형이고 동생인 것도 구별 안 되는, 좌우간 큰딸은 시내 모 여학교 졸업반이라는 것이고, 작은딸은 사학년이라는 처녀들이었다. **이들이 오늘 저녁엔 이 방에 와 자야겠다는 것(당장 방을 비워 줄 것을 간접적으로 요구하고 있음.)**이다. 나는 이 두 말 같은 처녀 중의 누가 친구한테 방 하나만 구해 주면 금손목시계를 프레젠틀 받을 수 있는 아가씨일까 생각해 보았다. 그러면서 나는 이 자리를 피해야 할 걸 느꼈다.

그러는데 이 말같은 두 처녀가 누구에게라 없이, 이삼 일 내로 반드시 방을 내놓으라는 말과 함께, 나에게 시선을 한 번씩 던지고 나가버렸다. 그 시선들이 멀리서 찬 눈초리였던 어쨌든 그것은 벌써 아무래도 좋았다. 그저 이들의 전범이 그 효과에 있어서 **내게는 이들의 오빠 되는 청년이 내 따귀를 몇 번 갈기는 것보다 더 컸다는 것(두 딸들의 행위로 인해 모멸감을 느끼는 '나')**만은 자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지 않아도 아침이면 나는 이날은 어서 이곳을 나가 고만 싶었다. 이날은 학교 가는 날이기도 했다. 풍경 달린 현관문을 열고 나서니, 응접실 앞 거기 꽃이 진 동백나무 이편에 **변호사 영감이 허리를 구부리고 서서 회양목*인가를 매만져 주고 있다.** ('나'를 쫓아내려는 주인집 영감이 나무를 정성으로 돌보는 모습. 비인간적 면모를 확인할 수 있음.) 첫눈에도 여간 그것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태가 아니었다. 좋은 취미다. **인생이란 이렇듯 한 포기의 초목까지도 아끼고 사랑하면서 유유자적할 수 있는 생활을 해야 할 종류의 것인지도 모른다.(자신의 삶에 대한 자조적 태도)** 나는 무엇에 쫓기듯이 그곳을 빠져나왔다.

학교에서는 동료들에게 또 방 애길 해 보았다. 상급생에게도 점잖지 못한 소릴 해 보았다. 학교가 과한 후에는 차도 안 팔아 주는 다방에 앉아, 아는 친구를 붙들고 구차한 이야기길 또 했다. **[[: 살 곳을 구해 보려 노력하는 '나']**

그리고는 남포동에 와서 장사 간 애들을 기다렸다. 어둑어둑해서야 애들은 왔다. 시장의 애 엄마는 우리를 기다리다 못해 먼저 들어갔을 것 같다. 곧장 가기로 했다. 남포동서 경남중학 뒤에까지 오는 동안 **아주 깜깜하게 어두웠다.(암울한 분위기를 형성)**

철관으로 된 대문을 밀어 보니 안으로 잠겼다. 문틈으로 들여다 보니 대문에서 마주 보는 우리 방이 새까맣다. 아마 애들 엄마는 아직 시장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애들 이모가 일찌감치 어린것들을 재우느라고 불을 끄고 있는 것이리라.(방이 어두운 이유에 대한 '나'의 추측)** 아내를 기다렸다 같이 들어가기로 하고 나는 애들을 데리고 애 엄마가 돌아오려면 으레 그곳을 거쳐야 하는 개천가로 나와 쭉그리고 앉았다.

둘쨌놈이 곁에 와 붙어 앉는다. 큰놈도 와 앉는다. 좀처럼 아내가 돌아오지 않는다. 둘쨌놈 남아가 앉은 채 꼬박꼬박 준다. 이렇게 초저녁인데 꼬박꼬박 준다. **열두 살짜리 어린 육체(어린 나이에 도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하는 처지)**로써 자기 하는 일이 고된가 보다. 나는 그만 검은 하수구 개천으로 고개를 돌리고 만다. 담배를 꺼내 문다. 성냥이 일어서지 않는다. 공중에서 검은 빗방울이 듣기 시작한다.

큰놈 동아가 혼자 일어나 집 쪽으로 간다. 좀만에 뛰어오면서, 어머니도 돌아오고 대문도 열었다고 한다. 큰놈이 문 앞에 가봤더니, 방 안에서 어머니 말소리가 들려 불렀다는 것이다.

방에 들어가 알아보니, **전등은 고장인지 고의인지 저녁부터 안 들어온다는 것이다. 이 덕 전등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들어오는 특수선으로, 물론 지금도 다른 방에 모두 환하게 들어와 있었다.**

(방이 어두운 이유는 '나'의 추측과 달리 집주인이 단전을 했기 때문임. 방을 지키려는 '나'의 가족의 비극을 더욱 심화함.) 잠시 우리들은 어둠 속에서 말이 없었다.

애들 이모가 혼잣말처럼 내일은 어느 다리 밑으로라도 나가고 말아야겠다고 한다. 이모의 말이, 여지껏도 그래 왔지만 오늘은 **이 집에서 더 어린것들을 못살게 굴더라는 것(집주인 가족들의 비인간적 면모)**이다. 이모네 일곱 살짜리 큰놈과 우리의 여섯 살짜리 끝놈이 어저대 노래를 부른다든가, 변소이라도 가려 복도로 나가면 시끄럽다고 뽕 소리를 지르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자기네 일곱 살짜리가 여봐란 듯이 보무당당히 복도를 행진하며,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를 할 때.(전쟁 중임이 은연중에 드러남.)** 이쪽 애들이 따라만 해도 다시 고향소리가 연발되더라는 것이다 그보다도 더 보기에 안된 것은 우리 선아가 역시 계집애는 달라, 동생 애들이 주인한테 꾸지람 듣는 게 보기에 안된 듯, 조금만 애들이 소리를 내도 안타까와하는 모양이 차마 옆에서 볼 수 없더라는 것이다.

애들 이모가 어둠 속에서 소리를 죽여 가며 운다.(서러움과 모멸감으로 인한 한의 표출) 내 가슴속도 화끈 불이 붙는 걸 느낀다. 그건 대구서 선아의 고무신 한 짝을 잃었을 때에 느꼈던 분노와는 또 달랐다. 그러나 **그들(집주인 가족)**이 여하한 전술을 바꿔가지고 나오더라도 우리가 여기 있는 동안은 참는 수밖에 없다. 그저 그 전술을 최대한 피할 도리를 강구하면서.

- 「곡예사」

* 서면: 부산에 위치한 지역 이름.

* 회양목: 회양목과의 상록 활엽 관목. 높이는 7미터 정도이며, 잎은 마주나고 타원형인데 두껍다.

■ 핵심 정리

- 갈래: 현대 소설, 단편 소설
- 성격: 자전적, 현실 고발적, 사실주의적
- 주제: 피난지에서 경험하는 삶의 고달픔과 전쟁의 참상
- 특징
 - 작가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자전적 소설임.
 - 공간의 이동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고 있음.

■ 전체 줄거리

전쟁이 일어나자 '나'는 먼저 가족을 대구로 피난 보낸 후 뒤따라 도착한다. '나'의 가족은 대구에서 지인의 도움으로 변호사 덕 헛간에서 피난살이를 시작한다. 그러나 주인집 노파의 엄격한 생활 규율에 고통을 당하고, 결국 '나'의 가족은 대구의 피난살이에서 쫓겨나 부산으로 가게 된다. 이후 아는 사람의 도움으로 부산의 변호사 덕에 방 한 칸을 얻어 피난살이를 이어 간다. 어린아이들까지 껌을 팔거나 담배를 파는 등의 경제적 행위에 내몰리며 어려운 피난살이를 이어 갔으나, 얼마 되지 않아 방을 빼 달라는 주인의 요구를 받게 된다.

'나'와 아내는 백방으로 방을 구하려 노력하지만 방을 쉽게 얻지 못한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가족들과 함께 귀가하다가, 자신은 물론 어린 자녀들까지 곡예단의 곡예사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부디 자식들은 어른이 되어 자신처럼 슬픈 곡예를 하지 않기를 바라며 피난살이의 어려움을 긍정적으로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인다.

■ 이해와 감상

「곡예사」는 1951년에 발표된 소설로, 6·25 전쟁으로 내려온 대구와 부산 등의 피란지에서 작가가 겪어야 했던 피난 체험을 1인칭 시점으로 형상화한 자전적 소설이다. 작가는 「곡예사」에 대해 “이것을 쓰면서 나는 나 개인의 반감, 증오심, 분노 같은 것을 억제하기에 저으기 노력해야만 했다.”라는 창작 소회를 달아 놓고 있는데, 이는 작가가 피난 생활에서 겪었던, 가장으로서의 무력감과 좌절감 등을 나타낸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작품은 전쟁을 소재로 한 다른 소설들과 달리 전쟁의 참상을 직접적으로 묘사하지 않는 대신, 전쟁이 개인의 윤리와 인정을 얼마나 피폐하게 하는지, 그리고 피난 생활을 하는 한 가족의 일상을 얼마만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지 등을 사실적으로 드러낸다.

18. <답> ⑤

<정답 풀이>

이 작품은 대화를 지문 속에 녹여 쓰는 간접 화법의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등장인물이 한 말은 서술자의 목소리를 통해 매개되고, 이에 따라 작중 상황은 서술자의 심리적 정조에 의해 전달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전체적으로 ‘나’의 가족들이 피란지에서 셋방살이하는 어려운 모습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인물들의 다양한 체험이 삽화 형식으로 나열된다고 할 수 없다.
- ② 윗글은 ‘나’의 시선으로 ‘나’가 겪은 일을 표현하고 있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나’의 주관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 ③ 윗글은 ‘나’가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 ④ 공간적 배경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으나, 서술자가 그때마다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로 제시되고 있다.

19. <답> ③

<정답 풀이>

‘나’에게 모멸감을 주면서까지 방에서 쫓아내려는 주인집 영감이 자신의 나무를 지극 정성으로 돌보는 모습을 통해 타인의 고통에 대한 관심과 책임, 연대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비인간적인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은 변호사 영감의 비인간적 모습을 부각할 뿐, 사건 전개에 복선이 되지는 않는다.
- ② ㉠을 통해 상황 변화가 일어날 것임을 알 수는 없다.
- ④ ‘나’가 변호사 영감의 모습을 보면서 ‘인생이란 이렇듯 한 포기의 초목까지도 아끼고 사랑하면서 유유자적할 수 있는 생활을 해야 할 종류’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아 ㉠은 주인공이 부정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다.
- ⑤ ‘나’는 주인집 영감이 회양목을 매만져 주는 모습을 보기 이전과 이후에 모두 가족들이 거처할 방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은 상황에 대한 주인공의 인식이 바뀌는 계기가 된다고 볼 수 없다.

20. <답> ③

<정답 풀이>

[A]에서 집에 불이 꺼진 이유를 ‘나’는 이모가 애들을 재우느라고 일부러 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집주인이 단전했

기 때문임이 [B]에서 드러남으로써 방을 지키려는 ‘나’의 가족의 비극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A]에서 ‘나’는 집 밖을 배회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마중가기 위해 개천가로 간 것이다.
- ② [A]에서 ‘나’가 정전이 된 원인에 대해 본질적인 면을 간파했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처지에 있지 못하므로, [A]에서의 피상적 인식 때문에 [B]에서 문제 해결이 어렵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 ④ 이 작품은 ‘나’와 세상과의 소통 불가능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방 하나 마련할 수 없는 피란민의 비참한 일상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이 작품에서 가족애의 균열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21. <답> ⑤

<정답 풀이>

전쟁 중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까지 시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할 만큼 피란민의 일상이 비참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지, 극한 상황에 대한 인간의 극복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 ① 윗글은 ‘나’의 시점을 통해 자신이 겪은 일을 직접 서술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작품이다.
- ② 집주인은 방 하나가 금손목시계의 값을 한다는 얘기를 던지지 건네다가 딸들이 방을 점거하더니 나중에는 단전을 하는 등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에 따라 ‘나’도 처음에는 간이 서늘해움을 느꼈지만, 점점 수치심, 분노를 느끼며 내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 ③ 아이들이 군가를 일상적으로 부르고 있는 것을 통해 전쟁 중인 당시 상황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다.
- ④ 주인집 딸들이 방을 점거하는 것, 우리 가족의 방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것은 피란지에서 가족들의 안식처가 될 수 있는 방을 지키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장면이므로 마치 ‘곡예사’와 같은 위태로운 삶의 모습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2~27] 문학-갈래 복합

[지문 분석]

(가)

한 줄의 **시(정신적 가치 ①)**는 커녕
 단 한 권의 **소설(정신적 가치 ②)**도 읽은 바 없이
그(비판의 대상)는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며
많은 돈(세속적 가치 ①)을 벌었고
높은 자리(세속적 가치 ②)에 올라
 이처럼 **훌륭한 비석(반어적 표현)**을 남겼다

그리고 **어느 유명한 문인(정신적 가치를 추구해야 할 인물. 풍자의 대상)**이
 그를 기리는 **묘비명을 여기에 썼다(세속적 가치에 종속된 문인)**
 비록 이 세상이 잿더미가 된다 해도
 불의 뜨거움 곳곳이 건디며
 이 묘비는 살아남아
귀중한 사료(史料)(반어적 표현)가 될 것이니

[역사는 도대체 무엇을 기록하며 시인은 어디에 무덤을 남길 것이냐] ([]: 정신적 가치가 경시되는 현실에 대한 비판)

- 「묘비명(墓碑銘)」

(나)

상학(상범의 형): 그러니 말이야, 아버지 환갑에 손님을 좀 초대하고도 싶지만 한 달 후엔 내 결혼식이 있으니 같은 손님들을 두 번 청할 수도 없고.....

상범: 그야 그렇지.....

상학: 그러니 암만해도 이번 아버지 환갑은 네가 좀 주동이 돼서 도와 주었으면 좋겠어.(상범에게 거북한 일을 떠넘기려는 상학의 의도)

상범: 그렇기도 하군요. 사장님한테 직접 사정 말씀드릴까.....?

상학: 잘 알아서 해 주렴.

상범: 근데 아주머니 될 사람은 어떤 여자예요?

상학: 너도 잘 아는 여자지.

상범: 저도요?

상학: 요 위층에 있는 미스 박 말이야. 가정 주부로서는 그만이기에.....(상학이 생각하는 결혼 상대자의 조건)

상범: 아니, 박용자 씨 말입니까?

상학: 그래, 아마 너도 반대는 안 할 게다.

상범: 저요? 아니요..... 아니요.

상학: (팔목시계를 보더니) 이런, 시간에 늦겠다. 그럼 내 2, 3일 내에 또 연락할게.

상범: 박용자 씨하고는 애기가 다 됐어요?(자신이 좋아하던 박용자가 형과 결혼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상범)

상학: 그럼, 인천에도 몇 번 놀러 왔었구. 약혼식은 생략하기로 했어. 결혼식도 간단히 하기로 하구. 그때 같이 영화 구경 간 것이 인연이 돼서..... 그럼, 몸조심해.

(상학이 걸어나간다. 상범은 움직이지를 못한다. 잠시 그대로 서 있다.(형이 박용자 씨와 결혼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음.))

상범: (체념하기에는 너무나 억울하다는 태도로) 이거 결혼 상대자를 빼앗긴 태다가 아버지 환갑 잔치 비용도 내가 주선해야만 하는 팔자(항상 손해만 보고 살아가는 상범의 처지)입니다. 이젠 할 말이 없습니다. 저의 나이는 서른 한 살입니다. 앞으로 살아 봤자 20년.....(당시의 평균 수명을 알 수 있음.) 나머지 20년마저 밤낮 손해만 보는 세월일 것이라고 생각하니 앞이 캄캄해집니다. 저는 여태까지의 모든 생활을 제가 아는 상식의 테두리 안에서 해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배우고 믿어 왔던 상식적인 생활(정직하고 선량한 삶)은 저에게 손해만 끼쳐 왔습니다. 저는 결국 상식적인 생활 태도란 늘 손해만 갖고 온다는 새 상식을 얻었습니다.

인전에서 근무할 때의 일(상식이 통하지 않았던 삶의 구체적 사례)입니다. 여름에 하도 무덥기에 해수욕장에 나왔습니다. 별거벗은 여자들의 알몸을 밀짚모자 밑으로 감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쪽 바위 밑에 옷을 입은 채 기어들어 가는 젊은 여자를 보았습니다. 물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틀림없는 자살입니다. 밀짚모자를 내던지고 달려가 그 여자를 끌어냈습니다. 얼굴도 예쁜데 왜 자살을 하려고 했는지, 모래 위에 끌

어내서 살렸더니 그 여자는 고맙다는 말 대신에 저의 뺨을 갈겼습니다. — 그러니까 경찰은 저를 파출소로 연행하더군요.

이 사회에선 저의 상식이 통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인식) 저는 이제부터 새 상식을 배우렵니다. 물에 빠진 놈에겐 돌을 안겨 줘야 되겠습니다. 자리를 양보하느니 발로 걷어차 길을 터야겠습니다.(새 상식에 따른 행동) 즉 기존 상식을 거부하는 겁니다. 우선 새 상식을 회사에서 한 번 실험해 보았습니다.

<중략>

사장: 배 과장이 쓰는 돈을 잘 알아두도록 해.(상범의 말을 듣고 배영민 과장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장)

상범: 네, 계산을 해 놓겠습니다.

사장: 그 다방에 있는 여자(배 과장이 돈 5천 원을 들고 다방에 여자를 만나러 갔다고 보고한 상범)가 술집 여자인가?

상범: 모르겠습니다. 하기가.....

사장: 하기가.....?

상범: 배 과장님이 약주를 참 좋아하십니다. 점심때도 가끔 한 잔씩 하시긴 합니다.

사장: 회사의 돈을 맡고 있는 사람이.....!

상범: 사장님, 저..... 제가 이런 말씀을 올렸다고..... 저는 사장님을 존경하고..... 회사의 발전을 무엇보다도 기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교회에서 사장님의 지도를 받고.....

사장: 알았어. 자네의 심정은 이해할 수 있네. 잘 해 보도록 해.

(사장이 엽총을 들고 들어간다. 잠시 후 배영민이 들어온다.)

영민: 무슨 일 없었나?

상범: 아뇨.

(영민이 자기 주머니에 담배를 찾고 있음을 본 상범이 재빨리 티테이블에 있는 담배를 집어 영민에게 주고 라이터를 켜 불을 붙여 준다.)

영민: 사장님은?

상범: 계시는 모양입니다.

영민: 아, 이거 여편네 성화에 못살겠군! 여편네 친구가 갑자기 맹장염에 걸려 입원했는데 오전 원을 좀 빌려 달라는 거야. (영민이 5천 원을 들고 다방으로 간 이유)

상범: 그럼..... 아까 다방에서 전화하신 분이..... 사모님이신가요?(영민이 다방에서 만난 여인은 영민의 아내임.)

영민: 그래. 여편네들이 자꾸 남편의 직장까지 찾아오면 곤란해. 재수가 없어, 재수가!

상범: (관객에게) 네, 재수가 없죠. 재수가 없습니다. 그 후 한 달 있다가 경리 과장(배영민)은 강원도 지사로 발령을 받아 진출(새 상식에 따른 상범의 희생양)했고, 저는 경리 과장이 되었습디다.(새 상식에 따른 결과) 회사에서는 저의 출세가 이렇게 빠른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아는 상식을 버리고 새 상식에 의해 행동한 첫 효과였습니다. 제가 할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사장의 며느리요, 과부요, 또한 비서인 성아미와 박 전무의 관계를 적당히 이용(성아미와 박 전무의 불륜을 자신의 출세에 이용하려 하는 상범)하는 겁니다. 이리

하여 모든 가능한 출세의 문을 내 손으로, 내 이 두 발로 짓히고 차서 활짝 여는 겁니다.
- 「국물 있습니다」

(가) 묘비명

▣ 핵심 정리

- 갈래: 자유시, 서정시
- 성격: 비판적, 풍자적, 반어적
- 주제: 정신적 가치가 경시되는 현실 비판
- 특징
 - 대립적 소재의 사용으로 주제를 강조함
 - 정신적 가치가 경시되는 현실을 반어적으로 표현하여 풍자함

▣ 이해와 감상

이 시는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가 중시되는 사회 속에서 정신적 가치가 경시되는 현상을 풍자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화자는 정신적 가치를 추구해야 할 사람들마저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가치에 종속된 현실을 비판하며 각성을 촉구한다고 볼 수 있다.

(나) 국물 있습니다.

▣ 핵심 정리

- 갈래: 서사극, 희곡
- 성격: 비판적, 풍자적
- 주제: 부조리한 현대 사회에 대한 풍자
- 특징
 - 서술적 화자를 등장시켜 극을 이끌어 감
 - 당대 사회의 부정적 가치관을 반어적인 어법을 통해 비판함

▣ 전체 줄거리

주인공 김상범은 성실하고 정직한 사회인으로 순heim 보는 삶을 살아왔다. 우연한 방법으로 회사 사장의 눈에 들어 출세할 방법을 깨닫게 된 상범은 상사인 경리과장을 모함하여 그를 쫓아내고 자신이 그 자리로 승진한다. 또한 사장의 며느리이자 비서인 성아미가 박 전무와 불륜 관계이며 회사 공금을 유용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를 이용해 성아미를 협박하여 결혼하기로 한다. 건달을 매수하여 강도 짓을 시킨 상범은 그 강도를 잡아 죽임으로써 자신이 강도를 잡은 것처럼 조작하고, 이 공을 인정받아 서울 시민의 영웅이 되며 회사에서 상무로 승진한다. 성아미와 신혼여행을 떠난 상범은 그녀가 임신 사실을 고백하자 개의치 않아 하지만, 한편으로 허전함을 느낀다. 반면, 대학교수의 자리를 포기하고 초등학교를 가르치는 교사가 된 상범의 형, 열심히 공부해서 입사 시험에 합격한 상범의 동생은 행복한 생활을 한다.

▣ 이해와 감상

이근삼의 「국물 있습니다」는 한 청년의 출세기를 통해 배금주의 풍조를 아이러니하게 그려낸 작품이다. 「국물도 없다」는 표현을 반어적으로 활용하여 수단을 가리지 않고 성공을 향해 전진하는 인간상을 서사극적 요소로 다루며 풍자 효과를 냈다. 이 작품은 산업화 시대의 출세주의와 배금주의를 풍자하고, 어리숙하지만 정직한 주인공이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 어떻게 변해 가는지를 희극적인 언어로 그려낸다. 상범이 결혼 상대자를 빼앗겼다는 사건과 자

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새로운 상식에 맞춰 살기로 한 내용도 특징적이다.

22. <답> ④

<정답 풀이>

‘불의 뜨거움 곳곳이 견디며’의 주체는 ‘묘비’이므로, 시 속에서의 ‘묘비’가 긍정적으로 그려진 것인지 부정적인 것으로 그려져 있는지 파악하면 된다. 1~6행의 내용에 의하면 이 묘비는 ‘한 줄의 시는 커녕 / 단 한 권의 소설도 읽은 바 없이’,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며 / 많은 돈을 벌었고 /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이다. 여기서 ‘시’와 ‘소설’은 정신적 가치를 상징하고, ‘그’는 어떠한 정신적 가치도 추구한 적이 없는 인물, 돈과 출세만을 좇은 부정적 인물이다. 따라서 ‘그를 기리는 묘비명’은 사실과는 거리가 먼 허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비석(묘비)’은 당초 ‘귀중한 사료’가 될 가치가 없는 것이고, 전혀 훌륭할 수가 없는 것이다. 결국 이 시는 물질적 가치가 정신적 가치를 지배하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곳곳이’를 ‘자신이 처한 시련의 상황과 당당하게 맞서려는 화자의 의지가 매우 강렬함을 드러내 준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시’와 ‘소설’을 정신적 가치를 상징하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볼 때, ‘한 줄의’와 ‘단 한 권의’라는 시어에 의해 ‘그’는 오로지 물질적 가치만을 좇은 세속적 인물로 그려져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1~6행의 내용에 의하면 이 묘비의 주인은 ‘한 줄의 시는 커녕 / 단 한 권의 소설도 읽은 바 없이’,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며 / 많은 돈을 벌었고 /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이다. 여기서 ‘시’와 ‘소설’은 정신적 가치를 상징하고, ‘그’는 어떠한 정신적 가치도 추구한 적이 없는 인물, 돈과 출세만을 좇은 부정적 인물이다.
- ③ ‘비석(묘비)’은 당초 ‘귀중한 사료’가 될 가치가 없는 것이고, 전혀 훌륭할 수가 없는 것이다.
- ⑤ 이 시의 13~14행에서는 한평생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며 살았던 ‘그’의 삶을 미화한, 거짓된 역사의 기록물을 만들어내는 현실에 대해 개탄하고 있다. 또한 그러한 일을 실행한 ‘시인’의 태도, 증언의 기록이라는 역할을 잃어버린 ‘역사’라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23. <답> ①

<정답 풀이>

[A]의 ‘한평생’과 ‘훌륭한 비석’을 남겼다’는, [A] 부분이 ‘그’의 삶을 압축하여 드러낸 것임을 단적으로 말해 준다.

<오답 풀이>

- ② [B]는 ‘상범’이 과거에 겪었던 개인적 경험을 말한 것이므로, ‘한 사람의 삶의 태도를 일반화하여 보편적인 것으로 제시하였다.’라고 할 수 없다.
- ③ [A]에서는 ‘훌륭한 비석’이라는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을 풍자하고 있다. [B]의 경우는 대상을 ‘여자’로 보면, 화자(상범)가 대상을 비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④ [A]의 상황을 화자가 생각한 가상의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 [B]의 경우는 화자가 겪은 실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 ⑤ [B]에서는 비유적 표현이 전혀 쓰이지 않았다.

24. <답> ④

<정답 풀이>

(나)에서 '사장'의 인물됨은 직접 드러나지 않지만, 그는 상범의 말을 신뢰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상범은 그러한 사장에게 배 과장의 일을 교묘하게 고자질하여 그를 지방으로 쫓겨 가게 만든다. 따라서 '사장'이 '배 과장'을 지방으로 전출시킨 것은 양심의 소리를 행동으로 실천한 결과라고 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정신적 가치의 상징적인 실천자인 '유명한 문인'이 한평생 물질적 가치만을 좇아 살았던 '그'의 묘비명을 미화하여 작성했다는 것은 아이러니이다. 그 행위는 위선의 삶을 거짓으로 미화한 것이기에, 예술가로서의 윤리성을 돈에 팔아버린 것이라고 비판받아 마땅하다. 결국 '유명한 문인'은 물질적 가치에 굴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② '그'의 '묘비'는 부정적 인물의 삶을 미화한 결과물로, 이를 '귀중한 사료'라고 한 것은 반어적 표현에 해당한다.

③ (가)에서 '시'와 '소설'은 정신적 가치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려져 있는데, 정신적 가치의 상징적인 실천자인 '유명한 문인'이 한평생 물질적 가치만을 좇아 살았던 '그'의 묘비명을 미화하여 작성했다는 것은 아이러니이다. 그 행위는 위선의 삶을 거짓으로 미화한 것이기에, 예술가로서의 윤리성을 돈에 팔아버린 것이라고 비판 받아 마땅하다. 결국 '유명한 문인'은 물질적 가치에 굴복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⑤ (나)에서 '배우고 믿어 왔던 상식적인 생활은 저에게 손해만 끼쳐 왔습니다.'라고 생각한 상범은 어느 순간 '물에 빠진 놈에겐 돌을 안겨 줘야'겠다는, '자리를 양보하느니 발로 걷어차 길을 터야'겠다는 그릇된 가치관(작품 속에서는 '새 상식'으로 표현됨)을 갖게 된다. 자신의 출세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로 변신하게 되는 것이다.

25. <답> ③

<정답 풀이>

'상범'이 '결혼 상대자를 빼앗긴데다가 아버지 환갑 잔치 비용도 내가 주선해야만 하는 팔자입니다.'라고 말한 데서 '상범' 역시 '박용자'를 결혼 상대자로 점찍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아주머니 될 사람은 어떤 여자예요?'라는 자신의 물음에 '상학'이 '박용자'라고 대답하자 '상범'은 말을 더듬으며 당혹감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즉각 반감을 보이지는 않는다. '저요? 아니요..... 아니요.'라는 발언은 반감의 표현이 아니라 자신의 속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은 마음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상범'이 '모르겠습니다. 하기가야.....'라며 말끝을 흐리자 이내 '사장'이 '하기가야.....?'라며 캐묻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상범'이 '배 과장님이 약주를 참 좋아하십니다. 점심때도 가끔한 잔씩 하시긴 합니다.'라고 말하자 '사장'이 이내 '회사의 돈을 맡고 있는 사람이.....!'라고 반응하는 데서 알 수 있다.

④ '상학'이 '박용자'와의 결혼 얘기가 다 뻘뻘하며, 그간의 교제를 언급하자 '상범'은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충격을 받고 억울함을 표하는 데서 알 수 있다.

⑤ '상범'이 '사장님, 저..... 제가 이런 말씀을 올렸다고..... 저는 사장님을 존경하고..... 회사의 발전을 무엇보다도 기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교회에서 사장님의 지도를 받고.....'라고 말한 내용과 그 어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6. <답> ⑤

<정답 풀이>

ㄱ. '국물 있습니다'에서 '국물'은 <보기>에 제시된 대로 '어떤 일의 대가로 다소나마 생기는 이득이나 부수입을 속되게 이르는' 속어이다.

ㄷ. 보통의 관용적 표현에서는 '국물도 없다'라고 표현하여 '돌아오는 뭇이나 이득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이를 '국물 있습니다'라고 반어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이해심 많고 선량했던 주인공 상범이 주변의 인물들에 의해 거듭 피해를 본다고 느끼게 되면서 비정한 인물로 변신해 가는 과정을 통해, 배금주의에 젖어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수단이나 방법을 가리지 않는 당시의 사회상을 풍자적으로 비판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ㄹ. '국물 있습니다'라는 제목에는 '새 상식'에 따라 남을 희생시켜 가며 자신의 이익을 좇는 상범의 삶에 대한 냉소가 담겨 있다.

<오답 풀이>

ㄴ. (나)에서는 타인에 대한 무관심과 단절된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27. <답> ④

<정답 풀이>

[C] 부분은 주인공 '상범'이 직접 관객과의 소통을 시도하는 내용으로, 지나간 사건의 내용을 요약하여 전달('그 후 한 달 있다가 경리 과장은 ~ 저는 경리 과장이 되었습니다.')해 주는 한편, 이후 전개될 사건의 흐름을 알려 준다('제가 할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 내 이 두 발로 짓히고 차서 활짝 여는 겁니다.'). 실제로 극중에서도 이 내용대로 사건이 전개된다.

<오답 풀이>

① [C]에서 과거 회상을 통해 관객의 공감을 유발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② [C]에서 갈등 해소의 기미는 나타나지 않는다.

③ [C]에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⑤ [C]에서 경리 과장이 좌천되고 상범이 경리 과장이 된 무대 밖의 사건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극의 흐름을 바꾸어 주지는 않는다.

[28~31] 문학-고전소설

[지문 분석]

[앞부분의 줄거리] 남원에 사는 노총각 양생은 어느 날 만복사의 불당에서 아름다운 배필을 중매해 달라(양생이 부처님께 원하는 것)는 내기를 걸고 부처님께 저포 놀이를 청해 이긴다. 양생이 불좌 밑에 숨어서 배필이 될 여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릴 때 문득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나 부처님 앞에서 자신의 외로운 신세를 하소연하면서 좋은 배필을 점지해 달라고 기원(양생과 마찬가지로 인연을 찾고자 함)하였다. 이를 본 양생이 그 여인 앞으로 뛰어나가 회포를 말하고 두 사람은 서로 정을 느껴 하루를 같이 보내게 되었다.

둘이 읍고 한바탕 웃은 다음에 함께 개령동(開寧洞)으로 갔다. 한 곳에 이르자 다복썩이 들을 덮고 가시나무가 하늘로 치솟은 가운데(신비로운 분위기) 집 한 채가 있었는데, 작으면서도 아주 아름다웠다.

그는 여인이 이끄는 대로 따라 들어갔다. 방 안에는 이부자리와 휘장이 잘 정돈되어 있었다. 밥상을 올리는 것도 어젯밤 만복사에 차려 온 것과 같았다. 양생은 그곳에서 사흘을 머물렀는데, 즐거움이 평상시와 같았다.

시녀는 아름다우면서도 교활하지 않았고, 그릇은 깨끗하면서도 무늬가 없었다. **인간세계의 것이 아니라고(여인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여인의 은근한 정에 마음이 끌려, 다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

(중략)

술이 다하여 헤어지게 되자, 여인이 **은그릇 하나(여인과 양생과의 관계를 증명해 주는 역할을 함)**를 내어 양생에게 주면서 말하였다.

“내일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위하여 보련사에서 음식을 베풀 것입니다.(앞일을 알고 있는 여인) 당신이 저를 버리지 않으시려면, 보련사로 가는 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저와 함께 절로 가서 부모님을 뵙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양생이 대답하였다.

“그러겠소.”

이튿날 양생은 여인의 말대로 은그릇 하나를 들고 보련사로 가는 길가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말 어떤 귀족 집안에서 딸자식의 대상(大祥)*을 치르려고 수레와 말을 길에 늘어세우고서 보련사로 올라가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길가에 은그릇을 들고 서 있는 양생을 보고는 하인이 주인에게 말하였다.

“아까씨 장례 때 무덤 속에 묻은 그릇을 어떤 사람이 훔쳐 가지고 있습니다.”(양생을 의심하는 하인)

주인이 말하였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인이 말하였다.

“저 서생이 가지고 있는 은그릇을 보고 드린 말씀입니다.”

주인이 마침내 말을 멈추고 양생에게 은그릇을 얻게 된 사연을 물었다. 양생이 전날 여인과 약속한 그대로 대답하였더니, 여인의 부모가 놀라며 의아스럽게 여기다가 한참 뒤에 말하였다.

“내 슬하에 오직 딸자식 하나가 있었는데 **왜구의 난리를 만나 싸움판에서 죽었다네.(여인이 겪은 일과 여인의 실체를 알 수 있는 부분)** 미처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개령사 곁에 임시로 묻어 두고는 이래저래 미루어 오다가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오늘이 벌써 대상 날이라, 재나 올려 명복을 빌어 줄까 한다네. 자네가 정말 **그 약속(보련사로 가는 길에서 만나 함께 절로 가 여인의 부모를 뵙자는 약속)**대로 하려거든, 내 딸자식을 기다리고 있다가 같이 오게나. 놀라지는 말게나.”

귀족은 말을 마치고 먼저 떠났다. 양생은 우두커니 서서 여인이 오기를 기다렸다. 약속하였던 시간이 되자 과연 한 여인이 계집종을 데리고 허리를 간들거리며 오는데, 바로 그 여인이었다. **그들은 서로 기뻐하면서 손을 잡고 절로 향하였다.(양생과 여인의 재회)**

여인은 절 문에 들어서자 먼저 부처에게 예를 드리고 곧 흰 휘장 안으로 들어갔다. 여인의 친척과 절의 스님들은 모두 양생이 전하는 말을 믿지 못했고, **여인은 오직 양생에게만 보였다.(비현실적외 홀로 소통하는 양생)** 그 여인이 양생에게 말하였다.

“함께 저녁이나 드시지요.”

양생이 여인의 부모에게 그 말을 알리자, 여인의 부모가 시험해 보려고 같이 밥을 먹게 하였다. 그랬더니 여인의 얼굴은 보이지 않으면서 **수저 놀리는 소리만 들렸는데.(여인이 함께 자리하고 있**

음이 증명됨.) 인간이 식사하는 것과 한가지였다. 그제야 여인의 부모가 놀라 탄식하면서, 양생에게 권하여 휘장 옆에서 같이 잠자게 하였다. 한밤중에 말소리가 낭랑하게 들려서 사람들이 가만히 엿들으려 하자 갑자기 말소리가 끊어졌다.

여인이 양생에게 말하였다.

“이제는 당신께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제 행동이 법도에 벗어난다는 것(부모의 허락 없이 남자와 연을 맺은 것)**을 저 스스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시서(詩書)를 읽었으므로 예의에 대해서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시경’에서 말한 건상*과 상서* 두 장의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오랫동안 들관 다복씩 속에 묻혀서 버림받은 몸이 되고 보니 한번 일어난 정회를 견디지 못하여 **박명(일찍 죽음)**을 탄식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뜻밖에도 **산세의 인연을 만나게 되었으므로(양생과의 만남을 의미)** 백 년의 높은 절개를 바쳐 술을 빚고 옷을 기워 평생 지어미의 길을 닦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애달프게도 **속명적인 이별을 어길 수가 없 사육기에(정해진 운명에 순응하는 태도)** 한시 바빠 저승길을 떠나야 합니다. 운우는 양대*에서 개고 오작은 은하에 흩어지매 이제 하직하면 훗날을 기약할 수 없사오니, 헤어짐에 임하여 아득한 정회를 무어라 말씀드릴 수 있겠나이까?”

사람들이 여인의 영혼을 전송하자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혼이 문밖을 나가자 소리만 은은하게 들려왔다.

저승길이 바쁜 고로 괴로운 이별하건마는

바라건대 임이시여 저버린진 마음소서.

애달파라 어머니여! 슬프도다 아버지여!

고운 임 여의는 내 신세를 어이할꼬.

아득한 저승에서 원한만이 맺히리다.

남은 소리가 차츰 가늘어지더니 목메어 우는 소리와 분별할 수 없게 되었다. 여인의 부모는 그제야 그동안 있었던 일이 사실인 것을 알고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양생 또한 여인이 귀신인 것을 알고는 더욱 슬퍼, 여인의 부모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울었다.

여인의 부모가 양생에게 말하였다.

“은그릇은 자네가 쓰고 싶은 대로 맡기겠네.(양생에 대한 신의의 증표) 또 내 딸자식 몫으로 밥 몇 마지기와 노비 몇 사람이 있으니, 자네는 이것을 신표로 하여 내 딸자식을 잊지 말게나.(딸과 양생과의 관계를 인정함.)”

이튿날 양생이 고기와 술을 마련하여 개령동 옛 자취를 찾았더니, 과연 시체를 임시로 묻어 둔 곳이 있었다. 양생이 제물을 차려 놓고 슬피 울며 그 앞에서 지전을 불사르고 정식으로 장례를 치러 준 뒤에 제문을 지어 위로하였다.

— 김시습, 「만복사저포기」

- * 대상: 사람이 죽은 지 두 돌 만에 지내는 제사.
- * 건상: 『시경』 정풍(鄭風)의 시편. 음탕한 여인이 남자를 유혹하는 내용임.
- * 상서: 『시경』 용풍(邕風)의 시편. 무례한 사람을 풍자하는 내용임.
- * 양대: 중국 사천성 무산현 동쪽에 있는 양대산을 말한다. 옛이야기에 무산의 선녀가 초나라 양왕을 모신 뒤에 떠나며 “아침에는 구름이 되었다가 저녁에는 비가 되어 아침저녁으로 양대 아래 있습니다.”라고 했다고 함.

■ 핵심 정리

- 갈래: 한문 소설, 전기(傳奇) 소설, 명혼(冥婚) 소설
- 성격: 전기적(傳奇的), 낭만적, 비극적, 환상적
- 주제: 삶과 죽음을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
- 특징
 - 불교의 연(緣) 사상과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함.
 - 시를 삽입하여 인물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함.

■ 전체 줄거리

전라도 남원에서 외롭게 살던 양생은 짝이 없어 슬퍼하다가 만복사의 불상과 저포 놀이를 하며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해 달라고 기도한다. 잠시 후 아름다운 한 여인이 나타나 자신의 한스러운 사연과 운명적 인연과의 만남을 위한 기원을 담은 축원문을 불상 앞에 바친다. 양생과 여인은 인연을 맺고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며칠 후 여인은 양생에게 은그릇을 주며 재회를 기약하고 헤어진다. 다음 날 양생은 여인이 말한 대로 딸의 대상을 치르기 위해 보련사로 가는 여인의 부모를 만나게 된다. 양생은 여인의 부모로부터 여인이 왜구의 침입 때 죽은 원귀임을 알게 되고, 양생과 여인은 절에서 재회한 뒤 운명에 따라 이별한다. 그 후 양생은 지리산에 들어가 약초를 캐며 지냈는데, 이후 양생이 어떻게 생을 마쳤는지 아무도 모른다.

■ 이해와 감상

‘만복사저포기’는 생사를 초월한 사랑을 다룬 전기(傳奇) 소설로, 비현실적이고 몽환적인 분위기를 띠고 있다. 이 작품은 ‘이승 사람과 저승 영혼의 만남 - 사랑 - 이별 - 이승 사람의 탈속(脫俗)’의 구조로 되어 있고, 불교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즉, 자신의 외로운 처지를 한탄하며 배필을 접지해 달라고 부처님께 기도하는 발원(發願) 사상, 죽은 이의 명복을 빌며 재를 올리는 의식, 죽은 여인이 남자로 환생한다는 윤회(輪廻) 사상 등이 담겨 있다. 한편 ‘만복사저포기’는 작가의 삶과 관련지어 해석되기도 한다. 김시습이 일찍 부모를 여의고 외가에서 자란 것이나, 불도(佛道)에 심취하여 승려가 된 것은 양생의 삶과 흡사하다. 그리고 여인이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정조(貞操)를 지키려고 했던 것은 왕위를 찬탈한 세조에게 지조를 팔지 않고 단종에게 충성을 바치려고 한 김시습의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양생과 여인의 생사를 초월한 사랑은 부당한 세계의 횡포에 맞서고 이를 고발하고자 하는 작가 의식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28. <답> ⑤

<정답 풀이>

여인의 부모가 은그릇을 들고 있던 양생에게 여인이 왜구에게 목숨을 잃고 개령사 옆에 묻힌 사연을 전달하고 있으며, 여인 역시 자신이 법도를 아는 여인임을, 그리고 죽어 묻혀 있다 절에 가서 양생을 만나게 된 사연을 양생에게 말로써 전달하고 있다. 이를 볼 때, 인물들의 대화가 이들이 과거에 겪은 사건을 압축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은 양생이 여인을 만나 개령동에서 같이 시간을 보낸 후 보련사로 와서 여인의 부모를 만나고, 여인을 떠나보낸 후 다시 개령동으로 돌아오는 구조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는 시간의 순서와 일치되므로 역순행적 구조로 볼 수 없다.

②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슬프고 한스러운 사연을 지니고 있기에 이들을 형상화하는 데 있어 해학적 표현이 사용되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일반적인 고전 소설들처럼 이 작품 역시 전지적 시선을 지닌 서술자에 의해 사건이 서술되고 있다.

④ 이 지문에서 등장인물들은 서로에 대한 애절한 사랑과 연민을 보여 주고 있을 뿐 갈등이나 대립은 나타나지 않는다.

29. <답> ②

<정답 풀이>

‘보련사’는 현실계의 인물인 양생과 여인의 부모, 그리고 초월적 세계의 인물인 여인이 만나는 공간으로, 그 공간에서 벌어지는 사건 자체는 비현실적이지만, 공간 자체는 실재하는 것이므로 현실적 세계이지 초월적 세계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양생은 살아 있는 ‘인간’이고, 여인은 이미 죽은 ‘귀신’이므로 양생은 현실적 세계의 인물로, 여인은 초월적 세계의 인물로 판단할 수 있다.

③ 여인과 함께 간 개령동은 비현실적 공간이고, 나중에 양생이 찾아간 개령동은 현실적 공간으로 이와 같이 현실과 비현실을 넘나드는 것은 곧 사건 전개에 변화 폭을 보여 주는 것이다.

④ 왜구에 의해 여인이 희생되었다는 것을 통해 당대인들이 왜구의 침범으로 고초를 겪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⑤ ‘사랑’은 인간이 지닌 본질적이고 고유한 욕구로 이 작품에서 다루고자 하는 인간의 본질적 욕망을 구체화한 것이다.

30. <답> ②

<정답 풀이>

여인이 양생에게 ‘은그릇’을 준 것은 양생이 여인의 부모님을 만나게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고, 실제 이를 매개로 양생이 부모님과 만나게 되므로, ㉠은 만남의 매개물로 볼 수 있다. 또한 여인의 부모가 양생에게 ‘은그릇’을 주는 것은 죽은 딸이 섬김 사람으로서 양생을 인정하는 ‘신의’의 증표로서 기능함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은 기능상 양생과 부모를 만나게 하는데, 이는 ‘은그릇’이 여인의 분신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후반부에 양생과 여인의 부모 모두 여인이 죽은 것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을 ‘재회’를 위한 신호로 보기는 어렵다.

③ ㉠을 여인의 부모가 자신의 딸을 사랑한 양생에게 보이는 ‘애정’의 증표로 볼 수도 있지만 ㉠을 ‘수고’의 대가로 보는 데는 무리가 있다.

④ ㉠은 ‘선물’의 의미보다는 이후의 사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여인의 ‘의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은 이별의 상황에서 신의를 보여 주는 것이지 그 자체가 이별을 매개하는 것은 아니다.

⑤ ㉠은 양생에게 주는 선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은 신분 상승과 전혀 관계가 없다.

31. <답> ⑤

<정답 풀이>

[A]와 [B]에 모두 훗날의 만남에 대한 기약이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A]에서 ‘애달프게도 숙명적인 이별을 어길 수가 없사옵기에

한시 바빠 저승길을 떠나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B]에서도 '저승길이 바른 고로 괴로운 이별하건마는'에서 이별을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A]에서 '너무 오랫동안 들판 다복죽 속에 묻혀서 버림받은 몸이 되고 보니 한번 일어난 정회를 걸잡지 못하여 박명을 탄식하였습니다.' 등에 과거에 대한 회고가 나타나 있다. [B]에는 이별에 처한 현재의 슬픈 마음이 나타나 있으며 과거에 대한 회고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③ [A]에는 '백 년의 높은 절개를 바쳐 술을 빚고 옷을 기워 평생 지어미의 길을 닦으려 하였습니다.'라고 하여 이루지 못한 소망의 내용을 드러내고 있다. [B]에는 이루지 못한 소망의 구체적인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A]에는 남은 이에 대한 당부는 나타나 있지 않다. [B]는 '바라건대 임이시여 저버리진 마옵소서.'에 양생에 대한 당부가 나타나 있다.

[32~34] 문학-고전문

[지문 분석]

(가)
 내 **넙(고려 왕 의종)**을 그리워하여 우니다니
 산(山) **접동새(감정 이입의 대상)** 난 이숫하요이다
아니시며(모함이 사실이 아니며) 거즈르신달* 아으
 잔월효성(殘月曉星)이 알으시리이다
넙이라도 넙은 한데 너저라(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충정)) 아으
벼기더시니(모함하던 이) 뉘러시니잇가
과(過)도 허물도 천만(千萬) 업소이다(자신의 결백을 주장)
 말히 마리신저*
 살웃븐저* 아으
넙이 나를 하마 있으시니잇가(임에 대한 원망의 정서가 드러남)
아소 넙하, 도람 들으샤 괴오소서(임의 사랑을 바라는 화자)
 - 정서, 「정과정」
 * 아니시며 거즈르신달: 사실이 아니며 거짓인 줄.
 * 말히 마리신저: 못사람들의 참조하는 말입니다.
 * 살웃븐저: 슬프구나.

(나)
 늘그막에 산수 구경 늙은 줄 알건마는
평생 품은 뜻(자연 속에서의 삶) 이루고야 말라 여겨
병자년 봄(시간적·계절적 배경 제시)에 춘복을 새로 입고
 죽장 망혜로 **노계(공간적 배경)** 깊은 골에 행여 마침 찾아오니
 제일 강산이 입자 없이 버려 있네.
 예로부터 **은사(隱士), 처사(處士)(벼슬을 하지 않고 숨어 살던 선비)** 많이도 있건마는
 천지가 감춤텐다 나를 주려 남겼도다.
 오래도록 주저하다 석양이 거인 적에
 저 높은 언덕 올라 사방을 돌아보니
현무 주작과 좌우 용호(노계에서의 경치를 사신(四神)에 비유)
 도 그런 듯이 갖췄구나.
 산줄기 끝난 곳 바람 가린 남향에
 푸른 덩굴 헤치고 **몇 칸의 작은 집(노계에 거처를 마련한 화자)**을
배산임수(背山臨水)(뒤로는 산을 등지고 앞으로는 물가를 면하고 있는 곳)하여 오류변에 지어 두고,

가던 용이 머무는 듯 천길 절벽이
 강두에 들렀거늘 초가집 한 두 칸을
 구름 낀 긴 술 아래 바위 위에 지어내니
천태만상(千態萬象)(온갖 사물의 모습이 제각기 다름)이 아마도
 기이하다.
 봉우리는 수려하여 부춘산(富春山)이 되었고
 물은 굽이 흘러 칠리탄(七里灘)이 되었거든
 십리의 모래밭은 **삼월의 눈(모래밭을 눈밭에 비유)**이 되었도다.
 이 호산 형승은 견줄 데 전혀 없네.
소부 허유(수양산 속에서 절개를 지키다 죽은 고사 속 인물)도
 아니어서 어찌 절의(節義) 알까마는
 다행히도 우연히 이 명승지 임자 되어
 청산유수와 명월청풍도 말없이 절로절로,
 어지러운 갈매기와 수많은 사슴도 값없이 절로절로,
 저익* 갈던 묵은 밭과 업자릉*의 조대도 값없이 절로절로
 산중 온갖 것들 다 절로 내 것 되니
자랑이 돌이요, 저익이 셋이로다.(고사 속 인물들과 화자 자신을 동일시)
이즈버(감탄사) 이 몸이 아마도 괴이하다.
 입산 당년에 은군자 되었는데.
 <중략>
 술동이의 맑은 술을 술잔에 가득 부어
 한잔, 또 한잔 취토록 먹은 후에,
도화(복숭아꽃)는 붉은 비 되어(색채 이미지의 사용) 취한 낮에
 뿌리는데
 뉘시터 넓은 돌을 높이 베고 누우니
무회씨 때 사람인가, 갑천씨 때 백성인가.(도연명의 시 구절을 인용)
 태평성대를 다시 보는가 생각노라.
[이 힘이 뉘 힘인가. 성은(聖恩)이 아니신가. **]**([]: 자문자답의 방법 사용. 충(忠)과 관련된 유교 사상)
 강호에 물러난들 **임금 걱정이야 어느 때에 있을까.(설의적 표현)**
 때때로 머리 들어 북극성을 바라보고
 남모르는 눈물을 하늘 끝에서 흘리도다.
 일생에 품은 뜻을 비웁니다. 하느님이여.
[마르고 닳도록 우리 임금 만세를 누리소서.
 태평한 세상에 삼대일월(三代日月) 비추소서.
 영원무궁토록 전란을 없애소서.
 밭 갈고 썸 파서 격양가를 부르게 하소서. **]**([]: 화자가 평생에 품은 뜻. 우국충정(憂國衷情))
 이 몸은 이 강산풍월(江山風月)에 늙을 줄을 모르도다.
 - 박인로, 「노계가」
 * 저익: 장지와 걸익. 중국 춘추시대 때 나란히 밭을 갈며 숨어 산 은사들.
 * 업자릉: 중국 후한 때 부춘산에 몸을 숨기고 칠리탄에서 뉘시하며 일생을 마친 인물.

(가) 정서-정과정
 ■ 핵심 정리
 ■ 갈래: 향가계 고려 가요
 ■ 성격: 충신연주지사(忠臣戀主之詞)

- 주제: 임금을 향한 변함없는 충정과 자신의 결백 주장
- 특징
 - 10구체 향가의 전통을 잇는 3단 구성을 사용함.
 - 충신연주지사의 원류격의 작품임.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고려 의종 때의 문인 정서가 귀양지인 동래에서 임금의 소환을 기다리다가 소식(消息)이 없자, 자신의 결백을 밝히고 선처를 청하기 위해 지은 작품이다. 유배지에서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하는 정을 애절하게 표현한 ‘충신연주지사(忠臣戀主之詞)’로서 국문으로 전하는 고려 가요 중 작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노래이다. 이 작품은 향찰로 표기되어 전해지는 ‘향가’는 아니지만, 형식면에서 볼 때 10구체 향가의 전통을 잇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0구체 향가와 달리 감탄사의 위치가 바뀌고, 내용상의 격조가 떨어지는 등 향가 해체기의 잔영이 보이고 있다. 이 작품은 시적 화자가 자신에 대한 참소(역모에 가담했다는 사실)가 거짓임을 역설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고 자신이 다시 등용되어 입을 모시고 싶노라는 충절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즉, 억울하며 원통한 심정과 이를 알리고자 하는 간절함, 임에 대한 충정의 심정 등 복합적인 정서가 작품에 나타나 있다. 임금을 그리워하며 울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자연물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결백 주장의 객관성을 획득하고 있다.

(나) 박인로-노계가

▣ 핵심 정리

- 갈래: 가사
- 성격: 한정적, 연군적
- 주제: 자연에서 즐기는 삶의 흥취와 우국 일념
- 특징
 -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자연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드러냄.
 - 화자 자신의 풍류와 임금을 걱정하는 연군지정이 드러남.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박인로가 76세 때 쓴 것으로, 박인로가 남긴 7편의 가사 가운데 가장 나중에 쓴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작품은 작가의 은거지인 노계의 아름다운 경치와 그곳에서의 생활을 통하여 자연에 몰입하는 주관적인 심회를 읊은 것이 중심 내용을 이룬다. 아울러 임진왜란을 직접 체험한 작가의 평화에 대한 염원도 절실하게 담겨 있다. 작품의 서두는 늙은 몸이 되어 평생소원이던 산수를 찾아드는 감회로 시작한다. 이어서 노계의 아름다운 경치를 찬미하고 그 속에서 자연을 즐기는 삶의 흥취와 의미를 노래하고 있다. 그러고는 강호 자연에 묻혀 태평스러운 생활을 누리는 것은 모두가 성은(聖恩) 때문이라는 것과 우국 일념을 잊지 않겠다는 충정도 덧붙이고 있다.

32. <답> ③

<정답 풀이>

(가)는 ‘아소 님하, 도람 들으샤 괴오소서’에서 확인할 수 있고, (나)는 ‘하느님이여, / 마르고 닳도록 우리 임금 만세를 누리소서. / 태평한 세상에 삼대일월(三代日月) 비추소서.’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① (가)에서는 설의적인 표현을 사용한 부분은 없고, (나)에서는 ‘성은이 아니신가’에서 설의적인 표현을 사용했으나 안타까움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② (나)에서는 ‘푸른 덩굴’의 색채 이미지를 통해 배경을 드러내고 있지만, (가)에서는 색채어를 활용한 부분이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가)에서는 ‘버기더시니 뉘러시니잇가 / 과(過)도 허물도 천만(千萬) 업소이다’에서 자문자답하고 있지만,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이므로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에서는 ‘이 힘이 뉘 힘인가. 성은(聖恩)이 아니신가.’에서 자문자답하고 있지만, 성은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⑤ (가)와 (나) 모두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시상을 전환하는 부분은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33. <답> ⑤

<정답 풀이>

‘저의 갈던 목은 밭과 업자릉의 조대도 값없이 절로절로 / 산중 온갖 것들 다 절로 내 것 되니 / 자룻이 들어요, 저익이 셋이로다.’에서 화자 자신을 포함하여 두 명의 업자릉과 세 명의 저익이 되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은군자’가 된 것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평생 품은 뜻 이루고야 말라 여겨 / 병자년 봄에 춘복을 새로 입고 / 죽장 망해로 노계 깊은 골에 행여 마침 찾아오니’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② ‘병자년 봄에 춘복을 새로 입고’, ‘십리의 모래밭은 삼월의 눈이 되었도다. / 이 호산 형승은 견줄 데 전혀 없네.’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③ ‘술동이의 맑은 술을 술잔에 가득 부어 / 한잔, 또 한잔 취토록 먹은 후에, / 도화는 붉은 비 되어 취한 낮에 뿌리는데 / 뉘시더 넓은 돌을 높이 베고 누우니 / 무회씨 때 사람인가. 갈철씨 때 백성인가. / 태평성대를 다시 보는가 생각노라.’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④ ‘강호에 물러난들 임금 걱정이야 어느 때에 잊을까. / 때때로 머리 들어 북극성을 바라보고 / 남모르는 눈물을 하늘 끝에서 흘리도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34. <답> ⑤

<정답 풀이>

(가)에서는 ‘님이 나를 하마 잊으시니잇가’라고 표현하여 원망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지만, [A]에서는 원망의 마음을 드러내는 부분은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가)의 ‘접동새’와 [A]의 ‘자규새’는 모두 한을 상징하는 소재로서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② (가)에서는 ‘과(過)도 허물도 천만(千萬) 업소이다’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하였고, [A]에서는 ‘응당 새벽달과 별만은 알리라’라고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③ (가)에서는 ‘넋이라도 님은 한테 녀져라 아오’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였고, [A]에서는 ‘매일같이 님 생각에 옷깃이 젖어 / 흡사

뫼산에 자규새 같네'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가)에서는 '잔월효성(殘月曉星)이 알으시리이다'라고 표현하고, [A]에서는 '응당 새벽달과 별만은 알리라'라고 표현하면서 '잔월효성'과 '새벽달과 별'에 기대어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화법과 작문

35	④	36	①	37	①	38	④	39	④
40	⑤	41	③	42	②	43	④	44	④
45	②	수고하셨습니다.							

[35~37] 화법
[지문 분석]

사회자: 지금부터 '고등학생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해야 하는가' (토론의 논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 토론자부터 발언해 주십시오.

찬성 1: 현재 투표권을 갖는 연령은 만 19세(현 상황 제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은 민주주의의 주권자로서의 자격을 얻지 못했습니다.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인 국민 주권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고등학생들도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 공동체의 주요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의사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투표권 연령을 낮추야 하는 것에 대한 찬성 측의 의견)이 우리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고등학생들은 투표권을 행사할 만큼 민주주의와 선거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사회적 통념 제시) 그러나 우리는 고등학생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지식 및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통념과는 다른 의견 제시) 따라서 선거권 부여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 것(찬성 측의 주장)은 그동안 소외되어 온 청소년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참여 의식을 기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 1: 찬성 측 주장 잘 들었습니다. 국민 주권의 원리를 충분히 구현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보장하자는 찬성 측 주장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상대의 의견에 일부 동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보장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보통선거 제도는 일정한 연령에 이르지 못한 국민에 대하여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보통선거 제도의 전제)을 당연한 전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일정한 연령에서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이 국민 주권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문제는 연령 제한의 기준입니다. 기준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것은 너무 과도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선거권 부여 연령을 현행대로 유지하여야 합니다.(논제에 대한 반대 측의 주장)

찬성 2: 우리도 갓난아기까지 투표권을 보장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 주권의 원리를 충분히 보장하는 방향(찬성 측의 방향성 제시)으로 기준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우리는 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정치 제도와 민주주의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을 갖춘 고등학생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반대 2: 국정 참여 수단으로서의 투표권 행사는 일정한 수준의 정치적인 판단 능력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고등학생들은 아직 미성숙하고 부모나 보호자에게 정치적인 판단을 의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판단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고등학생의 정치적 판단력에 대한 입장 차이) 미성숙하고 무책임한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학교 현장을 정치적인 논쟁으로 혼란에 빠뜨리게 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찬성 측과 반대 측의 발언을 모두 잘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두 가지의 쟁점이 도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입니다. 앞으로는 이 쟁점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앞으로의 토론 진행 방향을 제시)

■ 핵심 정리

- 갈래: 토론
- 성격: 설득적, 규칙적
- 주제: 고등학생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해야 하는가에 대한 찬반 논쟁
- 특징
 - 사회자에게 발언권을 얻어 정해진 규칙에 따라 자신들의 주장을 펼침

35. <답> ④

<정답 풀이>

찬성 측의 주장인 선거권 부여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자는 것과 관련된 사례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현재 투표권을 갖는 연령은 만 19세'라며 논제와 관련한 정보를 설명하고 있다.
- ② '고등학생들도 ~ 우리의 주장입니다.'에서 찬성 측의 입장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 ③ '그런데 고등학생들은 ~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⑤ '선거권 부여 연령을 ~ 생각합니다.'에서 찬성 측의 주장이 실현될 경우 기대되는 효과를 언급하고 있다.

36. <답> ①

<정답 풀이>

<보기>의 자료에서는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나이가 만 18세 이상임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투표라는 권리를 누리는 나이는 만 19세로 이보다 높다. 따라서 권리를 행하는 나이와 의무를 행하는 나이가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투표권을 가질 수 있는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②, ④ 제시된 자료를 통해서도 추론할 수 없는 내용이다.
- ③ 찬성 측의 주장을 살펴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자는 것이 아니라 국민 주권의 원리를 충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그 기준을 재설정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 ⑤ 반대 측은 고등학생은 아직 미성숙하다고 보고 있으므로, 반대 측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다.

37. <답> ①

고3

<정답 풀이>

- a. 쟁점이란 찬성 측과 반대 측이 토론에서 의견을 다투는 중심이 되는 점을 말한다. 찬성 측은 고등학생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지식 및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지만, 반대 측은 고등학생들은 미성숙하고 독자적인 판단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 b. 찬성 측은 고등학생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면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참여 의식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지만, 반대 측은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 c. 많은 사람들에게 선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찬성 측의 주장에 반대 측도 공감하고 있다.
- d. 찬성 측과 반대 측 모두 일정한 연령에서 선거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38~42] 화법과 작문

[지문 분석]

(가)
 환경 보전반 학생이 사연을 보내 주셨어요. **(목소리를 높이며)** **(준언어적 표현)** **우리 학교 학생들 모두(예상 청자)**가 고민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아서 읽어 드릴게요.

저는 매일 등교하자마자 쓰레기 처리장에서 각 학급에서 배출한 쓰레기를 분리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학교 앞에 음료수를 파는 가게가 생긴 후부터 **분리배출되지 않은 일회용 컵이 너무 많아 분리수거 하기가 진짜 힘들어요.**(문제 제기) 환경 보전반 애들이랑 얘기해 봤는데, 대부분 그만두고 싶대요. 무슨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나)
 학생 1: 오늘 점심 방송 사연 들었어?
 학생 2: 아, 환경 보전반 애가 보낸 사연?
 학생 3: 나도 듣고 점심시간에 우리 반 애들이랑 얘기해 봤는데, **다들 미안해하더라.**(방송을 들은 청중들의 반응)
 학생 1: **우리가 학생회니까(자신들의 보직이 무엇인지 환기)** 쓰레기 분리배출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학생 3: 작년에는 **캠페인(이전에 시행한 방식)**을 했었는데 별 효과가 없었잖아.
 학생 1: 캠페인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을 생각해 봐야지.
 학생 2: **학생회 차원에서 건의문을 써서 게시(해결 방안을 제시함)**하는 건 어때?
 학생 3: 어디에?
 학생 2: 학교 홈페이지에 해야지.
 학생 3: **홈페이지 접속하지 않는 애들이 많잖아.**(제시된 의견에 대한 문제 제기) **건의문을 직접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दान 제시)**이 좋을 것 같은데, 어때?
 학생 2: 그래, 그러자.
 학생 1: **분리배출되지 않은 일회용 컵이 가득한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교실에 붙여 놓는 건 어때?**(추가적인 의견 제시)
 학생 3: **(고개를 끄덕이며)**(비언어적 표현)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 주기 좋겠네.

학생 1: 건의문에는 어떤 내용을 써야 할까?
 학생 2: 일단 환경 보전반 학생들을 인터뷰하여 문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보고 그 내용에 대해 쓰자.
 학생 1: 그래. 환경 보전반 학생들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도 알게 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인터뷰의 목적)**도 있어.
 학생 3: **환경 보전반 학생들은 쓰레기를 분리하는 활동을 하면서 봉사시간을 부여받잖아.**(제시된 의견의 문제점 제기) 그 얘기는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
 학생 2: 나는 생각이 달라. 작년에 환경 보전반 활동을 했었는데, **냄새도 나고 힘든 일이라 봉사 정신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상대의 의견에 반박)
 학생 1: 맞아. 우리가 환경 보전반 학생들에게 빛을 지고 있지.
 학생 3: **(고개를 끄덕이며)**(상대의 의견에 동의함. 비언어적 표현) 그래, 그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자.
 학생 1: 건의문에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필요도 있어. **일회용 컵을 분리배출해야 하는지 아닌지를 헷갈려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학생들의 상황 반영)
 학생 2: 응. 그리고 쓰레기 분리배출이 우리들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말하자. 쓰레기 분리배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한 자료도 찾아 제시하고.
 학생 1: 그래. 추가로 제안할 거 있니?
 학생 3: 일회용 컵을 쓰지 말고 텀블러를 쓰자고 제안해 보자.
 학생 1: 그래, 환경을 위해서는 텀블러를 쓰는 게 더 좋을 수 있겠네.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해 건의문을 써 보자.

(다)
학생 여러분(예상 독자) 안녕하세요? 제42대 학생회입니다. 저희 학생회에서 각 교실에 부착해 놓은 **사진(시각 자료)**을 보셨나요? 일회용 음료 컵이 분리배출되지 않고 쓰레기 봉지에 가득한 사진이 충격적이지요?
 여러분께서도 최근 우리 학교의 점심 방송에서 환경 보전반 학생의 하소연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환경 보전반 학생들과 이야기해 보니, **매일 등교 후 30분 이상의 시간을 들여 쓰레기를 분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환경 보전반 학생들의 이야기를 간접 제시) 환경 보전반 학생들이 일주일에 2시간 이상 우리 학교 학생들을 위해 봉사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버리는 컵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친구들을 떠올리며 쓰레기 분리배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쓰레기 분리배출은 우리들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환경부의 자료에 따르면,(전문 기관의 자료를 인용한 후 출처를 밝혀 신뢰성을 높임.)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평생 동안 배출하는 **쓰레기의 양은 55톤에 달하고, 우리나라에서 배출하는 쓰레기의 1%를 분리하여 재활용하면 약 700억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구체적인 수치 제시) 우리가 살아갈 지구 환경을 위해서도, 국가 경제를 위해서도 쓰레기 분리배출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 잘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 이번 주 금요일에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을 정리한 표를 쓰레기통 옆 벽면에 부착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독자에 대한 당부)

①) 물론 환경을 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는 것이니, **텀블러 사용을 습관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독자에 대한 당부 ②)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환경 보전반 학생들도 행복해질 수 있고 우리 지구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스스로 환경을 위하고 있다는 자부심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환경도 보존하고 환경을 위하는 우리의 따뜻한 마음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며, 쓰레기 분리배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월 △일
 ○○고등학교 학생회

(가)

▣ 핵심 정리

- 갈래: 라디오 방송
- 성격: 공공적, 정보 전달적
- 주제: 분리배출되지 않는 일회용 컵의 문제
- 특징
 - 준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내용을 강조
 - 환경 보전반 학생의 말을 인용

(나)

▣ 핵심 정리

- 갈래: 대화
- 성격: 협동적, 상호 보완적
- 주제: 쓰레기 분리배출과 관련된 문제 해결의 필요성
- 특징
 -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상대에게 전달
 -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짐

(다)

▣ 핵심 정리

- 갈래: 건의문
- 성격: 공공적, 설득적
- 주제: 쓰레기 분리 배출의 필요성
- 특징
 - 전문 기관의 자료를 인용하여 신뢰성을 높임
 -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여 내용의 이해를 도움

38. <답> ④

<정답 풀이>

(가)의 '목소리를 높이며'를 통해 준언어적 표현을, (나)의 '고개를 끄덕이며'를 통해 비언어적 표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다)는 학생회 학생들이 작성한 건의문으로, 준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이 활용되지 않았다. 언어적 표현만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는 '점심 방송'이고, (다)는 건의문이다. (가)와 (다)는 모두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의사소통으로, 사적 성격보다 공적 성격이 강하다.

② (가)의 '대부분 그만두고 싶대요.', (나)의 '어디에?'는 구어적 표현이라 할 수 있지만, 비문법적인 표현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이

러한 표현으로 인해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아니다.

③ (나)는 구어적 상황에 해당하고, (다)는 문어적 상황에 해당한다. (나)의 '건의문을 써 보자.'에서는 조사의 생략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나)의 '건의 문을 써 보자.'와 (다)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를 비교하여 구어적 상황에서 조사의 생략이 더 자유롭다는 것을 확인할 수는 없다.

⑤ (가)의 '애들이랑'은 환경 보전반 친구들을 가리킨다. 그러나 (나)의 '애들이랑'은 학급 친구들을 가리킨다. (다)의 '학생들과'는 환경 보전반 친구들을 가리킨다. (가)의 '애들이랑'과 (다)의 '학생들과'가 가리키는 대상은 같지만, (나)의 '애들이랑'이 가리키는 대상은 다르다.

39. <답> ④

<정답 풀이>

[B]에서 '학생 2'가 학교 홈페이지에 건의문을 써서 게시하자고 제안하자 '학생 3'은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다는 점을 말하며 '학생 2'가 제안한 내용이 부적절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건의문을 직접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자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A]에서 '학생 1'은 점심 방송 사연과 관련한 논의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학생 3'이 자신의 발화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있지는 않다.

② [A]에서 '학생 3'은 작년의 캠페인은 효과가 없었다며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캠페인의 부적절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 1'이 캠페인을 하자고 제안한 것이 아니므로 '학생 3'이 '학생 1'이 제시한 방안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은 아니다.

③ [B]에서 '학생 2'는 질문의 방식을 통해 건의문을 써서 게시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학생 2'가 '학생 3'이 제안한 내용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얻고자 질문을 하지는 않았다.

⑤ [A]에서 '학생 3'은 '점심 방송' 사연에 대한 다수의 반응을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반응을 언급하며 '학생 1'의 의견에 대해 추가로 생각할 점이 있음을 밝히지는 않았다. [B]에서 '학생 3'은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다는 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다수의 반응에 대해 언급한 것은 아니다.

40. <답> ⑤

<정답 풀이>

㉠에서는 '환경 보전반 학생들도 행복해질 수 있고 우리 지구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라는 대구적인 표현을 통해 건의 사항이 수용된 이후의 긍정적 상황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에서 필자는 문제 상황에 대해 예상 독자가 보일 반응을 추측하여 이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 이는 독자가 문제 상황에 대해 공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필자가 겪고 있는 실질적인 어려움에 공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② ㉡에서는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제시하였다. 이는 환경 보전반 학생들의 수고와 노력에 대해 알리고자 한 것이지, 문제의 원인에 대해 분석한 구체적 내용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③ ㉢에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면서 쓰레기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독자가 지닌 통념의 문제를 지적한 것은 아

교3

니다.

④ @에서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할 것에 대해 언급한 것은 환경을 위해 독자가 할 수 있는 노력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문제가 되는 현재의 상황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 문제가 되는 현재의 상황은 학생들이 쓰레기 분리배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며, 필자는 독자에게 쓰레기 분리배출을 제대로 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41. <답> ③

<정답 풀이>

(나)에서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학생들이 많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다)에서는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을 정리한 표를 쓰레기통 옆 벽면에 부착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다. (다)에서 쓰레기 배출 방법에 대한 교육 시간 확보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 쓰레기 분리배출과 관련된 문제를 화제로 삼았던 것을 반영하여, (다)에서는 일회용 음료 컵이 분리배출되지 않고 쓰레기 봉지에 가득한 사진을 제시하여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② (나)에서 환경 보전반 학생들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 것을 반영하여, (다)에서는 환경 보전반 학생들이 일주일에 2시간 이상 우리 학교 학생들을 위해 봉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④ (나)에서 쓰레기 분리배출이 우리들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한 것을 반영하여, (다)에서는 쓰레기 분리배출을 함으로써 우리 지구도 건강해질 수 있고 스스로 환경을 위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⑤ (나)에서 쓰레기 분리배출과 관련된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반영하여, (다)에서는 쓰레기 분리배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당부하고 있다.

42. <답> ②

<정답 풀이>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의 견해가 아닌, 전문 기관의 조사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환경부의 자료를 인용하여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③ '여러분께서도 최근 우리 학교의 점심 방송에서 환경 보전반 학생의 하소연을 들으셨을 것입니다.'에서 작성자와 독자의 공통적인 경험을 제시하고 있다.

④ 교실에 부착해 놓은 사진을 보고 학생들이 느꼈을 만한 감정을 제시하고 있다.

⑤ 쓰레기 분리배출을 하지 않아 환경부 학생들이 등교 후 30분 이상의 시간을 들여 쓰레기를 분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43~45] 작문

[지문 분석]

(가) 초고 작성을 위한 메모
• 작문 상황: 스터디카페형 독서실의 신설을 학생회가 학교 측에 건의하려고 함.

- 글의 목적: 예상 독자인 학교 관계자들을 설득하는 글
- 주제: 빈 교실을 기존의 독서실이 아닌 스터디카페형 독서실로 만드는 것이 좋다.
- 자료: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나) 글의 초고

우리 학교에서는 올해 1학년의 학급 감축으로 인해 생긴 빈 교실 두 개를 기존 독서실과 똑같이 책상마다 칸막이가 있는 독서실로 만든다고 한다.(기존의 학교 방침) 그러나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독서실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어(학생회가 생각하는 학교 방침의 문제점) 학생회에서는 스터디카페형 독서실의 신설(건의 내용)을 학교 당국에 건의한다.

학생회에서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해 본 결과 기존과 같은 독서실을 추가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다.(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제시) 그 이유는 현재도 독서실을 이용하는 학생이 많지 않아 기존의 독서실만으로도 공간이 충분하다는 것이었다. 이로 볼 때 새로 만들어질 독서실의 활용도가 크게 떨어질 것(학교 방침이 불러올 문제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기존과 똑같은 독서실을 신설하는 것은 학교 시설을 낭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많은 학생들은 빈 교실을 기존과 같은 독서실이 아닌 스터디카페형 독서실로 만들어 주기를 바라고 있다. 학생들은 스터디카페형 독서실의 장점으로 카페 같은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토론도 하고 음료도 마시며 공부할 수 있다는 점(스터디카페형 독서실의 장점)을 들었다. 이런 특징은 공부에 대한 욕구도 더 자극해 주기 때문에 새로운 공간에 대한 이용 또한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시끄러워 공부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일부 학생들의 우려(예상되는 문제점 제시)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스터디카페형 독서실이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고등학교 3년간은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공부에 매진해야 할 중요한 시기이다. 스터디카페형 독서실은 새로운 학습 분위기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 준다(스터디카페형 독서실의 의의)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핵심 정리

- 갈래: 건의문
- 성격: 설득적, 논리적
- 주제: 빈 교실을 기존의 독서실이 아닌 스터디카페형 독서실로 만드는 것이 좋다.
- 특징
 -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자료를 첨부
 - 건의 내용이 받아들여졌을 때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제시

43. <답> ④

<정답 풀이>

기존의 독서실과 똑같은 독서실을 신설하는 것은 학생들의 이용률이 떨어지는 독서실을 또 만드는 비효율적인 것임을 제시하여 스터디카페형 독서실을 신설해야 한다는 학생회 건의의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대학가의 스터디카페를 조사한 내용이나 조사 과정 등은 나와 있지 않다.

- ② 학생들이 기존 독서실을 잘 이용하지 않는다는 내용만 나올 뿐, 기존 독서실의 환경과 운영상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 ③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다는 내용만 나올 뿐, 인터뷰를 한 기간이나 인터뷰 대상을 어떻게 선정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다.
- ⑤ 스터디카페형 독서실을 운영했을 때 시끄러울 수 있다는 학생들의 우려 얘기는 나와 있으나,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44. <답> ④
<정답 풀이>

㉞는 스터디카페형 독서실의 장점과 필요성을 말한 내용으로, 스터디카페형 독서실을 신설하면 기존의 독서실에서 자율 학습을 하는 학생들의 수를 늘릴 수 있다는 내용은 아니다.

<오답 풀이>

- ① ㉞는 기존 독서실도 공석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공간이 남아돈다는 점을 드러내는 자료이다. 따라서 기존 독서실과 똑같은 독서실을 추가로 만들 필요가 없음을 보여 주는 자료라 할 수 있다.
- ② ㉞의 폐쇄적 분위기로 학습 의욕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35%인 점을 보면 적절한 내용이다.
- ③ ㉞는 스터디카페형 독서실의 장점과 필요성을 말한 내용이다. 스터디카페형 독서실은 폐쇄적이지 않고 개방적인 열린 공간이라는 교수의 말을 통해 적절함을 알 수 있다.
- ⑤ ㉞에서 불편 사항 1위가 토의·토론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스터디카페형 독서실은 토의·토론 수업에 적합한 공동 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교수의 말에서 적절함을 알 수 있다.

45. <답> ②
<정답 풀이>

스터디카페형 독서실 신설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글에 고등학교 시기의 중요성을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수정한 글을 보면 고등학교 시기의 중요성은 삭제하고 스터디카페형 독서실의 의미는 그대로 둔 채, 마지막에 스터디카페형 독서실이 만들어지면 얻게 되는 기대 효과를 추가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스터디카페형 독서실 신설에 대한 학생들의 열망은 추가되지 않았다.
- ③ 고쳐 쓴 글의 마지막 문장은 스터디카페형 독서실을 신설했을 때 얻게 되는 기대 효과이지, 스터디카페형 독서실을 신설하기 위한 학생들의 노력이 아니다.
- ④, ⑤ 스터디카페형 독서실의 의미는 삭제하지 않았다. 삭제한 것은 고등학교 시기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다.

언어와 매체

35	③	36	①	37	②	38	③	39	③
40	②	41	③	42	④	43	④	44	⑤
45	④	수고하셨습니다.							

[35~36번 언어 이론]

중세 국어의 주격 조사

- 주격 조사가 환경에 따라 ‘이, ㅣ, Ø(영형태)’로 실현됨.
 - ① 자음 뒤에서는 ‘이’로 나타남.
 - ② 모음 ‘ㅣ’나 반모음 ‘ㅍ’ 이외의 모음 뒤에서는 ‘ㅣ’로 나타남.
 - ③ 모음 ‘ㅣ’나 반모음 ‘ㅍ’ 뒤에서는 ‘Ø’로 나타남.
- 예) 말쓰미(말씀+이), 네(너+ㅣ), 불휘(불휘+Ø)

35. <답> ③
<정답 풀이>

중세 국어 ‘내 이룰~’에 나오는 ‘내’는 대명사인 ‘나’에 주격 조사 ‘ㅣ’가 결합한 형태이다. 하지만 ‘내 책이다’라고 할 때의 ‘내’는 ‘나’에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하여 줄어든 형태이다. 그러므로 두 단어의 형태는 동일하지만 ‘나’라는 단어가 동일한 주격 조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 ①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의 주격 조사인 ‘가’의 형태가 없었기 때문에 현대 국어에서 ‘가’가 오는 자리에 ‘ㅣ’ 형태의 주격 조사가 쓰이거나 주격 조사를 생략하는 형태가 사용되었을 것이다.
- ② 중세 국어에서 ‘이’를 제외한 모음으로 끝난 단어에 주격 조사를 쓰거나 할 때에는 반모음 ‘ㅣ’ 형태인 주격 조사가 붙으므로 현대 국어의 ‘소가’는 ‘쇠’의 형태로 쓰였을 것임을 알 수 있다.
- ④ 중세 국어에서 주격 조사를 쓰려고 할 때는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는지 모음으로 끝나는지를 따지는 것만으로는 어떤 주격 조사를 써야 하는지 해결이 되지 않는다. 앞말이 어떤 모음으로 끝났는지도 살펴야 하고 앞말이 한자인지도 살펴야 한다.
- ⑤ 현대 국어에서 ‘기’는 단모음이지만 중세 국어에서 ‘불휘+Ø’의 형태가 사용된 것으로 보아 ‘불휘’의 ‘기’는 반모음 ‘ㅣ’로 끝난 이중 모음이라고 볼 수 있다.

36. <답> ①
<정답 풀이>

㉠에 제시된 단어가 ‘머리’인데, ‘이’로 끝나는 단어 뒤에는 Ø 형태의 주격 조사가 쓰인다. 그리고 ㉡은 한자어 뒤에 주격 조사가 결합하는 형태이므로 ‘烽火ㅣ’라고 쓰고 읽을 때에는 [봉화]라고 읽는다. 또 ㉢에는 본문에 ‘하늘’이 보이지 않는 ‘ㅎ’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라는 설명이 있기 때문에 ‘하늘히’의 형태로 주격 조사가 결합하는 것이 적절하다.

[37번 언어 이론]

1. 부사어: 주로 용언을 수식하지만 관형어나 다른 부사어, 문장을 수식하기도 하고, 문장이나 단어를 이어 주기도 함.

종류	기능	예문
성분 부사어	문장 속의 특정한 성분을 수식하는 부사어로 용언, 관형어, 다른 부사어 등을 수식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늘은 날씨가 매우 덥다. ●양현이는 아빠와 꼭 닮았다.
문장 부사어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어로 '설마, 확실히, 부디' 등과 같이 말하는 사람의 심리적 태도를 나타내는 부사들이 주류를 이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연 그 아이는 똑똑하구나. ●설마 너까지 나를 의심하는 것은 아니겠지?
접속 부사어	문장이나 단어를 이어 주는 부사어로 '그러나, 그리고, 그러므로'와 같은 문장 접속 부사나 '및'과 같은 단어 접속 부사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러나 희망이 아주 사라진 것은 아니다. →문장접속 ●정치, 경제 및 문화가 발달하여야 선진국이다. →단어접속

2. 부사어가 성립되는 경우

- 부사가 부사어가 되는 경우
- 체언에 부사격 조사가 붙어 부사어가 되는 경우
- 용언의 활용형이 부사어가 되는 경우

37. <답> ②

<정답 풀이>

부사 '참'은 관형사인 '귀여운'을 수식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몹시'는 '훈훈하다'를 수식하고 있다.
- ③ '체발'은 문장 부사로 하나의 성분이 아닌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
- ④ '전국에서'는 명사 '전국'에 부사격 조사 '에서'가 결합된 말이다.
- ⑤ 口의 경우 '채'나 '채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채'의 경우 조사 '로'가 생략되어도 부사어로 쓰이는 말로 볼 수 있다.

[38번 언어 이론]

불규칙 활용의 유형 및 종류

▶ 어간이 바뀌는 경우

① 'ㅅ' 불규칙

'ㅅ'이 모음 어미 앞에서 탈락함.

- 용례: 잇-+-어 → 이어, 짓-+-어 → 지어,
- 낫- [勝/癒] +-아 → 나아
- 규칙 활용 예: 벗어, 씻어

② 'ㄷ' 불규칙

'ㄷ'이 모음 어미 앞에서 'ㄹ'로 변함.

- 용례: 듣-+-어 → 들어, 걸- [步] +-어 → 걸어, 묻- [問] +-어 → 물어
- 규칙 활용 예: 묻 [埋] 어, 얻어

③ 'ㅂ' 불규칙

'ㅂ'이 모음 어미 앞에서 '오/우'로 변함.

- 용례: 눕-+-어 → 누워, 줌-+-어 → 주워,

뚬-+-아 → 도와, 뚬-+-어 → 더워

- 규칙 활용 예: 잡아, 뽑아

④ 'ㄹ' 불규칙

'ㄹ'가 모음 어미 앞에서 'ㄹㄹ' 형태로 변함.

- 용례: 흐르-+-어 → 흘러, 이르- [謂/畢] +-어 → 일러, 빠르-+-아 → 빨라
- 규칙 활용 예: 따라, 치러

⑤ '우' 불규칙

'우'가 모음 어미 앞에서 탈락

- 용례: 푸-+-어 → 피
- 규칙 활용 예: 주어, 누어

▶ 어미가 바뀌는 경우

① '여' 불규칙

'하-' 뒤에 오는 어미 '-아/-어'가 '-여'로 변함.

- 용례: 공부하-+-어 → 공부하여, '하다'와 '-하다'가 붙는 모든 용언
- 규칙 활용 예: 파-+-아 → 파

② '러' 불규칙

어간이 '르'로 끝나는 일부 용언에서, 어미 '-어'가 '-러'로 변함.

- 용례: 이르- [至] +-어 → 이르러, 누르- [黃] +-어 → 누르러, 푸르-+-어 → 푸르러
- 규칙 활용 예: 치르-+-어 → 치러

③ '니라' 불규칙

명령형 어미인 '-거라'가 '-니라'로 변함.

- 용례: 오-+-거라 → 오니라
- 규칙 활용 예: 가거라, 있거라

④ '오' 불규칙

'달-/다-'의 명령형 어미가 '-오'로 변함.

- 용례: 다-+-아 → 다오
- 규칙 활용 예: 주어라

▶ 어간과 어미가 바뀌는 경우

① 'ㅎ' 불규칙

'ㅎ'으로 끝나는 어간에 '-아/-어'가 오면 어간의 일부인 'ㅎ'이 없 어지고 어미도 변함.

- 용례: 하얗-+-아서 → 하얗서, 파랗-+-아 → 파래
- 규칙 활용 예: 좋-+-아서 → 좋아서

38. <답> ③

<정답 풀이> '피'는 '푸다'가 '푸-(어간)+-어(어미)'로 활용되는 과정에서 어간 '푸-'의 'ㅍ'가 탈락한 것으로 어간의 형태만 바뀐 경우이다.

<오답 풀이>

- ① ‘물어’는 ‘묻다’가 ‘묻-(어간)+-어(어미)’로 활용되는 과정에서 어간 ‘묻-’의 ‘ㅍ’이 ‘ㄹ’로 변한 것으로 어간의 형태만 바뀐 경우이다.
- ② ‘지어’는 ‘짓다’가 ‘짓-(어간)+-어(어미)’로 활용되는 과정에서 어간 ‘짓-’의 ‘ㅌ’이 탈락한 것으로 어간의 형태만 바뀐 경우이다.
- ④ ‘푸르러’는 ‘푸르다’가 ‘푸르-(어간)+-어(어미)’로 활용되는 과정에서 어미 ‘-어’가 ‘-러’로 변한 것으로 어미의 형태만 바뀐 경우이다.
- ⑤ ‘까매’는 ‘까맣다’가 ‘까맣-(어간)+-아(어미)’로 활용되는 과정에서 어간의 일부인 ‘ㅎ’이 탈락하고 어미도 변한 것으로 어간과 어미의 형태 모두 바뀐 경우이다.

[39번 언어 이론]

▶ 비음화

- 비음화는 비음이 아닌 자음이 비음의 영향을 받아 비음[ㄴ, ㄹ, ㅇ]으로 동화되는 현상을 뜻한다.

표준발음법 제 5 장 음의 동화

제18항 받침 ‘ㄱ(ㄱ, ㅋ, ㆁ, ㄷ), ㄴ(ㄴ, ㄸ, ㄹ), ㄷ(ㄷ, ㅌ, ㅍ, ㅊ, ㅍ, ㅍ)’은 ‘ㄴ, ㄹ’ 앞에서 [ㅇ, ㄴ, ㄹ]으로 발음한다.

먹는[명는]	국물[궁물]	깎는[깡는]	키움만[키움만]
뽀뽀이[뽀뽀씨]	굽는[궁는]	흙만[흥만]	닫는[단는]
짓는[진는]	웃맵시[온맵씨]	있는[인는]	맞는[만는]
젓명울[전명울]	쫓는[쫘는]	꽃망울[꼇망울]	붙는[분는]
놓는[논는]	잡는[잠는]	밤물[밤물]	앞마당[암마당]
밟는[밤는]	을는[음는]	없는[엄는]	

[붙임] [두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책 넣는다[챙넌는다] 흙 말리다[흥말리다] 옷 맞추다[온만추다]
 밥 먹는다[밤명는다] 값 매기다[감매기다]

제19항 받침 ‘ㄱ, ㅇ’ 뒤에 연결되는 ‘ㄹ’은 [ㄴ]으로 발음한다.
 담력[담녁] 침략[침낙] 강릉[강능] 향로[향노] 대통령[대통령]

[붙임] 받침 ‘ㄱ, ㅍ’ 뒤에 연결되는 ‘ㄹ’도 [ㄴ]으로 발음한다.
 막론[막논→망논] 석류[석류→성류] 협력[협력→협녁]
 법리[법니→뵤니]

▶ 유음화

- 유음화는 ‘ㄴ’이 앞이나 뒤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ㄴ]로 발음되는 현상을 말한다.

표준발음법 제 5 장 음의 동화

제20항 ‘ㄴ’은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ㄴ]로 발음한다.

(1) 난로[날로], 신라[실라], 천리[철리], 광한루[광할루], 대관령 [대궐령]
 (2) 칼날[칼랄], 물난리[물랄리], 줄넘기[줄림기], 할는지[할른지]

[붙임] 첫소리 ‘ㄴ’이 ‘ㄹ’, ‘ㄷ’ 뒤에 연결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닳는[달른], 뚫는[뚫른], 훑네[할레]

다만,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ㄹ’을 [ㄴ]으로 발음한다.
 의견란[의:견난] 임진란[임:진난] 생산량[생산냥] 결단력[결판녁],
 공권력[공권녁] 동원령[동:원녕] 상견례[상견네] 횡단로[횡단노],
 이원론[이:원논] 입원료[이원뇨] 구근류[구근뉴]

▶ ‘ㄴ’ 첨가

- 복합어(합성어, 파생어)에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모음 ‘[]’나 반모음 ‘[j]’로 시작할 때 ‘ㄴ’ 소리가 덧나는 현상을 말한다.

표준발음법 제 7 장 소리의 첨가

제29항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 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소리를 첨가하여 [니, 나, 너, 노, 뉴]로 발음한다.

숨-이불[숨:니불] 흠-이불[흠:니불] 막-일[막닐] 샷-일[샷닐]
 맨-입[맨닙] 꽃-잎[꼇닙] 내복-약[내:복낙] 색-연필[색:연필]
 직행-열차[지캐널차] 녹막-염[능막념] 콩-엿[콩년]
 담-요[담:뇨]
 눈-요기[눈뇨기] 영업-용[영업농] 식용-유[시공뉴]
 국민-윤리[국민닐리]
 밤-웃[밤:웃]

다만, 다음과 같은 말들은 ‘ㄴ’소리를 첨가하여 발음하되, 표기대로 발음할 수 있다.
 이죽-이죽[이중니죽/이주기죽] 야금-야금[야금냐금/야그야금]
 검열[검:널/거:멸] 율량-율량[율랑닐랑/율랑율랑]
 금융[금녕/그똥]

[붙임 1] ‘ㄹ’ 받침 뒤에 첨가되는 ‘ㄴ’소리는 [ㄹ]로 발음한다.
 들-일[들릴] 술-일[술릴] 설-익다[설릭따] 물-약[물락]
 불-여우[불려우] 서울-역[서울릭] 물-엿[물릴]
 휘발-유[휘발류]
 유들-유들[유들류들]

[붙임 2] 두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한 일[한닐] 옷 입다[온닙따] 서른여섯[서른년설]
 3연대[삼년대] 먹은 엿[머근년] 할 일[할릴]
 잘 입다[잘립따] 스물여섯[스물려설] 1연대[일년대]
 먹을 엿[머글릴]

다만, 다음과 같은 단어에서는 ‘ㄴ(ㄹ)’소리를 첨가하여 발음하지 않는다.
 6·25[유기오] 3·1절[사밀쩨] 송별-연[송:벼련]
 등용-문[등용문]

39. <답> ③
 <정답 풀이>
 ‘내복약 → [내:복낙]’의 변동 과정은 비음화와 ‘ㄴ’첨가를 포함한다. ‘내복약 → [내:복낙]’에서는 ‘ㄴ’첨가 현상이 나타나고, ‘내복낙 → [내:복낙]’에서는 비음화 현상이 나타난다.
 <오답 풀이>
 ① ‘직행 → [지캐]’에서는 거센소리되기(ㄱ+ㅎ→ㅋ)가 나타나고,

- ‘지캐널차 → [지캐널차]’에서는 ‘ㄴ’첨가가 나타난다.
- ② ‘홀이불 → [홀이불]’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나타나고, ‘홀이불 → [홀니불]’에서는 ‘ㄴ’첨가가 나타나며, ‘홀니불 → [홀니불]’에서는 비음화 현상이 나타난다.
- ④ ‘콩엿 → [콩열]’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나타나고, ‘콩열 → [콩년]’에서는 ‘ㄴ’첨가가 나타난다.
- ⑤ ‘색연필 → [색년필]’에서는 ‘ㄴ’첨가가 나타나고, ‘색년필 → [생년필]’에서는 비음화 현상이 나타난다.

[40~43] 매체
[지문 분석]

○○군민일보
지친 현대인의 ‘녹색 처방전’ 치유농업!
농촌에서 몸과 마음의 건강 되찾아요.(비격식체의 사용)

현대 사회의 **치열한 경쟁(현대 사회의 문제점 제시)**으로 인하여 점점 삭막해지는 사회적 현실에서 **농업·농촌을 수단으로 한 치유농업(중심 화제)**이 최근 각광받고 있다. 치유농업은 **농촌의 자원을 이용해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해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농촌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제공하는 것(중심 화제의 개념을 제시)**을 말한다.

지난 5일 **○○군(치유농업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 제시)**에서는 국회에서 치유농업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것을 계기로 치유농업을 본격적으로 사업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군내의 여러 농장과 연계해 작물을 돌보고, 건강식도 만들며, 둘레길도 걷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도시인들을 유치해 건강에 도움을 주면서 농가에도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치유농업 사업화의 목적)**는 것이다. ○○군은 그동안 일일 체험 유치에 집중해 왔으나 일회성 프로그램이 지역 경제에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장기 치유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치유 프로그램 전후 질환 치료 정도	
(2만 원) 당일 체험	(100만 원 이상) 장기 체험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솔(CORTISOL)' 감소	안정된 상태에서 많이 발생하는 뇌파 '알파파' 증가
면역력을 높이는 'NK세포' 증가	노화방지에 도움을 주는 '항산화효과' 증가

이번 사업을 둘러싸고 **우려되는 바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려되는 바'를 자세히 제시하지는 않음) 대다수 지역 주민들은 이를 반기는 분위기다. **지역 경제 전문가 이○○ 박사(전문가의 의견 인용)**는 일회적인 농촌 체험보다는 도시인들이 농촌에 체류하면서 건강도 돌보는 한편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것이라며 "지역 특산물 홍보나 지역의 명승지 관광, 지역 축제와 연계하면 시너지 효과로 인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 10. 02. 07:53:01 최초 작성

2021. 10. 03. 09:21:10 수정
○○군민일보 김◇◇ 기자
좋아요(213) 싫어요(3) SNS에 공유 스크랩

관련 기사(아래를 눌러 바로 가기)

- 귀농인의 득템 '치유농업'...살림도 늘리고 힐링도 귀촌, 귀농의 이유에 치유가 많은 이유를 차지하기도
- ◇◇시, 건강 향상 돕는 치유농업 체계적 육성 치유농장 2025년까지 5곳으로 늘리고 시민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강화

[댓글]

↳ 민들레: 할아버지가 △△마을에 다녀오셨는데요. 너무 좋으시네요.
↳ 푸른 숲: △△마을에서는 과일 따기, 전통주 빚기도 한대요.
↳ 민들레: 맞습니다. △△마을 홈페이지에 프로그램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핵심 정리

- 갈래: 인터넷 기사문
- 성격: 객관적, 정보 전달적
- 주제: 치유농업에 대한 소개와 도입 사례
- 특징
 - 실제 사례와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함

40. <답> ②

<정답 풀이>

기사 아래에 '좋아요', '싫어요'를 누르는 장치가 있어서 그 숫자를 보고 해당 기사에 대한 독자들의 선호도를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기사를 누리 소통망에 게재한 것은 공유의 목적이지만 정보의 신뢰도를 검증하는 일과는 관련이 없다.
- ③ 해당 기사는 문자, 이미지와 그래프 등 복합 양식을 보여 주지만 한 면에 구성되는 것이므로, 수용자의 정보 선택은 자유롭지 못하다.
- ④ 기사와 연관된 다른 기사를 링크할 수 있으나 링크가 되었다고 정보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⑤ 기사의 최초 작성 시간과 수정 시간이 다르게 제시되어 있으나, 수용자의 기사 열람 시간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41. <답> ③

<정답 풀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기사 마지막 부분에서 지역 경제 전문가 이○○ 박사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다. 다른 군에서 치유농업이 성공했던 사례만을 선별하여 제시한 내용은 없다.

<오답 풀이>

- ① 치유농업은 농촌의 자원을 이용해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해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농촌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치유농업의 개념이 1문단에서 제시되고 있다.
- ② 도시인의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삭막한 사회적 현실이 치유농업이 각광을 받고 있는 사회적 배경으로 1문단에서 제시되고 있다.

- ④ 체험 유형별 지출액을 이미지로 제시하여 ○○군이 일일 체험 유치보다는 장기 치유 체험 프로그램을 계획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강조하고 있다.
- ⑤ 치유 프로그램 전후를 비교한 ‘치유 프로그램 전후 질환 치료 정도’를 나타내는 각종 지표에서 화살표를 제시해 치유 프로그램이 건강상의 도움과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42. <답> ④

<정답 풀이>

해당 기사에서는 치유농업을 실행하기 위해 ○○군내의 여러 농장과 연계해 작물을 돌보고, 건강식도 만들며, 둘레길도 걷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토론이나 협의에서 치유농업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군내의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띤 토론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는 것은 내용상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농작물을 기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치유농업이 도시인들의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는 점을 이미지로 나타낼 수 있다.
- ② 어두운 분위기의 도시의 모습과 치유농업에 힘쓰고 있는 농촌의 활기찬 분위기를 상반된 음악을 통해 대비해 제시할 수 있다.
- ③ 지역경제 전문가의 말에서 “지역 특산물 홍보나 지역의 명승지 관광, 지역 축제와 연계하면 시너지 효과로 인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서 삽화 처리가 적절하다.
- ⑤ ‘논밭 물 주기’, ‘산길 산책하기’, ‘과일 따기’ 등은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의 사례로 제시되고 있으므로, 이들을 연결해서 그림이 등장하는 것은 적절하다.

43. <답> ④

<정답 풀이>

㉠에서는 ‘되는 바가’를 통해 피동 표현이 드러나나 이를 활용하여 치유농업에 대해 걱정하는 시각이 사회 도처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 ① ㉠은 ‘~아요.’라는 비격식체인 해요체를 활용하여 치유농업의 특성을 드러내는 부제를 제시하고 있다.
- ② ㉠은 ‘으로 인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앞 구절이 뒤에 이어지는 상황의 원인임을 제시하고 있다. 부사격 조사 ‘으로’가 어떤 일의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경우에 ‘말미암아’, ‘인하여’, ‘하여’ 등이 뒤따르기도 한다. 여기에서 연결 어미 ‘-어’는 ‘-아/-어’의 이형태로, 까닭이나 근거 따위를 나타낸다.
- ③ ㉠은 ‘-고 있다’를 사용하여 치유농업에 관한 관심과 호응이 현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임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은 지역경제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여 치유농업 사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44~45] 매체

[지문 분석]

(가)



자원 절약·환경 보호, 식품 ‘소비기한제’ 도입
지난달 23일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

되어 **식품 유통기한 제도(사라지는 제도)**가 내년 말까지만 시행되고 **20XX년 1월부터(새로운 정책이 시작되는 시기를 제시)** ‘**소비기한제(새로 도입되는 제도)**’로 대체되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시된다.

현재의 유통기한은 **기업이 소비자에게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을 표시한 날짜(유통기한의 개념)**로, 식품의 품질 변화 시점을 기준으로 60~70% 앞선 시점으로 설정된다. **반면에(차이점 제시)** 소비기한은 **식품에 표시된 보관 조건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소비자가 식품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고 보는 최종 날짜(소비기한의 개념)**로, 품질 변화 시점의 80~90% 앞선 시점으로 설정된다.

소비기한제는 식품의 제조 및 냉장 보관 등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유통기한이 경과하여도 섭취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현실을 반영한 정책(소비기한제 도입 배경)**으로, **식품 폐기물을 줄여 경제적, 환경적으로 많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소비기한제 도입의 예상 결과)**되는데 실제로 외국에서도 많은 나라가 소비기한제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별 소비기한 및 유통기한 시행 현황>

국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중국	EU
소비기한	○	○	○	○	○	○	○
유통기한	○	×	×	×	×	×	×

관련 기관에 의하면 냉장 보관을 잘할 경우 계란은 유통기한 경과 후 25일, 식빵은 20일까지 섭취할 수 있는데 관련 기업과 정부 부처에서는 소비기한제 도입에 따른 세부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식품별 유통기한과 추정 소비기한>

식품	우유	치즈	두부	식용유	고추장	통조림
유통기한	14일	6개월	14일	2년	18개월	5년
추정 소비기한 (유통기한 경과 후)	+45일	+70일	+90일	+5년	+2년	+10년

이○○ 기사

[관련 뉴스]

- ▷ 식품 소비기한제 “낭비 줄여” vs “안전 우려”
- ▷ 2023년 소비기한제 도입 - 혼란 우려

[댓글 23개]

**** 2021. 10. 12. 22:37

10년 된 통조림을 먹으라구요. 소비기한제 반대합니다.

[답글 4] 좋아요 21 싫어요 3

(나)

진행자: 식품 소비기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어 내후년부터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시됩니다. **오늘은 이 제도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 또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대답의 목적)** 알아보겠습니다. 식품 정책을 연구하고 계신 송○○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송 박사: 네 안녕하세요.

진행자: 박사님, 유통기한제 대신 소비기한제가 도입되면 어떤

고3

좋은 점이 있을까요?

송 박사: 가정에서 유통기한이 지나면 대개 식품을 폐기하지 않습니다.

진행자: 네 맞아요. 저도 그러거든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답변)

송 박사: 마찬가지로 기업에서도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매장에서 반품을 통해 폐기하고 있습니다. 폐기된 식품은 그대로 음식물 쓰레기가 되는데 그로 인한 자원의 낭비와 환경 오염이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비기한제가 도입되면 보관 기간이 늘어나게 되어 폐기되는 식품이 줄게 되므로(소비기한제의 장점) 이런 문제가 적지 않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네(고개를 끄덕이며) 긍정적인 효과가 매우 크군요. 하지만 소비기한제 도입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는 시청자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송 박사: 네 맞습니다.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걱정들이 많으시겠죠. 시청자분들의 그런 걱정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소비자들의 입장에 공감을 포함.) 아무래도 식품의 보관 기간이 길어지면 신선도가 떨어지거나 변질 가능성이 있어 먹거리 안전을 위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냉장식품 등과 같이 변질 우려가 큰 식품에 대해서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병기할 필요가 있다(우려에 대한 대안 제시)고 생각합니다.

45. <답> ④

<정답 풀이>

송 박사는 소비기한제가 도입되면 보관 기간이 늘어나게 되어 폐기되는 식품이 줄게 되므로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자원 낭비와 환경 오염을 해소할 수 있다고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④와 같은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자원 절약, 환경 보호라는 장점만 부각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② 누락된 정보를 언급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③ 정보의 출처가 제시되지 않아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다.
- ⑤ 송 박사는 진행자가 제시한 대담의 주제에 맞게 발언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가)

▣ 핵심 정리

- 갈래: 인터넷 뉴스
- 성격: 정보 전달적
- 주제: 유통기한제의 폐지와 소비기한제 도입
- 특징
- 외국의 사례를 제시하여 소비기한제의 장점을 설명함.

(나)

▣ 핵심 정리

- 갈래: 텔레비전 방송 대담
- 성격: 정보 전달적
- 주제: 소비기한제의 장단점과 대안
- 특징
- 전문가와의 대담을 통해 우려되는 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44. <답> ⑤

<정답 풀이>

정보 수용자들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나)의 텔레비전이 아니라 (가)의 인터넷 매체이다.

<오답 풀이>

- ① (가)의 댓글은 정보의 수용자가 소비기한제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다른 이들이 그에 답글을 달거나 선호를 표시함으로써 여론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 ② (가)는 기자의 의견 없이 소비기한제 도입과 관련한 명백한 사실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 ③ (나)는 송 박사의 의견 위주로 정보가 구성되어 있다.
- ④ 진행자의 '소비기한제 도입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는 시청자분들도 많다'라는 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지정보
 저자 정준희
 발행처 나무아카데미
 isbn 979-11-377-7640-1
 제본형태 hwp pdf 파일
 발행일 2024.10.05
 가격 1,500원
 값 1500 원



ISBN 979-11-377-7640-1 (PDF)